

ISSN 2734-1275
eISSN 3059-006X

제6권 제1호

Vol. 6, No.1, Jun 2025

장애의재해석

Journal of Reinterpretation of Disability

JOURNAL OF
REINTERPRETATION
OF DISABILITY



「장애의재해석」 제6권 제1호의 오른쪽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보이스아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시각장애인용 리더기 혹은 스마트폰 어플(보이스아이)을 이용하여
본문 내용을 음성출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ISSN 2734-1275
eISSN 3059-006X



제6권 제1호

Vol. 6, No.1, Jun 2025

장애의재해석

Journal of Reinterpretation of Disability

JOURNAL OF
REINTERPRETATION
OF DISABILITY



목 차

- **성경에 나타난 장애 인식과 타자화 구조**
 : 엘리아데의 성과 속 개념 중심으로
 채민 1
- **호주 라 트로브 교육모형을 활용한 지원의사결정 교육의 효과와 향후 과제**
 이동석, 도여옥, 김강원 25
- **장애인의 시민권적 지위 변화에 관한 연구**
 :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민진홍, 김연수 53
- **사회복지사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최형일, 임해영 75

- **‘접근성 매니저’의 직무 모형 분석: 문헌분석, 설문조사 및 FGI를 통한 도출과 검증**
 최보경, 최보연, 정종은 105

-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른 비교**
 이교일, 김지은, 하은호, 김은빈 137

- **잠재계층성장모형을 활용한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 변화궤적 분석**
 신민철, 전동일 163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네트워크 분석**
 : 부르노 라투르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이재욱 185



장애의재해석 제6권 제1호

2025 Vol. 6, No. 1, 001 - 024

성경에 나타난 장애 인식과 타자화 구조 : 엘리아데의 성과 속 개념 중심으로

채 민*

본 연구는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의 신성-속성 개념을 기독교 신학에서의 장애 인식과 연결하여 분석하고, 장애 신학의 관점에서 신성한 공간과 시간의 재구성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기존의 기독교 신학은 신성 개념을 특정한 신체적, 정서적 조건에 기반하여 구성해 왔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은연중에 배제되거나 주변화되는 위치에 놓여 왔다. 연구 방법으로는 해석학적 접근을 취하되, 엘리아데의 상징 개념에 주목하여 성경 본문 내의 신체적 차이에 대한 상징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문에 나타난 언어적 표현과 서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상징비평(symbolic criticism)과 담론분석(discourse analysis)을 병행하였다. 출애굽기 4장 10-12절, 레위기 21장 16-24절, 이사야 35장 5-6절, 요한복음 9장 1-3절, 고린도후서 12장 7-10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신성한 질서가 장애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온 신학적 구조를 비판적으로 규명하였다. 이어서 장애 신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신앙적 주체성과 감각적 경험을 중심으로 신성한 질서를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독교 내 장애 배제의 상징 구조를 비판적으로 드러내며, 장애학과 신학간의 학제 간 연구를 촉진하고, 기독교 공동체에서 장애인의 온전한 포함을 위한 신학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 미르체아 엘리아데, 신성-속성 개념, 장애 신학, 장애와 종교

* 대구대학교 대학원 장애학과 외래교수

I. 서론

기독교 신학에서 신성함(sacred)과 속성(profane)의 구별은 종교적 질서를 형성하는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아 왔다.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 1907~1986)는 신성한 공간과 시간이 인간의 종교적 경험을 구조화하며, 이를 통해 인간이 초월적 세계와 연결된다고 보았다(Eliade, 1959). 그의 이론에 따르면, 신성한 공간은 신적 현현(hierophany)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초월적 의미를 지닌다. 반면, 속성의 공간은 신성한 질서가 부재한 일상적이며 무질서한 영역으로 간주된다. 임형권(2018)은 엘리아데의 종교이론이 현상학적·해석학적 종교 연구에서 성스러움을 지나치게 보편화하고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의 이론이 종교의 세속화 과정에서 원형적 종교성을 회복하는 데 실천적 자극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엘리아데의 '성과 속'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은 주로 종교적 신성의 본질과 그것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 신혜진(2000)의 연구에서는 신성과 거룩의 개념을 비교하며 예배형식이 신앙 주체자의 신앙 대상에 대한 사고와 행동 양식의 표현인 동시에 반복적인 의례를 통해 '경건성'이 표상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서희, 신호영(2025)은 엘리아데의 성스러운 공간 개념에서 '중심'이라는 영역이 신이 현현하는 장소로서, 민속 신앙에서는 제의적으로 구축되는 공간으로 의미화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또한, 신호재(2019)는 현상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엘리아데의 성스러운 공간이 반드시 종교적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인간이 특정한 장소를 성스럽게 경험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엘리아데의 개념을 통해 종교적 공간과 시간의 형성과 의미를 탐색하는 데 집중해 왔지만, 신성한 공간과 시간이 특정한 신체적 조건을 전제하거나 그로 인해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다. 특히 신성 개념이 신체적 완전성, 정상성, 정결함과 같은 전통적 기준과 결합할 경우, 장애인은 신성한 질서로부터 배제되는 존재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이는 성경 본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출애굽기 4장 10~12절, 레위기 21장 16~24절, 이사야 35장 5~6절, 요한복음 9장 1~3절, 고린도후서 12장 7~10절은 기독교 내에서 장애를 해석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온 본문들이며, 그 해석 방식은 전통 신학과 장애신학 사이에서 상이하게 작동한다.

기독교 신학 내에서 장애와 관련된 신학적 논의는 서구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장애신학(Disability Theology)이라는 명칭에서 본격화되었으며, 이는 예수의 치유 서사를 중심으로 장애인을 타자화해 온 전통 신학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반면 한국 신학계에

서는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 후반 이후에야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이 점차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김홍덕(2010)은 『장애 신학』에서 장애인의 고통과 치유에 대한 목회 신학적 접근을 시도하며, 기독교 공동체 내 포용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채은하(2020)는 성경 내 장애인 호칭이 종교적 타자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언어 구조에 내재된 배제 기제를 해석학적으로 분석한바 있다. 특히, 최대열(2011)은 레위기 21장을 중심으로 장애인을 제사장에서 배제하는 본문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문자주의적 해석이 장애인을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이자 신학적 타자로 바라보며, 신체적 결함을 죄나 부정과 동일시하는 종교적 해석 틀이 구조적 배제를 정당화해 온 방식을 신학적·윤리적 관점에서 성찰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본 연구가 미르체아 엘리아데의 신성 공간 개념과 제의적 경계 설정 이론을 통해, 장애인이 신성한 질서에서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방식을 분석하고, 그 구조의 재해석 가능성을 모색하는 접근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

본 연구 방법으로는 신학적 해석학의 틀 안에서 상징비평과 담론분석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였다. 상징비평은 엘리아데가 제시한 신성 개념이 본문 내에서 어떻게 특정 신체에 신성성을 부여하거나 제거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유효하다. 특히 레위기과 이사야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온전함’, ‘정결함’ 등의 신체 상징은 장애인의 배제를 정당화하는 상징 구조로 작용한다.

한편, 담론분석은 본문에 등장하는 장애 관련 언술이 사회적 담론과 신학적 권력 구조 안에서 어떻게 정체성과 타자화를 형성하는지를 밝히는 데 유효하다. 요한복음 9장의 언어는 장애를 죄, 실패, 결핍으로 해석하는 고정된 신학적 담론을 반영한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기존의 장애 관련 담론 연구에서도 자주 활용되었으며(김은아, 최송식, 2021), 본 연구의 텍스트 분석 목적에 적절한 방법론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이 신성한 공간과 시간의 구성 과정에서 배제되는 방식을 해체하고, 그 속에 온전히 포함될 수 있는 신학적 토대를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기독교 신학과 장애학 간의 학제 간 대화를 촉진하며, 배제의 상징 구조를 넘어서는 포용적 신학 담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미르체아 엘리아데의 신성-속성 개념과 기독교적 적용

1) 엘리아데의 신성-속성 개념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 1907~1986)는 종교학과 신화 연구에 있어 중대한 기여를 한 학자로, 그의 이론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개념 중 하나는 신성(sacred)과 속성(profane)의 구별이다(Eliade, 1959). 엘리아데는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이 신성한 영역과 속된 영역으로 나뉘며, 종교적 인간은 신성한 공간과 신성한 시간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고 보았다. 즉,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은 신성한 차원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세계를 구조화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특정한 공간과 시간 개념을 통해 구체화 된다. 신성한 공간은 신적 현현(hierophany)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신과 인간이 만나는 신비로운 지점이 된다. 이러한 공간은 물리적인 장소를 초월하여 초월적 의미를 지니며, 성전(temple), 제단(altar), 성소(sanctuary)와 같은 장소는 신성한 공간으로 간주된다. 반면, 속성의 공간은 신적 질서가 개입하지 않는 무질서하고 세속적인 공간으로 이해된다(Eliade, 1959).

엘리아데의 이론에 대한 보다 깊은 분석을 제공한 알렌(Allen, 1978)은 엘리아데의 방법론에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모든 성현(hierophany)은 역사적으로 표출되지만, 그 구조는 동일하게 유지된다'라는 점을 강조하였다(임형권, 2018, p. 75). 즉, 인간이 경험하는 신성함의 패턴은 단순히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지리적 조건, 사회 구조, 정치적 상황 등의 영향을 받으며 보편적인 구조를 유지한다. 이로 인해 신성한 공간과 시간 개념은 특정한 종교적 전통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엘리아데는 역사를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인간이 신성한 의미를 경험하는 구체적 맥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신성한 공간과 시간은 인간의 경험 속에서 형성되며, 이를 통해 종교적 질서가 구축된다. 따라서 특정한 종교적 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종교적 의미를 구현하는 중심 개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성한 공간 개념이 특정한 방식으로 형성될 경우, 종교 공동체는 특정한 신체적 조건을 기준으로 공간을 설계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공간적 배제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독교 예배 공간에서 장애인의 신체적 조건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 장애인들은 신성한 공간에서 주변화될 위험이 있다. 이는 신성한 공간의 형성과 유지가 특정한 신체적 기준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장애인을 종교적 질서의 중심

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레위기 21장 16~24절에서 신체적 결함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장애가 신성한 질서에서 배제되는 방식의 신학적 기원을 보여준다. 반면, 출애굽기 4장 10~12절에서 모세는 자신의 언어적 장애를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입을 창조한 이가 누구냐?’라고 반문하며 장애를 신성한 질서 안에서 수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신성한 공간 개념이 장애인을 배제하는 방향과 포함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엘리아데의 이론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그 개념들 가운데서도 특히 ‘신성한 공간의 구조화’(spatial hierophany)와 ‘제의적 경계 설정’ 개념을 해석의 중심 틀로 삼는다. 엘리아데는 신성한 공간이 단순히 물리적 장소가 아닌, 존재의 중심이자 질서를 부여하는 구조로 작동한다고 보았으며, 신성한 질서가 특정한 신체적 능력을 전제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몸을 결핍의 몸으로 상징화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이는 종교적 공동체가 공간과 신체를 구분짓는 방식을 분석하는 데 유효한 이론적 도구가 된다.

특히, 엘리아데가 주장한 ‘중심의 발견’과 ‘제의적 구획’ 개념은, 신성한 공간에 누가 접근할 수 있고, 누가 배제되는지를 결정하는 상징적 구조로 기능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성서 본문에 나타난 장애인의 위치를 해석하며, 장애가 신성한 질서에서 어떻게 배제되거나 재구성되는지를 공간적 상징 체계 속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즉, 레위기 21장에서 장애인이 성소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신성한 경계 설정,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애인의 수용, 요한복음 9장에서 신성 개념의 전복, 고린도후서에서 약함의 재해석 등은 모두 ‘신성한 공간의 위계화’와 ‘접근 자격’이라는 구조적 틀을 통해 일관되게 분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신성 개념이 특정 신체에 부여되는 방식이 단순한 신학적 해석을 넘어서, 사회적 배제의 상징 체계로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장애인의 위치를 재구성하기 위한 신학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2) 신성한 시간과 영원한 회기

역사 비평적(historico-critical) 접근법을 사용하여 성서를 연구한 종교사학파의 대표적 인 학자인 헤르만 궁켈(Hermann Gunkel)은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바벨론 창조 신화의 영향을 받은 비역사적 전설로 해석하였다(Gunkel, 1901). 반면,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성경을 단순한 역사적 서술로 해석하는 접근법을 넘어서, 거대한 내러티브적 상징 체계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신성한 시간과 속성의 시간을 구별

하며, 신성한 시간이 신화적 과거와 연결되어 있으며, 종교적 의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재현된다고 보았다(Eliade, 1959). 김병욱(2014)은 네러티브(narrative)가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성을 포함하며, 개인적·사회적 상호작용과 특정한 장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신성한 시간이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요소를 포함하며 지속적으로 재현되는 구조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엘리아데는 신성한 시간(sacred time)이 신화적 과거와 연결되며, 특정한 의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재현된다고 보았다. 그는 기독교 전통에서 성례전(성찬식, 세례)과 같은 의례가 신성한 시간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Eliade, 1978). 신성한 시간은 단순한 연속적 시간 개념이 아니라, 순환적(recurrent)이고 반복적인 구조를 가지며, 신앙 공동체는 특정한 의례를 통해 신성한 시간을 재현함으로써 현재의 순간이 신화적 과거와 연결되는 방식을 형성한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에서 신성한 시간 개념은 종종 이사야 35장 5~6절과 같이 장애를 치유와 연결하면서 장애인을 신성한 질서에서 미완의 상태로 간주하는 해석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최대열, 2015). 이 본문은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며,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며, 종말론적 치유를 장애인의 궁극적 구원으로 해석하는 근거가 되어왔다. 반면,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는 예수가 선천적 장애를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여기는 해석을 거부하고, 장애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신성한 시간 개념이 장애를 단순한 극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몸과 신앙적 경험을 포함할 수 있도록 재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논의는 고린도후서 12장 7~10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육체적 약함(가시)을 신앙적 강점으로 해석하는 방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바울은 신체적 결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는 신성한 질서 속에서 장애를 재해석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신성한 시간 개념이 기존의 신체적 완전성을 이상화하는 종말론적 해석에서 벗어나, 장애를 신앙적 의미의 중심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장애 신학(Disability Theology)과 신성한 질서의 재구성

1) 장애 신학의 개념과 발전

장애신학(Disability Theology)은 1990년대 이후 서구 신학계에서 점차 독립된 신학적 분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그 출발점은 대체로 낸시 아이슬랜드(Nancy L. Eiesland)

의 선구적 작업으로 평가된다. 그녀는 『The Disabled God: Toward a Liberatory Theology of Disability』(1994)에서 장애인의 몸을 중심으로 한 신학적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특히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부활한 예수가 여전히 못 자국을 지닌 몸으로 나타났다는 장면에 주목하여, “장애인의 하나님(The Disabled God)”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장애를 치유의 대상이나 결함으로 간주하던 기존 신학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었으며, 장애를 신성함과 연결된 정체성으로 전환시키는 신학적 전환점을 형성하였다(Eiesland, 1994).

아이슬랜드(Eiesland, 1994)에 따르면, 장애는 단순한 약함이나 결핍이 아니라, 공동체 성과 연대, 그리고 해방의 신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신학적 자원이다. 이는 장애신학이 단지 장애인을 위한 목회적·복지적 신학을 넘어서, 신학 전체를 재구성하는 급진적 패러다임을 시사한다. 이후 토마스 레이놀즈(Reynolds, 2008)는 『Vulnerable Communion: A Theology of Disability and Hospitality』를 통해, 장애를 공동체 내에서 ‘환대(hospitality)’와 ‘취약성(vulnerability)’의 윤리로 재해석하였다. 그는 신학의 중심 가치로서 상호의존성과 타자성의 수용을 강조하였다. 아모스 용(Yong, 2011)은 오순절주의 신학에 기반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 장애인의 영성과 공동체 포용성을 강조함으로써 장애신학의 성령론적 확장을 시도하였다.

한국 신학계에서도 2010년대에 들어 장애신학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김홍덕(2010)은 『장애신학: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에서 성서 내 장애인의 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였으며, 최대열(2015)은 장애신학이 인간 이해에 있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을 강조하였다. 정아영(2023)은 장애신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공동 신학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을 위한 특수한 신학으로 오해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계보가 있는 장애신학은 전통 신학이 전제해 온 건강, 완전성, 능력 중심의 가치 체계에 질문을 던지며, ‘차이로서의 장애’를 통해 하나님의 신비와 공동체의 본질을 새롭게 조명한다. 이는 단지 소수자를 위한 윤리적 주장에 머물지 않고, 신학의 존재론적 기반 자체를 전환하려는 실천적 이론이다. 특히 성서의 구약 본문은 장애에 대한 기존의 배제적 해석을 넘어서 새로운 윤리적 의미로 재구성될 수 있다. 예컨대 레위기 19장 32절은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명령을 통해, 신체적 약자를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임을 시사한다. 신명기 27장 18절에서는 “장애인을 길에서 그릇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라는 구절을 통해 공동체가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윤리적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구절은 장애인을 배제의 대상으로 보았던 전통적 해석을 넘어, 공동체 윤리와 정의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위치를 재구성할

수 있는 신학적 자원을 제공한다.

장애신학은 성서 해석에 기초하여 ‘장애와 역설(paradox of disability)’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며 인간의 약함과 취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과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신학적 인식이다. 다시 말해, 장애는 신의 현존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자, 인간 존재의 다양성과 불완전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은 장애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포함된 실존적 양태로 이해함으로써, 신학이 포용적인 인간 이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끈다.

2) 장애와 신성한 질서의 재구성

기독교 신학에서 장애는 종종 구원의 대상, 치유를 필요로 하는 존재, 혹은 신성한 질서와 분리된 상태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김홍덕(2010)은 야곱의 장애 경험을 분석하며, 야곱이 장애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으며,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축복의 표징이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야곱의 장애가 단순한 신체적 결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적 유산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 최대열(2015)은 ‘낙인화의 전도(reversal of stigma)’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장애를 신성함과 분리된 상태로 인식하는 기존의 해석을 비판하였다.

이재서(2013)는 장애 신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며, 신학적 관점에서 장애인의 평등권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장애 신학이 단순히 신앙 공동체 내 장애인의 위치를 재조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등하게 바라보고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최대열(2006)은 장애 신학이 전통적으로 장애인을 배제해 온 성서 본문을 재해석하면서, 장애인의 신앙적 위치를 새롭게 구성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야곱의 장애 서사, 바울의 장애 신학, 바디메오의 치유 서사 등을 장애 신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장애가 신성한 질서의 한 부분으로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예를 들어, 바디메오 이야기에서 예수는 단순히 그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한 명의 온전한 신앙적 주체로 인정하였다. 장애 신학은 이를 ‘장애인 권익 옹호의 첫 모델(first model of disability advocacy)’로 평가하며, 신성한 공간 속에서 장애인의 위치를 새롭게 정의해야 함을 강조한다.

신약성경에서도 장애 신학적 해석이 요구되는 본문이 존재한다. 정아영(2023)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는 예수가 선천적 장애를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여기는 해석을 거부하고, 장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장애를 단순한

결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질서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요소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7~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신체적 약함이 오히려 신앙적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장애가 신성함과 분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본문들은 신성한 질서 개념이 특정한 신체적 기준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몸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장애학에서는 장애 신학이 여전히 장애인을 특정한 목적 속에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한다(조한진, 2011). 즉, 기독교 신학은 여전히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엘리야데가 말한 신성과 분리된 몸으로 장애인을 간주하는 신학적 해석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애 신학적 관점에서는 신성한 공간이 특정한 신체적 기준을 전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몸과 감각적 존재를 포용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어야 한다(Brock, 2021). 이는 물리적 교회 건축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신학 개념 자체가 장애인의 실존적 경험과 몸의 차이를 중심에 두고 신성한 질서를 재구성해야 함을 시사한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독교 신학에서 신성한 공간과 시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위치 지어졌는지를 분석하고, 장애 신학의 관점에서 신성한 질서를 재구성할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기존 신학적 개념이 장애인을 어떻게 배제하거나 포함했는지를 검토하고, 신학적 분석을 통해 신성한 공간과 시간 개념이 장애인을 어떻게 규정해 왔는지를 탐색한다. 또한, 비판적 장애학 접근을 활용하여 신체적 기준이 종교적 실천과 공간 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장애 신학적 재해석이 가능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1. 문헌 연구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신성한 공간과 시간 개념이 기독교 전통에서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것이 장애인을 어떻게 배제하거나 포함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를 검토한다. 문헌 연구는 엘리야데의 신성-속성 개념과 기존 신학에서의 장애인 위치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먼저, 엘리야데의 『The Sacred and the Profane』(1959)을 중심으로 신성한 공간과 시간 개념이 기독교 신학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엘리야데는 신성한 공간이 신적 현현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해되며, 신성한 시간이 특정한 의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재현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개념이 기독교 신학에서 성전, 교회 공간, 예배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문헌을 통해 분석하고, 신성한 공간과 시간이 특정한 신체적 기준을 전제로 작동한 사례를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성경 본문은 장애신학과 관련된 국내의 핵심 문헌들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거나 분석된 구절들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Amos Yong(2011), Creamer(2009), 그리고 채은하(2020), 최대열(2011) 등의 국내 신학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본문들을 분석하였으며, 이 중 신성 개념과 신체적 조건이 교차하거나, 장애에 대한 상징적·담론적 구조가 드러나는 다섯 본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출애굽기 4장, 레위기 21장, 이사야 35장, 요한복음 9장, 고린도후서 12장은 모두 장애와 타자화 구조, 신성 재구성의 가능성을 고찰할 수 있는 대표 본문들로, 기존 장애신학의 논의 흐름과 이론적 일관성을 갖는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장애인을 언급하는 본문 분석을 통해, 성서가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본다. 출애굽기 4장 10~12절에서 모세의 언어적 장애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되는 방식, 레위기 21장 16~24절에서 장애인이 제사장직에서 배제되는 규정, 이사야 35장 5~6절에서 종말론적 치유와 장애인의 위치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분석한다. 또한,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가 장애를 죄와 연결시키지 않고 신학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과, 고린도후서 12장 7-10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신앙적 강점으로 해석하는 방식도 고찰한다.

2. 신학적 분석

본 연구는 신학적 분석을 통해 신성한 공간과 시간 개념이 기독교 신학 내에서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것이 장애인을 어떻게 위치 지어 왔는지를 탐색한다. 이를 위해 신성한 공간과 시간 개념이 특정한 신체적 기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를 검토하며, 신성한 질서를 구성하는 신학적 논리가 장애인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먼저, 신성한 공간 개념이 기독교 전통에서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장애인의 신체적 조건이 공간 형성 과정에서 어떻게 고려되었는지를 분석한다. 교회 건축과 제의 공간이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는지, 장애인이 신성한 공간에서 주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검토한다. 레위기 21장 16~24절이 신성한 공간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

동했는지, 출애굽기 4장 10~12절이 신성한 공간에서 장애를 포용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신성한 시간 개념이 종말론적 구원과 연결되면서 장애인의 종교적 경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기독교 신학에서 구원과 완전함이 특정한 신체적 상태와 연결되면서, 장애인이 불완전한 존재로 간주되는 신학적 해석이 등장하였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이사야 35장 5~6절이 종말론적 치유와 연결되는 방식과, 요한복음 9장 1~3절이 장애를 신성한 질서 속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성서적 본문에 대한 신학적 재해석을 시도하며, 장애인이 기존 신학적 해석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검토한다. 바다메오 치유 이야기가 신성한 질서를 확장하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고린도후서 12장 7~10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신체적 약함을 신앙적 강점으로 해석하는 논리가 장애 신학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3. 비판적 장애학 접근

본 연구는 비판적 장애학의 관점을 활용하여 신성한 공간과 시간이 특정한 신체적 기준을 요구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장애 신학적 관점에서 신성한 질서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먼저, 조한진(2011)의 『장애학에 대한 재고찰』을 바탕으로 장애학 관점에서 신체적 기준이 종교적 공간과 실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한다. 장애학은 장애를 단순한 신체적 결함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며, 종교적 공간과 시간이 특정한 신체적 기준을 전제하는 방식이 장애인을 주변화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장애인의 경험과 신성한 공간의 관계를 분석하며, 신앙 공동체 내에서 장애인이 어떤 방식으로 위치 지어졌는지를 연구한다. 장애인이 교회 예배와 종교적 의례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신학적 장벽이 존재했는지를 분석하고, 신성한 공간이 장애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를 탐색한다. 또한, 신성한 시간 개념이 특정한 신체적 변화를 전제할 경우, 장애인의 시간이 어떻게 주변화되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장애학 관점에서 신체적 완전성을 이상적인 상태로 설정하는 종말론적 해석이 장애인의 신학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며, 장애인의 시간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기존 신학적 해석이 장애인의 경험을 충분히 포괄하는지 분석하고, 신성한 질서를 장애인의 몸과 시간 개념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가능

성을 제안한다. 다음 <표 1>은 연구 방법에서 사용한 문헌 연구, 신학적 분석, 비판적 장애학 접근의 분석 틀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연구 방법 분석 틀

분석영역	분석 대상	분석 방법	관련 성경 구절
문헌 연구	엘리아데의 신성-속성 개념, 성경 내 장애 관련 본문, 장애 신학 주요 연구	성경 본문 해석, 신학 연구 문헌 검토, 장애 신학 주요 논의 분석	출애굽기 4장 10~12절, 레위기 21장 16~24절, 이사야 35장 5~6절, 요한복음 9장 1~3절, 고린도후서 12장 7~10절
신학적 분석	신성한 공간과 시간의 형성, 장애인의 위치, 성경 본문의 신학적 해석	신성한 질서 내 장인의 위치 분석, 신학적 개념의 재구성	
비판적 장애학 접근	신체적 기준이 종교적 공간과 실천에서 작동하는 방식	장애인의 경험 중심 분석, 종말론적 해석의 재구성, 사회적 배제 구조	

IV. 결 과

본 연구는 기독교 신학에서 신성한 공간과 시간이 특정한 신체적 기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장애인이 배제되거나 주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성경 본문을 신학적, 장애학 관점에서 재해석할 경우, 장애를 포함하는 신성한 질서 개념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이 드러났다. 연구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의 몸과 신성한 공간에서의 배제

기독교 신학 전통, 특히 레위기 율법에서 신체적 ‘완전성(perfection)’은 오랫동안 성스러움(holiness)과 종교적 순결(purity)의 필수 조건으로 간주되어 왔다(Eiesland, 1994; Creamer, 2009). 대표적으로 레위기 21장 16~24절은 제사장의 자격 조건으로 특정한 신체 기준을 명시하며, “눈먼 자, 절름발이, 지체가 길거나 짧은 자” 등 장애를 지닌 이들이 제사장직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는 단순한 기능적 무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 결합 자체가 신성(sacredness)을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규범은 장애인의 몸을 정상성과 완전성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난 ‘불완전한 몸’, ‘제의적으로 부정한 몸’으로 낙인찍는 담론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신학적 전통은 중세 기독교뿐 아니라 현대 일부 교단에서도 여전히 상징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예배 인도자, 제단 위 사역자, 성찬 집례자의 자격에서 신체적 형상과 표현 능력이 거룩함의 표상으로 암묵적으로 요구되는 현실은 장애인의 종교적 주체성을 제한하는 신체 정치(biopolitics)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Eiesland, 1994, p. 74).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신성한 공간을 인간 존재를 우주적 질서와 연결하는 축(Axis Mundi)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성스러운 공간은 인간 존재를 우주적 질서와 연결시키는 축이며,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구별짓는 상징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신성한 공간의 구획은 곧 세계 속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라고 보았다(Eliade, 1959, pp. 20~21). 이러한 해석은 신체적 규범성과 공간 구성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을 뒷받침하며, 장애인을 배제하는 공간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구조로도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성서 안에는 이러한 신체 중심적 규범에 균열을 내는 본문도 존재한다. 출애굽기 4장 10~12절에서 모세는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며 언어적 장애(possible speech disorder)를 이유로 소명을 거부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반문하며 이를 거절한다. 이는 신체적 기준이 종교적 실천의 본질적 전제가 아님을 시사하는 본문으로, 신체적 비정상성에 근거한 배제를 신학적으로 전복하거나 재구성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현대 실천신학의 일부에서는 이 구절을 보다 급진적으로 해석하여, 장애 자체를 하나님이 선택한 정체성으로 간주하고, 장애를 통한 소명 및 신적 메시지의 매개로 보는 입장도 제시된다. 이러한 해석은 장애인의 몸이 신성한 메시지를 담지할 수 있는 매체로 기능함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장애를 신의 도구로 환원하는 위험성도 내포한다(Brock, 2021).

이러한 신체 규범은 물리적 공간 설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대 교회 예배 공간의 많은 구조는 장애인의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설계되었으며,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한 강단,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부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미제공 등의 요소는 비장애 중심의 신체 기준이 여전히 공간의 기준으로 작동함을 방증한다.

더불어, 장애인의 몸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잠재적 회복의 대상’으로 간주되며, 이는 기적이나 치유의 대상으로만 이해되는 구속적 시간 프레임 속에 장애인을 고정시킨다. Fiona Kumari Campbell(2009)은 이를 “장애인의 몸은 일시적이며 곧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 신념”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인식이 장애인의 현재적 존재성을 무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비판하였다(Campbell, 2009, p. 5).

또한,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장애를 죄의 결과로 보지 않고, 신성한 가능성의 일부로 해석하였다. 이는 장애를 새로운 신학적 가능성으로 포섭하고자 하는 해석의 기반이 되며, 장애인의 종교적 주체성을 부정하는 기존 패러다임을 전복하는 실천적 토대를 제공한다.

결국, 신체적 기준은 단순한 윤리적 요구가 아닌, 종교적 공간과 실천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제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장애 신학은 이러한 신체 규범성을 해체하고, 다양한 신체성을 수용하는 종교적 공간과 실천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지 공간의 물리적 개조를 넘어, 신성함의 정의 자체를 재구성하는 급진적 신학적 전환을 요구하는 일이다.

2. 신성한 시간과 장애인의 위치

연구 결과, 기독교 신학에서 신성한 시간 개념이 종말론적 완성과 연결되면서 장애인을 불완전한 존재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음이 확인되었다. 이사야 35장 5~6절에서는 종말의 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절름발이가 뛰게 될 것을 예언하는데, 이는 장애를 극복해야 할 상태로 간주하는 종말론적 해석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 왔다. 이러한 해석은 장애인을 현재의 상태에서 완전해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도록 만들었으며, 장애인의 신앙적 경험을 주변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장애를 부모의 죄 때문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요소로 해석한 것은 기존의 종말론적 치유 담론과 다른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이는 장애를 신성한 질서 내에서 의미 있는 요소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열어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 7~10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신앙적 강점으로 해석한 것은 장애를 종말론적 치유의 대상이 아닌 신앙적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바울의 논리는 기존의 신성한 시간 개념이 장애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신앙의 본질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장애 신학적 관점에서 신성한 시간 개념을 확장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3. 장애 신학적 해석의 재구성

연구 결과, 기존의 신성한 공간과 시간이 특정한 신체적 기준을 전제로 작동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신학적 관점에서 이를 재구성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첫째, 신성한 공간 개념의 확장이다. 장애 신학은 신성한 공간을 단순히 신체적 완전성을 유지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몸을 포용하는 공간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요한복음 9장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는 바디메오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공동체 앞에 드러내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이는 장애인의 신앙적 주체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신성한 공간이 특정한 신체적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신성한 시간 개념의 재구성이다. 장애 신학은 신성한 시간이 특정한 신체적 변화를 전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의 몸 그대로 신앙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시간 개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는 장애를 극복해야 할 상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인정한 점은 신성한 시간이 특정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도 신앙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일 뿐, 여전히 신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두는 존재로 인정한 점은 신앙적 의미에서만 가능할 뿐이며, 장애학 관점에서는 비판의 여지가 남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조한진, 2011).

셋째, 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기존의 신학적 해석은 신체적 완전성을 신성함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 그러나 장애 신학은 이를 탈 구축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신명기 27장 18절에서 장애인을 속이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규정은 장애인을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성서적 원칙을 강조한다. 이는 신성한 질서가 특정한 신체적 기준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몸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신학적 의미가 장애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현대 장애학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해석이 장애인을 지극히 대상화하는 영역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러한 돌봄의 형식은 장애인을 ‘불쌍한 사람’,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경향을 강화하며,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장애인을 공회와 자비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장애 신학이 신성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어떻게 포함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신학적 기초를 제공하며 그 개념을 확장하였다. 향후 신학적 논의에서 장애인의 경험이 중심이 되는 해석은 남아 있으며 신성한 공간과 시간 개념은 특정한 신체적 기준을 전제로 작동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몸과 경험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독교 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작동할 수 있다.

V. 논의

본 연구는 기독교 신학에서 신성한 공간과 시간이 특정한 신체적 기준을 전제로 형성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장애인이 배제되는 구조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장애 신학적 접근을 통해 신성한 질서가 확장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함을 밝혔다. 앞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신학과 장애 신학간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신성한 공간과 시간 개념의 재구성이 신학적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장애인의 몸과 신성한 공간에서의 배제에 관한 논의

엘리아데가 언급하고 있는 신성한 공간은 특정한 신체적 조건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왔다. 성경에서 레위기 21장 16~24절은 하나님께 제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을 언급하며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를 제사장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공간 속 배제는 신체적 완전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형성되어 왔음을 보여준다(최대열, 2015). Yong(2011)은 신성한 공간이 특정한 신체적 기준과 결합하면서 장애인의 종교적 역할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반해 출애굽기 4장 101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언어적 장애를 인정하고 그를 지도자로 세운 장면은 신성한 공간이 신체적 기준을 넘어서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iesland(1994)는 『The Disabled God: Living into the diversity of Christ's body』에서 신성한 공간이 특정한 신체적 기준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몸으로 포용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바 있다. 즉, 장애인의 신앙적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는 신성한 공간을 단순히 '정결하고 완전한 몸'만이 접근이 가능한 장소로 보아온 전통을 비판하며, 다양한 신체성이 공존할 수 있는 포용적 예배 공간으로의 전환을 요청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신앙 주체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예배와 공동체 중심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예배 공간 설계, 제의적 실천, 리더십 구조 전반에 대한 재구성이 신학적·실천적 과제로 제시되어야 한다.

2. 신성한 시간과 장애인의 위치에 관한 논의

기독교 신학 전통에서 '신성한 시간(sacred time)'은 종말론적 완성과 구원의 실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다. 특히 종말론적 시간 개념은 종종 신체적 치유와 회복의 비전을 통

해 구현되었으며, 이는 장애를 일시적이고 극복되어야 할 결핍 상태로 간주하는 신학적 경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김홍덕(2010)은 이사야 35장 5~6절에서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절름발이가 뛰게 될 것”이라는 종말론적 예언이 신체적 완전성과 거룩함을 연결짓는 상징 구조로 작동해 왔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구절은 현대 교회 내 ‘치유 사역’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며, 장애인을 ‘병에서 해방되어야 할 대상’으로 환원시키는 신앙 실천을 정당화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신학적 시간 개념은 장애인의 현재적 삶과 존재를 축소시키는 위험을 내포한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종말적 ‘치유의 기적’을 기다리는 대상으로만 간주되거나, 신앙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믿음의 시험대’로 자리매김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식은 장애인을 고통과 시험의 상징으로 고정시키며, 그들의 현재적 주체성과 신앙적 동역자로서의 지위를 약화시킨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 7-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육체의 가시”는 이러한 관점을 전복하는 중요한 전례를 제공한다. 바울은 신체적 고통을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세 번이나 드렸으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응답하며, 약함을 통해 능력이 드러난다고 선언한다. 이 구절은 신성한 시간의 의미를 신체적 완전성의 회복이 아니라, 현재의 몸 그대로 신앙적 의미를 지니는 존재로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확장한다. 학자들 간에는 이 구절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이와 유사하게, 마가복음 10장 46~52절의 바디메오 서사는 예수의 치유가 단지 기복회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부른 자’이자 공동체 안에서 이름을 가진 주체로 회복되는 과정을 강조한다. 바디메오의 이름이 성서 안에서 명확히 언급되고, 그가 직접 자신의 의지를 표현했다는 점은 예수가 단순히 시각을 되돌려준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그의 주체성과 위치를 회복시켰음을 상징한다.

결국, 엘리아데(Eliade, 1959)가 제시한 신성한 시간 개념이 특정한 신체적 변화나 정화의 상태에 도달해야만 진정한 종교적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면, 장애 신학은 이에 대해 중요한 재해석을 요청한다. 신성한 시간은 신체적 변화의 전제가 아니라, 다양한 몸과 경험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수용되는 공동체적 시간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해석은 종말론적 치유가 단순한 신체의 정상화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적 회복과 존재론적 수용을 의미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3. 장애 신학적 해석의 재구성에 관한 논의

기존 기독교 신학에서 ‘신성한 질서’는 종종 특정한 신체적 조건과 연결되었고, 이는 장

애인의 존재를 주변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 ‘정상적인 신체’가 거룩함과 연결되고, 신앙의 완성은 신체적 회복이나 결핍의 치유를 통해 도달하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장애인의 현재적 몸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했다. 신성한 공간 역시 정해진 신체 기능을 전제한 장소로 구조화되었으며, 신성한 시간 또한 종말론적 회복을 중심으로 해석되면서 장애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위치시켰다.

이러한 배제 구조를 비판하며 장애 신학은 새로운 신학적 인식의 틀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장애 신학은 ‘신성한 질서’를 단일한 신체 기준에 따라 구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몸이 공존하고 상호적으로 작용하는 감각적 실천의 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한다. 예 배당의 물리적 구조, 설교와 예전의 언어, 공동체 구성의 전제가 되는 신체성에 대한 암묵적 규범들 모두가 장애인의 몸을 배제하거나 종속시키는 방식으로 형성되어 왔음을 반성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대열(2006)은 “장애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되었으며, 신학은 이에 대해 해석하고 실천을 제시해야 한다”(최대열, 2006, pp. 152-153)라고 지적하며, 장애가 단지 일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신학적 주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요한복음 9장의 바디메오 이야기 역시 ‘기적의 치유’로 환원되기보다는, 공동체로의 주체적 복귀라는 측면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예수는 단지 바디메오의 시력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그를 공동체 안에서 ‘보이는 존재’로 회복시켰으며, 이는 장애인의 존재가 특정한 신체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공동체의 중심에 서야 함을 드러낸다. 기존 신학에서 신성한 질서가 특정한 신체적 기준과 결합되어 장애인을 주변화해 온 것에 대해, 최대열(2006)은 요한복음 9장의 해석을 통해 “예수는 장애를 죄와 연관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일과 관련지으며, 그 존재 자체를 통해 신성이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주장한다(최대열, 2006, p. 165). 이는 장애인을 단순한 치유의 대상으로 환원하지 않고, 현재의 몸 그대로 신학적 의미를 지닌 존재로 재해석할 수 있는 신학적 전환점을 제공한다.

결국 장애 신학적 해석에서는 신성한 질서를 특정한 신체 상태에 고정하지 않고, 그 자체로 신앙적 의미를 지닌 몸과 감각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단지 장애인을 포함하는 수준을 넘어, 장애를 통해 신학 자체의 구조를 재구성하는 비판적 실천이자 해석학적 전환이다. 신성한 공간은 비장애 중심의 공간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몸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적 공간이어야 하며, 신성한 시간 역시 ‘회복’이나 ‘치유’가 아닌, 지금 여기의 몸 그대로 존엄한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결과적으로, 신학이 장애인의 존재를 단지 수용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와 신학 실천을 재편할 수 있는 주체로 바라보는 시선을 요청하며, 기존 신학의 보편성과 정상성 개념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VI. 제 언

본 연구는 기독교 신학에서 엘리아데의 신성한 공간과 시간이 장애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장애 신학적 관점에서 재구성할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엘리아데의 신성-속성 개념을 장애 신학과 연결하는 최초의 시도 중 하나로, 신학적 공간과 시간이 특정한 신체적 기준을 전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기존의 장애 신학이 신학적 개념을 비판하는데 그쳤다면, 본 연구는 신성한 공간과 시간 개념 자체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새로운 신학적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장애 신학이 치유와 구원 담론 속에서 장애인의 위치를 규정했던 방식을 탈 구축(deconstruction)하는 데 기여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종종 장애를 치유의 대상으로 삼거나, 장애를 신학적 은유(metaphor)로만 다루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본 연구는 신성한 질서 속에서 장애가 배제된 것이 단순한 사회적 편견이 아니라, 신학적 개념이 형성되는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힌다. 이를 통해 장애 신학의 논의를 보다 근본적인 개념 비판의 차원으로 확장하였으며, 신성한 공간과 시간이 장애인의 경험을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신학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비판적 장애학과의 접점을 강화함으로써 학제 간(interdisciplinary) 연구의 가능성을 열었다. 즉, 본 연구는 신학적 개념을 단순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신성한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실제 신앙 공동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장애 신학의 실천적 적용 가능성을 더욱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독교 신학에서 장애인의 위치를 분석하고 신성한 질서를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신학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안하는 데 기여하였다. 기존 연구가 신성한 공간과 시간이 신체적 완전성과 연결된 방식으로 장애인을 배제해 왔음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면, 본 연구는 장애 신학적 접근을 통해 신성한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확장하고, 장애인의 신앙적 주체성을 재조명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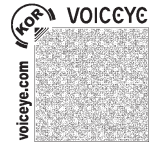
그러나 연구의 한계도 존재한다. 첫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성경 전체가 아니라 특정 본문(출애굽기 4장 10~12절, 레위기 21장 16~24절, 이사야 35장 5~6절, 요한복음 9장 1~3절, 고린도후서 12장 7~10절)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성경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는 특정 본문에 대한 심층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지만, 성경 내 다른 본문에서 장애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총체적 분석이 부족한 한계를 가진다. 따라

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성경 본문을 포함한 확장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에, 실증적인 데이터나 장애인의 실제 신앙적 경험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포함한 신앙 공동체 내에서 신성한 공간과 시간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이론적 논의가 신앙 공동체의 실천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의 초점이 서구 신학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장애 신학에 맞추어져 있어, 다양한 문화권에서 장애 신학이 어떻게 수용되고 변형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비서구권 기독교 전통에서 장애와 신성한 질서가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 신학이 보편적인 신학적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 대한 보다 확장된 텍스트 분석과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장애 신학의 실천적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 신학이 단순한 이론적 논의를 넘어, 기독교 공동체에서 장애인을 온전한 신앙적 주체로 포용하는 실제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병욱. (2014). 질적 연구유형별 정당화 논거 탐색: 내러티브 연구법과 담론분석법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4(1), 55-76.
- 김은아, 최송식 (2021). 언론에 나타난 정신장애인 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53, 33-61.
- 김홍덕. (2010). 장애신학: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대장간.
- 신호재. (2019). 종교현상학의 방법적 기초로서의 현상학적 환원 - M. 엘리아데의 『성과 속』에서 ‘속(俗)’의 이중적 의미를 중심으로-. *철학사상*, 73, 69-104.
- 신혜진. (2000). 한국 기독교의 종교성 비판: ‘신성’과 ‘거룩’의 개념 비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서희, 신호영. (2025). M.엘리아데의 『성과 속』을 통해 본 하회별신굿 탈놀이의 제의성. *대한무용학회논문집*, 83(1), 107-123.
- 이재서. (2013). *성경과 장애인*. 서울: 도서출판 세계밀알.
- 임형권. (2018). 성스러운 역사와 구속사: 엘리아데의 유대-기독교 서사 해석. *문학과 종교*, 23(2), 73-92.
- 정아영. (2023). 장애신학의 시작과 발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조한진. (2011). 장애학에 대한 재고찰.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4), 1-25.
- 채은하. (2020). 부적절한 장애인 호칭들의 문제와 대안-공인 번역 성경들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52(2), 37-59.
- 최대열. (2006). 예수의 장애 해방 선언: 요한복음 9장을 토대로 한 장애(인) 신학의 시도. *한국조직신학회*, 17, 149-174.
- 최대열. (2011). 장애인의 제사장직 제외 규정에 대한 재해석-레위기 21장 13-24절에 대한 장애인 식학적 변증. *한국조직신학논총*, 30, 333-362.
- 최대열. (2015). *성서, 장애 그리고 신학*. 서울: 나눔사.
- Allen, D. (1978). *Structure and Creativity in Religion: Hermeneutics in Mircea Eliade's Phenomenology and New Directions*. Mouton Publishes.
- Brock, B. (2021). *Disability: Living into the diversity of Christ's body*. Baylor University Press.
- Creamer, D. B. (2009). *Disability and Christian theology: Embodied limits and constructive possibilities*. Oxford University Press.
- Eiesland, N. L. (1994). *The disabled God: Toward a liberatory theology of disability*. Abingdon Press.
- Eliade, M. (1959). *Methodological Remarks on the Study of Religious Symbolism*. The

- History of Religions: Essays in Methodology*. Eds. Mircea Eliade & Joseph M. Kitagaw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unkel, H. (1901). *Genesis*. Vandenhoeck & Ruprecht.
- Reynolds, T. E. (2008). *Vulnerable communion: A theology of disability and hospitality*. Brazos Press.
- Yong, A. (2011). *The Bible, Disability, and the Church: A New Vision of the People of God*. Wm. B. Eerdmans Publishing Co.

Abstract

Disability in the Bible and the Sacred Order of Exclusion

: A Study Based on Eliade's Concept of the
Sacred and the Profane

Chae Min*

This study examines the theological structure of sacredness in Christian thought through the lens of Mircea Eliade's concept of the sacred and the profane, with a specific focus on its implications for disability. Historically, Christian theology has framed the sacred based on normative physical and emotional conditions, often marginalizing or excluding disabled individuals from full participation in religious life. By employing a hermeneutic methodology, this paper integrates symbolic criticism and discourse analysis to explore the symbolic construction of bodily difference within biblical narratives. The analysis focuses on five key scriptural passages-Exodus 4:10~12, Leviticus 21:16~24, Isaiah 35:5~6, John 9:1~3, and 2 Corinthians 12:7~10-tracing how the sacred order has been theologically encoded to function in exclusionary ways toward disability. Drawing on Eliade's theory of spatial and temporal hierophany, the study critiques how sacred space and time have historically been defined through ableist norms. Building on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disability theology, particularly in its emphasis on embodied subjectivity and spiritual agency, the paper proposes an alternative theological framework in which sacredness is reimagined through the lived realities and sensory experiences of disabled persons. By destabilizing the symbolic hierarchies that render disability

*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Disability Studies, Daegu University



as incompatible with holiness, this research opens up possibilities for a more inclusive sacred order. Ultimately, the study contributes to interdisciplinary dialogue between theology and disability studies, offering a theological critique of exclusionary symbols while laying the groundwork for a more just and inclusive Christian ecclesiology.

Keywords : Mircea Eliade, Sacred and Profane, Disability Theology, Disability and Religion, Symbolic Exclusion, Sacred Space, Biblical Hermeneutics, Embodied Spirituality

논문 투고 : 2025.03.24.

논문 심사 : 2025.05.29.

게재 확정 : 2025.06.13.

장애의재해석 제6권 제1호

2025 Vol. 6, No. 1, 025 - 051

호주 라 트로브 교육모형을 활용한 지원의사결정 교육의 효과와 향후 과제

이동석*, 도여옥**, 김강원***

본 연구는 의사결정 지원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모형이 없는 상황에서 호주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개발된 라 트로브 교육모형을 소개하고 이를 직접 교육해 본 후 이 교육모형이 우리 현실에서 효과적인지, 또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6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교육을 하고 초점집단인터뷰, 서면 인터뷰, 성찰기록노트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식전환을 이룬 지원의사결정 교육, 효과적인 교육 방법, 실천 적용에의 한계, 성공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조건과 같은 4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결국 라 트로브 교육모형을 활용한 지원의사결정 교육은 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통해 후견인들은 피후견인을 독립적 의사결정 주체로 인식하는 전환을 경험했으며, 소규모 그룹 교육과 사례 활용이 참여도와 이해도를 높였다고 확인되었으며,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체계적인 지원 가능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기에는 부족함도 있었다.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의 욕구 파악 방법의 한계가 존재했고, 실습 중심 교육과 다양한 사례 학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 이외에도 지원자의 역량 강화, 피후견인에 대한 긍정적 시각, 그리고 사회적 지원 확대 등과 같은 조건이 성공적인 지원의사결정 실천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적인 피후견인들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와 관련인들의 역할이 필요하고, 후견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용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 한국형 지원의사결정 모델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지원의사결정, 호주 라 트로브 교육모형, 교육 효과, 성년후견제도, 권익옹호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대구재활센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lilydo0357@gmail.com

*** 법무법인 DLG 공익인권센터 부센터장

I. 서론

전 세계 인구 중 적어도 6억 5천만 명, 즉 세계 인구의 10%가 어떤 형태로든 장애를 갖고 있다(Disabled World, 2025). 특히 미국과 호주의 유병률 데이터에 따르면 인구 중 최소 5%가 지적장애 또는 후천성 뇌 손상(ABI)으로 인해 어떤 형태로든 인지장애를 갖고 있으므로(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3; US Census Bureau, 2014), 의사결정에 상당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적 기능의 손상이 있는 발달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0.5% 정도이고, 정신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0.2% 정도이다(보건복지부, 2025a). 또 치매 인구는 10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 중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5b).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인지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상당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인구는 2.7%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들, 또는 상당히 부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을 통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도 자체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 제도는 폐지되고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도 피성년후견인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대체의사결정이고, 권리의 보유 권한(Holder of rights)은 인정하되, 행위권(Agency of rights)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UN CRPD, 2014a). 금치산 제도에서는 재산권 자체를 박탈했기 때문에 행위권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성년후견제도에서는 재산권은 인정하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행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즉 피성년후견인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지만 본인이 자신의 통장을 갖고 은행에서 입금 및 출금을 직접 할 수 없고 반드시 후견인을 동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 정신장애, 또는 치매를 가진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규정하는 ‘법 앞의 평등’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제철웅, 2017; 김미옥·김고은, 2023).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장애인이 삶의 모든 측면에서 타인과 동등하게 법적 역량(legal capacity)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할 뿐만 아니라, 법적 역량을 행사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지원을 장애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개발할 책임이 서명국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UN CRPD, 2014a). 이 조항에 의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및 2023년에 각각 채택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대한민국 심의에 따른 최종 권고’를 통하여 현행 성년후견제도의 대체의사결정을 지원의사결정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UN CRPD, 2014b, 2023). 지원의사결정은 ‘장애인이 타인에게 권리를 이양

하지 않고 타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법적 역량을 완전히 향유하는 것'을 의미하고 (Inclusion EU, 2008),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된 사람이 가능한 한 언제든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을 말한다(Davidson et al., 2015).

하지만 지원의사결정이 강조하는 장애인의 자기옹호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일반적 동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실생활에서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와 실천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지원의사결정 제도를 다른 나라에 비해 빨리 도입했던 캐나다와 스웨덴에서도 제도 확립 이후 초기에 이를 적용한 연구들이 있으나 지원의사결정 제도의 운영 및 결과에 관한 증거를 확실하게 제공하지 못했다(Gordon, 2000; Gooding, 2012; Douglas & Bigby, 2020). 더구나 우리나라는 아직 지원의사결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또 지원의사결정을 위한 실천과 관련된 연구도 미미한 실정이다. UN 장애인 권리협약위원회 권고 이후 대체의사결정보다는 지원의사결정으로 변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수준이다(박인환, 2014; 제철웅, 2014; 박인환, 2015; 이동석, 2017; 김미옥·김고은·박지혜, 2021). 지원의사결정 실천과 관련해서는 지원의사결정과 유사한 실천을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관한 분석(김미옥·박지혜·정민아, 2020)과 좋은 실천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김미옥·김고은·정은혜, 2021; 김미옥·김고은, 2023; 이동석 외, 2023)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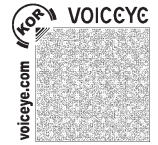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사소통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원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을 받은 지원자들이 실천을 해 보고 실천을 점검하여 더 나은 실천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지원의사결정의 실제적인 현장 실천에서 요구되는 교육 과정과 지원의사결정 도구의 개발은 미미한 상황이다. 제도에 관한 교육, 개념에 관한 교육은 진행되었지만 이것만으로 실천을 담보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실천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이를 위한 교육 내용이 개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외국의 자료를 참조하여 교육할 수밖에 없다. 교육 이후 우리 실정에 맞도록 다시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해외에서 개발된 교육 내용도 대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임의적으로 개발된 교육 내용이 많다. 일례로 호주에서도 2010년 이후 지원자들에게 의사결정 지원방법을 교육하고 교육 내용을 검증하는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다. Bigby et al.(2017)은 문헌검토 방법을 사용하여 호주에서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완료된 6개의 프로젝트를 검토했다. 분석 결과 각 프로젝트는 의사결정 지원 제공 모델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보여주었지만, 각 평가과정의 엄격성이 부족하여 교육 효과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 특히

개발된 교육 과정은 경험적 증거보다는 주로 전문가 의견과 실무진의 지혜에 기반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의사결정과 관련된 교육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호주의 라 트로브(La Trobe) 교육모형은 의사결정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에 참여하기 위한 증거 기반 가이드를 제공하는 최초의 교육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Douglas & Bigby, 2020). 이 교육모형은 개입방법의 절차를 다룬 Craig et al.(2007)이 설명한 4가지 단계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졌다. 즉 문헌 및 지원 경험을 검토하여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이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범 운영을 하고,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최종 교육 내용을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라 트로브 교육모형을 소개하고 이를 직접 교육해 본 후 이 교육모형이 우리 현실에서 효과적인지, 또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지원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원자를 교육하여 효과성을 판단할 수도 있지만 현재 입증된 실천 모형이 개발되지 못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원의사결정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공후견인에게 라 트로브 교육 내용을 교육한 후 효과성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공공후견제도는 성년후견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성년후견 중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고, 특정후견은 지원의사결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대한민국정부, 2019). 이 연구는 대체의사결정에서 지원의사결정으로의 실질적 전환을 위한 후견인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지원의사결정의 경험적 증거를 축적하며, 지원의사결정의 성공적인 현장 적용 및 실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호주 라 트로브 교육모형을 활용한 지원의사결정 교육은 우리나라에도 효과가 있는가? 또 우리나라에서 이 교육모형을 확산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이다.



II.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호주 라 트로브 교육모형¹⁾

라 트로브 지원의사결정 실천을 위한 교육모형은 호주 라 트로브 대학교의 ‘장애와 함께 살아가기’ 연구센터(Living with Disability Research Center)가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했다. 이 교육모형은 기본적 인권으로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의 지원자, 사례관리자, 코디네이터 등을 위해 개발되었다(Living with Disability Research Center, 2019).

1. 교육 개요

교육모형은 7개의 단계와 이를 설명하는 6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모듈에는 가상의 사례로 만든 영상 교육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활동지,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된 워크북을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교육모형은 의사결정 지원의 중심이 되는 핵심원칙, 그리고 의사결정 지원의 7가지 단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의사결정 지원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결정 지원의 원칙은 헌신, 조화, 성찰과 점검이고, 지원의 단계는 그 사람에 대해 알기, 결정을 식별하고 묘사하기, 결정을 위해 그 사람의 의지와 선호를 이해하기, 결정을 구체화하고 제약 조건을 고려하기,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고려하기, 결정과 관련 결정에 도달하기, 결정을 이행하고 필요하다면 옹호자를 찾기와 같이 7단계로 되어있다.

〈표 1〉 의사결정 지원의 원칙과 단계

의사결정 지원의 원칙	의사결정 지원의 단계
헌신(Commitment) 조화(Orchestration) 성찰과 점검(Reflection & Review)	Step 1. 그 사람에 대해 알기 Step 2. 결정을 식별하고 묘사하기 Step 3. 결정을 위해 그 사람의 의지와 선호를 이해하기 Step 4. 결정을 구체화 하고 제약 조건을 고려하기 Step 5.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고려하기 Step 6. 결정과 관련결정에 도달하기 Step 7. 결정을 이행하고 필요하다면 옹호자를 찾기

1) 라 트로브 교육모형은 홈페이지(<https://www.supportfordecisionmakingresource.com.au>)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2. 교육 내용²⁾

1) Module 1. 지원의사결정의 맥락

지원의사결정의 맥락에서는 자기결정권, 호주의 상황, 지원자에 대한 기대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중 자기결정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자기결정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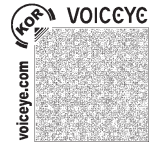
-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도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삶에 대한 선택과 통제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
- 의사결정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더 이상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 더 좋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 1) 지원 및 보호의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유지하기
 - 2) 비공식적인 지원을 인정하기
 - 3) 당사자의 '의지'와 '선호'를 의사결정의 중심에 두기. 제한은 최소화하고 자율성 강화하기
 - 4) 권리기반 지원의 원칙에 대해 더 나은 지침을 제공하고 역량강화, 지원자의 책임성 제고를 통해 장애인을 지원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 5) 의사결정 지원의 품질관리 및 이익제기를 위한 기준 제공하기
 - 6) 비공식적인 지원이 부족하거나 공식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2) Module 2. 라 트로브 지원의사결정 교육모형 소개

라 트로브 지원의사결정교육은 효과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토대가 되고, 지원자가 따를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단계, 원칙 및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리며, 결정과 의사결정의 이해, 라 트로브 지원의사결정 교육모형을 소개하고 있다.

또 교육 참여자를 위한 질문과 같은 활동도 소개하고 있다. 관련 질문에는 '의사결정을 할 때 누가 당신을 돕나요?, 중요한 결정(예: 이직)을 내릴 때 누구의 도움을 받나요?, 그 사람의 주요 특성은 무엇이고 그 사람을 찾는 이유는 뭔가요?, 결정을 내릴 때 그런 사람 들로부터 어떤 종류의 지원을 기대하나요?'와 같은 것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 연습을 통해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을 실천해 본다.

2) 모든 내용을 소개할 수 없어 주요 내용만 소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2024년에 펴낸 보고서(이동석 외, 2024)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3〉 라 트로브 지원의사결정 교육모형

- 교육모형 개발이유
 - ✓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 중요
 - ✓ 의사결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자신의 선호와 가치를 우선시 할 수 있음
 - ✓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도 의사결정을 통해 다른 사람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 자아정체감 향상, 삶의 질 향상, 심리적 웰빙
- 교육모형은 어떻게 개발되었나?
 - ✓ 증거기반: 최상의 증거를 찾아 개발되었음
 - ✓ 광범위한 문헌연구, 인터뷰, 관찰 및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개발되었음
 - ✓ 모형의 특징: 증거기반, 진정성, 실용성
- 교육모형의 적용: 역동적
 - ✓ 교육모형의 사용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본인이 맡은 지원 역할의 유형에 따라 달라짐
 - ✓ 교육모형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으며, 각 단계 사이를 앞뒤로 이동하며 적용할 수 있음. 예컨대, 의사결정 지원 단계에서 3단계(의자와 선호를 이해하기)에 도달했을 때, 당사자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다시 1단계(그 사람에 대해 알기)로 돌아가 필요한 정보를 보완한 뒤 다시 3단계로 돌아와 계속 진행할 수 있음
 - ✓ 상황에 따라 어떤 전략을 더 자주 사용하거나, 특정 시점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3) Module 3. 지원의사결정의 단계들(Steps)

모듈 3에서는 지원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각 단계들은 당사자와 지원자 모두에게 포함(적용) 되는 것이다. 지원을 제공할 때 당사자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고, 결정은 실행에 옮겨지기 전까지는 진정한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단계에서 의사결정 지원자의 역할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자질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1단계(개인에 대해 알기)부터 7단계(결정을 이행하고 필요하다면 옹호자를 찾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관련된 활동도 실습을 한다. 1단계는 ‘개인에 대해 알기’ 단계로, 개인이 스스로의 자기정체성(self-identity) 또는 자아(self-concept)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등 개인의 모든 측면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조쉬의 뉴캐슬 여행’이라는 영상을 본 후 토론하는 활동을 소개하고 있는데, 조쉬가 여행에 들떠 있었지만 자동차로 출발하기 직전에 마음을 바꿔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한다. 그때 지원자는 조쉬의 결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서 집으로 가는 대신에 조쉬의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조쉬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 조쉬는 열차 여행을 꿈꿨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조쉬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고, 조쉬와 다시 여행에 관해 논의하게 된다. 이 영상을 통해 조쉬의 지원자는 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2단계는 결정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단계이다. 결정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것은 핵심 문제

에 주의를 집중하고, 절차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안내하고, 긴장관계를 파악하고, 이 결정이 그 사람의 다른 삶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 결정은 범위, 개입되는 사람, 자원과 제한의 영향, 기간, 결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되어야 한다. 즉 결정이 그 사람의 삶과 그로부터 이어질 수 있는 다른 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결정의 기준을 정하거나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결정에 관련된 사람, 결정을 제약하거나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시간, 한 가지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단계는 결정을 위해 그 사람의 의지와 선호를 이해하는 단계이다. 3단계에서는 당사자와 지원자가 결정에 대해 가능한 한 폭넓게 생각하고,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며, 다양한 옵션의 결과를 검토한다. 사람의 선호는 수시로 변하게 마련이다. 이에 따라 선호를 표현하는 방식과 선호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는 시간과 창의성, 끈기가 필요하다. 선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을 개발해야 하고, 한 가지 방법이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이 교육에서는 선호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 선호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대처하는 방법 등도 소개하고 있다. 물론 다양한 활동 사례를 통해 토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4단계는 결정을 구체화하고 제약 조건을 고려하는 단계이다. 결정을 제한하거나 사용가능한 옵션을 좁힐 수 있는 사항은 그 결정과 상황(맥락)에 따라 달라지지만, 제약 조건에는 시간, 자원,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지원자의 태도, 물리적 공간과 건축디자인, 정책과 절차, 부정적인 위험 요소 등이 있다.

5단계는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고려하는 단계이다.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지원자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의 선호를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는 당사자가 선호하는 결정이 당사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지원자는 결정을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더 공식적인 논의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당사자의 선호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결정권을 훼손하는 것일 수 있다. 갈등을 표면으로 드러내고 이름을 지어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다. 상급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조직에 확립된 절차를 이용하거나, 외부 자문을 구하거나, 후견인 선임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당사자가 원하는 결정이 본인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되거나 지원자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6단계는 결정과 관련 결정에 도달하는 단계이다. 관련결정을 식별하고 정의하여 주요결정에 도달하는 것이다. 결정의 작은 부분은 주요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주요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관련 결정을 최대한 많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이사를 가고 싶어 한다고 하고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결정으로 어떤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 어떤 유형의 집(원룸, 단독주택, 아파트 등)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 혼자 살고 싶어하는지?, 정원을 갖고 싶어 하는지?, 대중교통, 식당, 가게, 가족, 친구 등과 가까워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한지? 등이 있다.

7단계는 결정을 이행하고 필요하다면 옹호자를 찾는 단계이다. 결정을 했다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행이 중요하다. 즉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지원자가 실행을 지원할 수도 있고, 결정을 이행하는 단계가 지원자의 역할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결정 이행을 지원할 옹호자를 찾아 조율해야 한다. 옹호자에는 사례 관리자, 옹호 단체의 유급 옹호자, 서비스 제공자, 당사자의 지원 네트워크에 속한 다른 사람 등이 포함된다.

4) Module 4. 의사결정 지원의 원칙(Principles)

지원의 원칙은 헌신, 조화, 성찰 및 점검이다. 지원자는 당사자에게 헌신해야 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 의사결정은 당사자, 주 지원자, 옹호자 등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지원자는 지원을 이끌고 조율해야 한다. 주 지원자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당사자의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다른 지원자들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또 지원자는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 자신이 제공한 지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점검해야 한다. 지원자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선호에 따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대한 소개와 함께 활동 실습이 제공된다.

5) Module 5. 실천을 위한 전략

실천을 위한 전략은 의사결정 지원 과정의 모든 단계와 연관되어 있다. 실천을 위한 전략은 모든 단계에서 지원자가 어떠한 하능가를 강조하는 것으로, 의사소통에 주의를 기울이기, 결과 및 현실성에 대한 교육, 모든 옵션이 고려될 수 있도록 경청하고 참여하기, 기회를 만들어내기, 결정을 작게 쪼개기, 위험 감수를 허용하기가 포함된다. 이 모듈에서는 각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활동 실습을 통해 이를 이해하고 익히도록 하고 있다.

6) Module 6.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기(Bring it all together)

이 모듈에서는 시나리오를 통해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한데 모아 요약한다. 원칙과 전략은 모든 단계와 얽혀 있고, 의사 결정은 당사자와 당사자를 지원하는 사람들 간에 공유되어야 하고, 새롭고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이 모듈에서도 케이스 시나리오 등을 통해 실습과 토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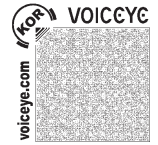
Ⅲ. 연구방법

이 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라 트로브 교육모형을 교육 받고 실제 현장에서 피후견인에게 의사결정 지원 실천을 한 후, 이 교육모형이 우리 현실에서 효과적인지 또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정신장애인의 후견인으로서 활동하는 공공후견인이다. 참여자 표집 방법으로는 세평적 사례선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특정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 연구 주제에 적합한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Miller & Carpenter, 2009). 참여자 선정을 위해 장애인 단체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공공후견법인에 연구 목적과 선정 기준을 공문으로 설명하여 최종적으로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사업단을 통해 본 연구의 참여자를 6명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사업단 소속으로 다양한 연령과 전공을 가진 6명의 공공후견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20대에서 40대 사이며, 전공은 심리학, 사회복지학, 중독재활복지학, 정신건강복지학 등이고, 후견활동 경력은 1년에서 7년 사이로 조사되었다.



〈표 4〉 연구 참여자 일반적 사항

구분	성별	연령대	전공 및 전문영역	소속기관유형	후견활동경력
참여자 1	여	30대	사회복지학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사업단	2년
참여자 2	남	20대	심리학, 사회복지학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사업단	3년
참여자 3	여	20대	중독재활복지학, 사회복지학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사업단	2년
참여자 4	남	40대	정신건강복지학 석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사업단	7년
참여자 5	여	40대	사회복지학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사업단	1년
참여자 6	남	30대	사회복지학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사업단	1년

공공후견인들은 평균적으로 30명에서 40명의 피후견인을 담당하고 있으며, 피후견인 대부분은 중증 정신장애인이다. 대다수의 피후견인들은 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특정후견 또는 성년후견의 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다. 공공후견인의 주요 업무는 일상생활 지원 및 의사소통 지원, 의료적 결정 대행, 금전 관리, 법률적 지원 등을 포함한다. 특히 의료적 결정에 있어서는 피후견인의 동의를 대신하여 치료 여부를 결정하며, 금전 관리에서는 재산 관리와 경제적 지원 신청을 담당한다. 법률적으로는 피후견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 피후견인의 생활환경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교육 진행

연구 참여자 6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2024년 8월과 9월 중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회당 1시간 30분 정도 강사의 교육이 진행되었고, 질의 및 응답 시간이 30분 정도 추가되어 매 회당 2시간 정도로 진행되었다. 연구진이 라 트로브 교육 모형을 이해하고 개발하여 만든 교육 안을 기반으로 연구진 중 1명이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을 진행한 연구자는 최근 지원의사결정과 관련된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실천 현장에서는 진술 조력, 신뢰관계인 동석 등 의사결정 지원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첫 회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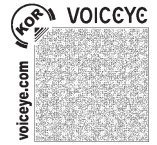
모듈 1과 2를 교육하였고, 두 번째 교육에서는 모듈 3과 4를, 세 번째 교육에서는 모듈 5와 6을 교육하였다. 교육 시 라트로브에서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뿐만 아니라 영상을 활용하였다.

〈표 5〉 교육회기와 내용

교육회기	모듈	내용
1회기	모듈 1	자기결정권, 지원의사결정의 의미 등
	모듈 2	모듈 내 원칙과 전략에 대한 설명(7개의 절차)
2회기	모듈 3	각 절차별 활동, 짧은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방법 고민
	모듈 4	지원의사결정의 원칙
3회기	모듈 5	실천 전략(방법론)
	모듈 6	총정리, 종합적 의사결정 지원방법

3.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집단초점면접, 서면 인터뷰, 성찰기록노트를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교육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실천이 이루어진 이후인 2024년 11월 중순과 하순에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진행된 교육에 대한 평가, 교육 이후 의사결정 지원 경험, 교육 과정 개선 방안, 성공적인 지원의사결정을 위한 실천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인터뷰는 총 2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모든 연구 참여자가 일정 관계상 2회의 인터뷰에 모두 참여하지는 못하고, 1차 인터뷰에는 5명, 2차 인터뷰에는 2명의 후견인이 참여하였다. 각 인터뷰는 60분에서 90분 동안 진행되었다. 둘째, 1차 혹은 2차 FGI에 참여하지 못한 참여자 4명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보다 심층적인 의견을 수집하였다. 셋째, 성찰기록노트를 활용하였다. 연구진이 미리 작성한 양식을 연구 참여자에게 전달하였고, 교육 이후 연구 참여자들이 피성년후견인을 만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의사소통을 할 경우 성찰노트를 작성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4명의 후견인(참여자 1, 참여자 2, 참여자 3, 참여자 5)이 성찰기록노트를 작성하여 2024년 11월말에 제출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실제 후견 활동에서의 경험과 성찰을 파악하였다.



4. 자료 분석

FGI, 서면인터뷰, 성찰기록노트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에서 많이 활용하는 반복적 비교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반복적 비교분석법은 ‘개방 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 과정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비교적 사용하기 쉽고, 다양한 질적 자료들을 분석할 때 응용이 가능하여 질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방법으로 넓게 활용되고 있다(유기웅 외, 2021). 이러한 분석 방법을 통해 정신장애인을 지원하는 후견인의 교육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10개의 하위 주제와 4개의 주제로 분석하였다.

IV.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와의 초점집단인터뷰, 서면 인터뷰, 성찰기록노트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식전환을 이룬 지원의사결정 교육, 효과적인 교육 방법, 실천 적용에의 한계, 성공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조건과 같은 네 가지 주요 주제가 도출되었다. 결국 라 트로브 교육모형을 활용한 지원의사결정 교육은 내용과 방법 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바로 현장에 적용하여 실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고, 교육 이외에도 성공적인 지원의사결정 실천을 위해서는 지원자의 역량 강화, 피후견인에 대한 긍정적 시각, 그리고 사회적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분석 결과

하위주제	주제
피후견인을 독립적인 의사결정 주체로 인식 전환	인식전환을 이룬 지원의사결정 교육
지원의 핵심 도구 및 현장 적용 가능성 발견	
소그룹 교육 및 사례 활용한 소통의 유용성	효과적인 교육 방법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체계적인 적용 가능성 확인	
의사소통능력 부족한 피후견인의 욕구 파악 방법의 한계	실천 적용에의 한계
실습 중심 교육과 다양한 사례 학습 부족	
지원자의 역량 강화	성공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조건
피후견인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이해	
교육 강화와 한국형 교육 모델 개발	
지원의사결정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지원 확대	

1. 인식전환을 이룬 지원의사결정 교육

1) 피후견인을 독립적인 의사결정 주체로 인식 전환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을 통해 피후견인을 독립적인 의사결정 주체로 인식하는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의 기존 태도를 반성적으로 돌아보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은 피후견인과의 대화 방식 변화,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피후견인의 의지와 선호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로 이어져, 지원의사결정의 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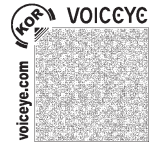
“(그동안) 서비스제공자의 입장에 더 가깝지 않았나, 내 가치와 판단으로 좀 더 설득한 부분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략) 피후견인분의 의사와 선호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봤던 것이 도움이 되었고, 의사소통방식이 소극적인 이유도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이후 잘못된 문장이라도 피후견인 분이 끝까지 문장을 완성할 때까지 기다리고, 문장 속에 숨겨진 의미나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참여자 1)

“교육 후 피후견인들 만나서 대화 시간을 조금 더 가지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의사결정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도 계셨고요... 교육 내용 고려하여 대화했을 때 조금 달랐습니다.”
(참여자 2)

“지원 시 피후견인의 의지와 선호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상기하고... 대체의사결정과 지원의사결정의 차이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었음.”
(참여자 3)

2) 지원의 핵심 도구 및 현장 적용 가능성 발견

후견인들은 의사결정 체크리스트, ACC 그림카드, 도식화된 자료 등 교육에서 제공된 다양한 도구들이 실제 후견 활동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도구들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며, 후견인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교육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고 평상시에 저희가 그냥 생각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부분을 좀 도식화해서 전반적으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매우 만족했습니다.” (참여자 2)

“의사결정 체크리스트를 통해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시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AAC 그림카드를 정신장애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참여자 6)

“가장 유익했던 것은 module 3과 5였음. 피후견인의 선호와 의지를 보다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받았음.” (참여자 3)

2. 효과적인 교육 방법

1) 소그룹 교육 및 사례 활용한 소통의 유용성

연구 참여자들은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된 교육이 즉각적인 의견 공유와 실시간 토론을 가능하게 하여 참여도와 이해도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영상을 통한 사례 제시가 실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절한 태도와 언어 선택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였다고 언급했다.

“소수 인원으로 진행되어 질문에 따라 각자의 의견을 즉시 공유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참여자 5)

“현장에서 필요한 주제에 대해 소규모로 진행되는 교육이다 보니, 참여도와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참여자 1)

“많은 인원수가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듣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들이나 궁금 점들을 바로 확인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이번 교육은 양방향으로 약간 저희가 의견을 내기도 하고 해외 사례를 가지고 와서 소통하면서 교육을 받았다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예시가 엄청 많았잖아요.” (참여자 2)

2)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체계적인 적용 가능성 확인

연구 참여자들은 의사결정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특히 체크리스트를 통해 의사결정의 범위, 영향, 결과 등을 설명하고 피후견인이 스스로 고려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피후견인의 욕구와 선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의사소통 방식을 개선할 수 있었다.

“의사결정 체크리스트에 맞춰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피후견인이 원하는 욕구 파악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여자 5)

“피후견인의 경우 현재 자유로운 생활을 위한 자립생활에 대해 너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 module 3, 5를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의사결정의 범위, 영향, 결과 등 결정의 특징을 설명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려야하는 상황에 대해 구체화하는 과정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음.” (참여자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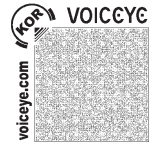
“피후견인의 입장과 피후견인의 특성에 맞는 결정을 하기 위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점에서 모형에 딱 맞는 소통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 (참여자 2)

3. 실천 적용에의 한계

1) 의사소통능력 부족한 피후견인의 욕구 파악 방법의 한계

연구 참여자들은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적인 피후견인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육에서 배운 AAC 도구 등을 활용하여야 하나 기존 국내에서 개발되어 보급되어 있는 AAC 도구는 피후견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특히 인지 기능이 저하된 피후견인의 경우, 그들의 욕구와 선호를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있어 기존 국내에서 개발되어 보급되어 있는 방법이나 도구들이 매우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대안적인 접근 방식과 도구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눈을 마주치거나 간단한 인사 외에 대화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에게 적용할 수 없는 점.” (참여자 6)



“결정을 내려야하는 상황에 대해 구체화하는 과정이 시작되자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언급되는 순간마다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화제를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정신요양시설 퇴소에 대한 결정이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모습을 보임., 면담 시간이 길어지자 면담 장소를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임.” (참여자 3)

“AAC를 활용하는 교육 영상이 있었으나 인지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피후견인들의 경우, 그림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용성이 높지 않을 것 같다... 다른 체계 및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음.” (참여자 3)

2) 실습 중심 교육과 다양한 사례 학습 부족

연구 참여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교육과 실습 시간의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의사소통 기술, 갈등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실천적 학습과 성공 사례 공유를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중심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추가되면 유용하겠습니다.” (참여자 5)

“당사자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 다양한 사례와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1)

“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실제적으로 의사결정 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사례에 대해 학습 및 사례 발표하는 시간이 있다면 보다 교육 및 실천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음.” (참여자 3)

4. 성공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조건

1) 지원자의 역량 강화

연구 참여자들은 지원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상담기술 향상 등 지원자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모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체득, 다양한 사례 경험 공유, 성공 사례 학습, 선배 실천가들의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실천 능력을 키우는 것

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한된 시간 내에 라포를 형성하고 피후견인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담 기술 향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 투자와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람의 실천능력과 상담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3)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원의사결정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노하우 공유가 필요함... 다양한 사례 실천 경험, 성공 사례, 선배 실천가들의 노하우.”
(참여자 1)

“면담 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원자의 모듈에 대한 이해와 체득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듯 함. ... 제한된 환경에서만 활동했던 피후견인분의 외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7가지 모듈의 필요한 부분을 적절히 적용해 볼 예정임.”
(참여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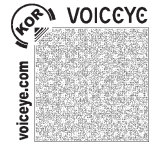
2) 피후견인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이해

연구 참여자들은 피후견인의 능력을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성공적인 지원의사결정 실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개별화 및 유연한 접근을 통해 균형 잡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분들의 능력을 조금 더 존중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게 성공적인 실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요.”
(참여자 2)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균형에 맞는 지원과 피후견인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5)

“대상자별로 개별화된 접근과 계획을 통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자 3)



3) 교육 강화와 한국형 교육 모델 개발

연구 참여자들은 지원의사결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수 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한 홍보, 한국 실정에 맞는 간소화된 모델 개발, 그리고 영상, 책자 등 실용적인 교육 자료 제작 등을 제안했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상자의 이해 수준을 고려한 교육 내용 개발, 그리고 평가 도구 개발 등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많은 시설,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교육이나 세미나 형식으로 시설 담당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홍보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참여자 6)

“대상자들의 이해 수준을 고려한 단순한 용어, 문장을 활용한 교육 내용, 의사결정 지원 전략을 담은 책자 제작되면 좋을 것.” (참여자 3)

“(업무 부담이 많은 한국 현실에서) 실천 현장에서 증점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나 단순화된 과정... 한국형으로 간소화된 모델이 개발되어 제도적으로 도입된다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한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담은 영상이 제작되어 교육 자료로 활용된다면...” (참여자 3)

4) 지원의사결정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지원 확대

연구 참여자들은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 다양한 분야 실무자들의 인식 제고, 정신요양시설 직원의 참여, 지지체계 및 자원연계 확대 등을 통해 지원의사결정 제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신장애인이거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지어진 편견이나 스티그마들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략) 법적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져서 피후견인에 대한 자료를 지원가가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자 4)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에게 지원의사결정 개념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3)

“지지체계 및 자원연계 확대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실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참여자 1)

V. 결론

본 연구는 의사결정 지원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모형이 없는 상황에서 호주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개발된 라 트로브 교육모형을 소개하고 이를 직접 교육해 본 후 이 교육모형이 우리 현실에서 효과적인지, 또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6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교육을 하고 초점집단인터뷰, 서면 인터뷰, 성찰기록노트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라 트로브 교육모형을 활용한 지원의사결정 교육은 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 교육을 통해 후견인들은 피후견인을 독립적 의사결정 주체로 인식하는 전환을 경험했으며, 의사결정 체크리스트, AAC 그림카드, 도식화된 자료 등이 실제 후견 활동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 또 소규모 그룹 교육과 사례 활용이 참여도와 이해도를 높였다고 확인되었으며,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체계적인 지원 가능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기에는 부족함도 있었다.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의 욕구 파악 방법의 한계가 존재했고, 실습 중심 교육과 다양한 사례 학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 이외에도 지원자의 역량 강화, 피후견인에 대한 긍정적 시각, 그리고 사회적 지원 확대 등과 같은 조건이 성공적인 지원의사결정 실천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의해 다음과 같은 함의가 도출되었다. 첫째, 지원의사결정 교육은 후견인들에게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 체크리스트, AAC 그림카드, 도식화된 자료 등 실용적인 도구가 제공되어 실제 후견 활동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해졌다. 교육을 통해 후견인들은 피후견인을 독립적인 의사결정 주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전환을 경험함으로써, 피후견인과의 소통 방식이 개선되어, 피후견인의 의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또한 소규모 그룹 교육과 영상을 통한 사례 제시가 교육의 효과성을 높였다. 이러한 효과들은 후견인들이 피후견인의 권리와 자기결정을 더욱 존중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교육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적인 피후견인을 지원하는 데 있어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하며, 이는 추가적인 교육과 소통 방식 개선의 필

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교육 후 실천 과정에서 새로운 한계점들이 드러났다. 후견인들은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된 피후견인과 상호작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존 국내에서 개발되어 보급되어 있는 AAC 도구나 교육 방법이 이러한 피후견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인지 기능이 저하된 피후견인의 경우, 그들의 욕구와 선호를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 현재의 방법들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상담 시간과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피후견인과의 깊이 있는 이해와 라포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한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된 피후견인을 위한 맞춤형 도구 개발과 후견 지원 체계의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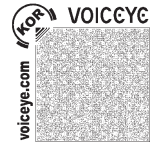
이러한 함의는 지원의사결정 체계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과 의사소통 방식의 다변화, 제도적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적인 피후견인들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와 관련인 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되어 보급되어 있는 AAC 도구나 교육 방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지 기능이 저하된 피후견인의 욕구와 선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방식을 다변화하고, 행동분석 전문가, 심리학자, 언어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비언어적 행동의 의미에 대한 최선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후견인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뿐만 아니라 가족, 시설 직원, 동료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지원 의사결정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여 피후견인을 진정한 의사결정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피후견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을 옹호인으로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가족 지원 그룹을 운영하여 이해당사자들이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후견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용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 한국형 지원의사결정 모델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할 필요가 있다. 후견인들이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실습 중심의 교육과 실제 사례 분석을 포함시켜야 하며, 소그룹 토론 방식의 교육을 통해 후견인들의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법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후견인 교육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피드백을 통해 교육 내용을 업데이트하며, 후견인들의 실제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교육 내용 구성 시 의사소통 기술 등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의사결정과 관련된 철학, 인간 존중 철학 등 지원자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은 후견 절차 등 관련 법 내용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라 트로브 모형은 지원의사결정의 이해, 필요성, 원칙 등을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원칙 하에서 지원을 할 때 어떻게 고민해야 하는지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도 교육 이후 피후견인을 독립적인 의사결정 주체로 인식하게 되는 등 인식의 변화이 컸고, 이에 따라 실천 시 자세가 달라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시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기술과 더불어 철학적인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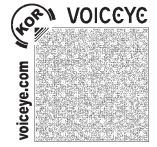
현재 공공후견제도는 정신장애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치매 영역에서도 수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호주의 라 트로브 교육 모형을 주 장애가 정신장애인인 사람들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에게 교육을 하여 그 효과성을 살펴본 것으로 모든 영역을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 영역 및 치매 영역에서도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향후 개발될 지원의사결정제도 실천 모형에 따라 지원의사결정 지원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미옥, 김고은. (2023). 발달장애인의 지원의사결정에 대한 좋은 실천은 가능한가?: 장애인복지 실천에의 함의. *한국장애인복지학*, 60, 173 ~ 207.
- 김미옥, 김고은, 박지혜. (2021). 영국 정신능력법의 지원의사결정관련 쟁점과 함의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3(2), 249-277.
- 김미옥, 김고은, 정은혜. (2021). 발달장애인의 지원의사결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종사자 인식에 대한 IPA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54, 123-154.
- 김미옥, 박지혜, 정민아. (2020). 장애인복지관에서의 발달장애인 지원의사결정(Supported Decision Making) 경험. *한국장애인복지학*, 50, 169-197.
- 대한민국정부. (2019).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대한민국정부.
- 박인환. (2014). UN장애인권리협약과 성년후견 패러다임의 전환 - 의사결정대행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 *가족법연구*, 28(3), 171-220.
- 박인환. (2015).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평가와 모색. *비교사법*, 27(2), 725-758.
- 보건복지부. (2025a). 2024년 등록장애인 263만 1천 명, 전체 인구 대비 5.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년 4월 17일 배포)*.
- 보건복지부. (2025b).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년 3월 12일 배포)*.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21).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 이동석. (2017). 캐나다 5개 주의 지원의사결정 제도 비교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36, 179-202.
- 이동석, 김용진, 장영재, 김강원, 김치훈, 유인선. (2023). *지원의사결정 제도 도입방안 연구*. 서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이동석, 김강원, 도여옥, 김치훈, 유인선 (2024). *지원의사결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후견 현장 실천 연구 - 어떻게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하는가?*. 서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제철웅. (2014).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가족법연구*, 28(2), 205-244.
- 제철웅. (2017). 성년후견과 지속적 대리 -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보호에서 인권존중으로. *법조*, 722, 76-122.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3). *Australia's welfare; 2013*. Canberra: AIHW.
- Bigby C., Douglas J., Carney T., & et al. (2017). Delivering decision making support to people with cognitive disability - what has been learned from pilot programs in Australia from 2010-2015. *Australia Journal of Social Issues*, 52, 222-240.

- Craig P., Dieppe P., Macintyre S., & et al. (2007). Developing and evaluating complex interventions: the new medical research council guidance. *BMJ*, *337*, a1655.
- Davidson, G., Kelly, B., Macdonald, G., Rizzo, M., Lombard, L., Abogunrin, O., Clift-Matthews, V., & Martin, A. (2015). Supported decision making: A review of the internation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38*, 61-67.
- Disabled World. (2025). Available from: [https://www.disabled-world.com/disability/statistics\(2025.3.20. 접근\)](https://www.disabled-world.com/disability/statistics(2025.3.20. 접근).
- Douglas, J. & Bigby, C. (2020). Development of an evidence-based practice framework to guide decision making support for people with cognitive impairment due to acquired brain injury or intellectual disability.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42*(3), 434-441.
- Gooding PM. (2013). Supported decision-making: a rights-based disability concept and its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law.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20*, 431-451.
- Gordon R. (2000). The emergence of assisted (supported) decision-making in the Canadian law of adult guardianship and substitute decision-ma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Psychiatry*, *23*, 61-77.
- Inclusion EU. (2008). *Key Elements of a System for Supported Decision-Making*. Position Paper.
- Living with Disability Research Center. (2019). *The LaTrobe Supported Decision-Making Practice Framework*. Living with Disability Research Center in La Trobe University.
- Miller, L. M., & Carpenter, C. L. (2009). Altruistic leadership strategies in coaching: A case study of Jim Tressel of the Ohio State University. *Strategies*, *22*(4), 9-12.
- UN CRPD. (2014a). *General Comment No. 1 - Article 12: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UN CRPD. (2014b).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UN CRPD. (2023).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US Census Bureau. (2014).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Washington: US Census Bureau.



<홈페이지>

라 트로브 지원의사결정 교육 모형 홈페이지.

<https://www.supportfordecisionmakingresource.com.au>(2024.3.15. 접근).

Abstract

The effectiveness and tasks of supported decision-making education using the Australian La Trobe frame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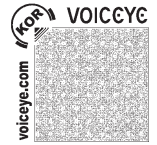
Dongsuk Lee*, Yeo-ok Do**, Kangwon Kim***

This study introduced the La Trobe framework developed systematically and scientifically in Australia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no educational model for implementing decision making support, and tried to examine whether this framework is effective in our reality and what measures can be improved to fit our situation after directly teaching it. To this end, six research participants were selected and educated, and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written interviews, and reflective notes. The analysis results revealed four themes: supported decision-making education that achieved a change in perception, effective education methods, limitations in practical application, and conditions for successful decision-making support. Ultimately, supported decision-making education using the La Trobe framework was found to be effective in terms of content and method. Through the education, guardians experienced a shift in recognizing wards as independent decision-maker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small group education and case use increased participation and understanding, and the possibility of systematic support using checklists was confirmed. However, there were also shortcomings in applying it directly in the field. There were limitations in the method of identifying the needs of wards who lacked communication skills, and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aegu University

** Mental Health Social Worker, Daegu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Center

*** Vice-President, Public Interest Human Rights Center of DLG Law Firm



it was found that practice-centered education and diverse case studies were insufficient. In addition to education, it was found that conditions such as strengthening the applicant's capacity, positive views on the ward, and expansion of social support are more necessary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supported decision-making. Accordingly, the roles of various experts and related personnel are necessary for decision-making support for wards with limited communication skills,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guardian education program in a practical direction and develop a Korean-style supported decision-making model and education program.

Keywords : Supported decision making, La Trobe framework, Educational effectiveness, Adult Guardianship, Advocacy

논문 투고 : 2025.03.25.	논문 심사 : 2025.05.26.	게재 확정 : 2025.06.13.
---------------------	---------------------	---------------------



장애의재해석 제6권 제1호
2025 Vol. 6, No. 1, 053 - 073

장애인의 시민권적 지위 변화에 관한 연구 :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민진홍*, 김연수**

장애인의 시민권적 지위는 장애에 대한 특정한 자격 또는 조건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관련 제도와 정책에 내포되어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및 주거정책은 사회적 권리로서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급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율적인 개인이 갖는 정치적, 시민적 권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장애인복지법과 주거정책을 살펴보고 장애인의 시민권적 지위 및 그 변화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장애인은 관련 명칭이나 법제화 과정에서 서비스 수급자로서의 지위가 구성되었다. 또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은 시설 중심 사회서비스에 분리되어 지역사회 접근 및 기회가 제한되어온 측면이 있다. 이후에 장애인 주거정책이 보호에서 자립으로의 방향의 전환을 이루었으나, 주거권 보장이 시민권의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주제어 : 장애인, 시민권, 주거권, 시설, 주거지원정책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졸업

I. 서론

지난 몇 년간 「장애인복지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시혜적 관점에서 권리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국회에 발의되어 왔다.¹⁾ 이들 법안의 공통된 특징은 인간존엄성 및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기반 정책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이 장애인을 돌봄 대상으로만 한정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장애인의 돌봄과 보호의 대상화 및 수급자로서의 사회적 지위는 한국의 경제, 정치구조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더욱 공고해져 왔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노동 생산성이 낮고, 다른 가족 구성원의 노동력을 돌봄에 분산시킨다는 인식에 따라 보호 중심의 사회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자립과 사회통합보다는 재활과 보호 및 사회복지시설 전달체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982년에 개정된 「생활보호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 대상자에 포함하여 시설에 입소하거나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장애가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공간에서 거주하는 것이 주요 사회서비스로 제공되면서, 장애인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는 장애에 대한 특정한 자격 또는 조건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관련 제도와 정책에 내포되어 있다. 최근에는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요 기조로서 거주지 중심의 지역사회 서비스 체계가 대두되면서, 자립이나 사회참여,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적인 개인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되고 있다. 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고, 일상생활에서의 결정권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지역사회 거주를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체계는 단순 재가서비스 확대가 아니라 이동권 확충과 고용, 주거, 노동 전반에 관한 사회적·물리적 인프라 구축이 수반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보건복지부, 2023).

이렇듯,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정책 및 관련 법률에서 장애인의 권리는 수급권이거나 자기결정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 권리는 제도나 법률을 통해 실현될 수 있으며, 정책에 명시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실효성이 보장된다. 특히 주거 정책 및 관련 법률은 주택, 보건, 의료, 사회복지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연결되어 있고, 지역사회

1)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안' 또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으로 2017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8건의 발의가 있었다.

자립생활 실현을 목표로 삼는다. 즉, 사회적 권리로서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급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율적인 개인이 갖는 정치적, 시민적 권리의 의미 모두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민권은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법으로 규정되고 사법 시스템을 통해 집행되는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Taylor-Gooby, 2008: 4). 시민권은 지역사회 구성원을 정의하고 사회적 권리, 개인의 자기결정권, 정치적 권리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삶과도 연결된다(Waldschmidt & Sépulchre, 2019: 422). 또한 시민권 개념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주거 접근성 및 관계, 삶에 대한 통제 및 환경 및 지역사회의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 양상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Sylvestre, 2017:212). 즉, 시민권은 장애인 주거 정책의 대상과 내용을 토대로 국가와 그 개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개념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시민권은 주로 이민법과 관련하여 국적이나 이주여성 및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고상두&하명신, 2010; 신지원, 2010; 이다혜, 2015), 장애인복지 영역에서는 특정 정책이나 법률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시민권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서정희, 2010; 강민형, 2016; 신유리 외 2017).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주거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권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적 맥락 및 정책의 실천 양상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주거정책의 전개 과정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가 시민권 차원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정책의 전환점들을 통해 그 변화를 규명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장애인 주거정책과 시민권

1. 사회정책과 시민권

마샬(Marshall)에 따르면 시민권은 시민적(civil), 정치적(political), 사회적(social)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Marshall&Bottomore, 1992:8). 시민적 요소는 개인의 자유에 관한 것으로, 언론, 사상, 신앙의 자유, 재산권, 계약의 자유 등의 권리가 포함된다. 또한 시민적 요소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권리를 포함하며, 이는 법원과 관련이 깊다. 정치적 요소는 정치적 권력을 행사할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정치적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에 대응하는 제

도는 의회와 지방 정부의 의회이다. 사회적 요소는 최소한의 경제적 복지와 안정을 누릴 권리부터 사회적 유산을 완전하게 공유할 권리, 그리고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문명화된 존재로서의 삶을 영위할 권리까지의 모든 범위를 의미한다. 이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는 교육 시스템과 사회 복지 서비스이다(Marshall&Bottomore, 1992:8).

이렇듯, 시민권은 국가와 시민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정 사회 또는 공동체에서의 권리를 말하는 장소적인 개념과 함께 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치체제와 국가를 필요로 한다. 국가는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사회운동은 집단의 열망을 표현하고 사회변화를 요구하며 시민권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Marie, 2018:539). 시민권은 그 공동체에 갖는 의무로서 인식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법령으로 근로의무나 병역, 납세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조건으로 시민으로서 수행해야 할 의무를 정의하기도 한다. 이때의 시민은 특정한 자격과 조건에 해당하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의무를 다했을 때 국가로부터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법과 제도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개인의 시민권적 의무와 권리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사회정책은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적합한 분석자료가 될 수 있다.

시민권 개념을 사회정책에 적용하는 것은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통해 국가는 정책 대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수급자의 의무와 권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되는지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을 갖는다. 서정희(2008)는 시민권 담론을 불평등을 완화하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모두에게나 주어지는 것으로 보는 ‘권리담론’과, 복지국가의 급여 구조 및 수급권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는 양방향적인 형태로 추구하는 ‘의무와 책임성 담론’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때, 권리담론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사회보장수급권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급여 대상 및 구성’의 실제적 권리와 ‘급여 제한과 권리구제’의 절차적 권리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서정희, 2010).

시민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측면에서 사회정책과 연결된다. 유럽 복지국가에서 시민권은 삶의 위기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보호를 제공받을 권리로, 이때 사회정책은 그를 실천하기 위한 ‘안전망(safety net)’의 역할을 한다(유해미, 2003). 때로는 사회적 시민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동일시되며, 시민권의 핵심인 ‘보편성’과 ‘무조건성’을 보장하기 위해 삶의 표준을 모든 구성원에게 보장하고, 어떠한 조건 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정의된다(서정희, 2010). 즉 시민권은 원론적으로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며, 사회정책은 모든 시민에 대해 완전한 시민권, 보편적인 삶의 영위를 보장할 목적으로 한다(유해미, 2003).

사회정책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것은 개인과 국가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권리의 의

무와 내용까지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사회적 시민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시민권은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혜택과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며,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는 것 또한 포함한다(Taylor-Gooby, 2008; 5)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시민권의 구성은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며, 사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시민권자의 자격(citizenship entitlement)’과 ‘지위 및 신분(status)’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김병인&조남경, 2020).

이렇듯 보편적인 사회적 시민권 개념은 복지국가의 사회권과 연결되어 권리 및 의무를 중심으로 ‘의무와 책임성 담론’적 관점을 답습해 왔으나, 장애인의 사회적 시민권은 권리담론 위주로 발전되어 왔다. Marshall은 시민권을 공동체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지위로써, 이를 가진 모든 사람은 지위에 수반된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평등하다고 보고 있다(Marshall&Bottomore, 1992:18). 그러나, 우리 사회의 시민권은 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앞서 살핀 의무와 책임 담론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즉, 서로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차등한 의무가 기대되며, 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동등한 시민권이 보장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현실에서 시민권은 주로 권리보다는 책임과 의무가 강조되어 생산성 있는 능동적인 시민(active citizen)을 우선으로 여겨왔다(Barten, 1993:244). 공적영역(public sphere)에서의 시민과 국가, 또는 시민과 시민 사이의 관계를 전제하는 시민권 개념은 곧 공적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시민만을 시민권의 대상으로 설정한다(강민형, 2016). Marshall의 시민권 모델은 이상적 시민이 비장애인, 중산층, 노동자, 백인 남성 등으로 규범화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Beckett, 2005).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시민권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시민권은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으로 요약된다. 장애인권리협약(이하 UNCRPD)의 제28조에서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를 인정하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구체화하였다. 소득보장, 공공주택, 퇴직연금 등의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이 여기에 포함된다(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06).

기존의 시민권 논의는 비장애인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강민형, 2016). 시민권의 사회 보장은 보통 노동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를 수반하지만, 일하는 것이 모든 장애인에게 쉽게 제공되는 선택지는 아닐 수 있다. 즉, 장애와 사회적 시민권이 교차할 때, 장애인과 국가 간의 상호 호혜의 원칙이 다르게 적용되는 불균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Waldschmidt & Sépulchre, 2019:432).

2. 사회적 시민권과 주거

사회적 시민권은 국가가 개인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나 재정적 지원의 내용을 포함한다(Taylor-Gooby, 2008: 5). 사회적 시민권에서 국가와 같은 집단적 요소와 개인 간의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며, 이는 주거와 관련하여 분명히 드러난다(Marshall&Bottomore, 1992:35). 국가는 개인의 주택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구성원의 최소한의 주거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적정 주거는 국가가 이행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 중 하나이며, 국가는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Marshall&Bottomore, 1992:35).

주거권은 사회권의 영역으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신동면, 2010). 국제사회에서 주거권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 25조에서 “모든 사람은 먹을 거리, 입을 옷, 주거,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점에서 최초로 인권에 포함되어 논의되었다(이은기, 2016). 우리 국민의 주거권은 <주거기본법> 제 2조에 따라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보장되어있다. 그 외에도 전통적으로 주거권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택조건을 향유 할 권리”, “주거에 관한 국민생활최저선의 확보”를 의미해왔다(이대열, 2012; 이은기, 1995; 하성규, 1996; 장은혜, 2014 재인용). 이은기(2016)는 서로 다른 학자들의 정의를 융합해 주거권의 개념을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①적정한 주거에 거주할 권리(right to adequate housing), ②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택조건을 향유할 권리 ③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적 입장에서 최소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 ④기본적 인권으로서 적절한 주거를 보장받을 권리 ⑤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거수준을 확보하고 이를 누릴 수 있는 권리. 주거권은 최근까지도 국내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채 개념적인 차원에서 사용되다가, 2015년 6월 주거기본법의 제정으로 귀결되며 그 보장이 명문화 되었다(장은혜, 2014; 박윤영, 2018).

주거정책은 주거권 보장 또는 주거복지의 영역에서 국가가 사회적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시계획, 공공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등으로 구체화된다. 주거복지는 안정적이고 적절한 주거 혹은 주택의 확보와 관련한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와의 관계, 고립되거나 배제되지 않은 채 필요한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것,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리는 것까지 포함한다(박윤영, 2018). 주거정책을 통해 시민권

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변화한다는 논의를 진행한 해외의 연구들이 존재한다. Fée(2016)는 영국에서 주거와 시민권의 관계를 분석하며, 시민권과 함께 당연한 권리이던 주거권이 점차 조건부 권리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논한다. 공공주택(social housing)을 통한 주거권은 열심히 일하는 시민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며, 사회 통제의 기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Rosa(2018)는 도시 재생 정책(도시계획) 속 사회적 시민권에 대해 분석하며, 주거 정책과 도시 재생이 시민권을 재조정(rearticulate)하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또한, 정부에 의한 적절한 주거의 제공이 (시민권이 개념적 핵심이 되는) 사회통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이 확인되기도 하였다(Quilgars & Pleace, 2016; Turok et al., 2022).

3. 장애인 주거정책과 시민권

장애인의 경우에는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권리가 형성되어 왔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UNCRPD에 대한 해석지침인 일반논평 제5호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 수준에서의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시하였다(OHCHR, 2017; para 97). 여기에는 관련 법률 개정,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 접근성 향상, 인식개선, 예산과 일정이 담긴 개별화된 서비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장애인의 주거정책은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시민권의 일부가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주거기본법 상 장애인의 주거권은 제1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항목을 통해 보장된다. 이때 그 구체적인 대상 및 시행은 별도의 법률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주거약자법)’을 따른다. 즉, 현행 주거기본법 상에서 장애인은 ‘주거약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는 주거기본법과 유사하게 주거 외의 삶의 영역-지역사회적 차원의 접근, 여타 사회서비스와의 연계 등-에 대한 언급은 부재하다(박윤영, 2018). 그 외에도 주거기본법의 주거복지전달체계에 관한 규정(제 21조)은 사회서비스전달체계와 연계한 내용이 부재하여 복지부 주관의 사회서비스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국토부 주관의 주거복지전달체계를 별개의 것으로 작동하게 한다(박윤영, 2018). 이와 같은 현실적인 제약들은 법적으로 장애인의 주거권을 주거 생활의 보장이라는 넓은 의미에서가 아닌 주거 공간의 제공이라는 좁은 의미로 제약한다.

장애인 주거정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시민권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진행되어 왔다. 장애인의 주거권을 시민권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주거가 자립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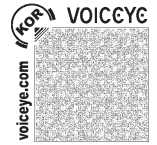
및 사회참여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Sperrin(2023)은 장애인의 주거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게 될 경우 자립생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주택에의 접근성 부족, 노숙 문제의 비가시화, 시설화 문제가 장애인의 주거권 실현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장애인의 선택권 및 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제언하였다(Sperrin, 2023). Sylvestre(2017)은 중증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주거에 관한 실천, 정책 및 연구에 시민권 개념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표 1>과 같이 주거정책에서의 시민권을 법적, 규범적, 생활의 세 분야로 나누어서 접근하였다.

<표 1> 주거 정책에서의 세 가지 시민권

분류	정책
법적 시민권 (legal)	중증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고 사회적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권리 옹호 정신 건강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제재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규범적 시민권 (normative)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재정적 지원 및 기회 확보
생활 시민권 (lived)	자원과 기회가 풍부한 다양한 지역에 주택이 위치하도록 장려 소외된 사람들의 권리 보호 개인의 참여 및 기회를 보장함

출처 : Sylvestre(2017) p221 표 재구성

법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국가는 사람들이 좋은 주거 환경과 적절한 지역사회 기반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들은 장애인 세입자들이 지역사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정책 측면에서는 시민의 필요와 선호를 고려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함께 주거비를 보조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절차 등이 필요하다. 규범적 시민권 개념은 주거지 또는 지역사회 기반 환경에서 다양한 참여 기회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 차원에서 규범적 시민권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들이 보다 많이 공적인 조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기구가 포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참여의 확장을 위한 기회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생활 시민권의 관점에서는 상호작용하는 이웃, 환경,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의 의견, 선택권, 통제권 등을 지원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세입자의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이 중요하다(Sylvestre, 2017).



Ⅲ. 장애인의 시민권적 지위 변화

시민권 개념을 활용하여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장애인 대상 주거정책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본 절에서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의 변화를 통해 장애인의 시민권과 그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장애인복지법은 <표 2>와 같이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크게 두 차례의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장애인의 주거권 및 지역사회 자립은 「생활보호법」, 국제사회의 담론 변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 탈시설 정책의 등장 등의 영향을 받아 변화해왔다. 사회복지정책의 핵심 구성요소는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원이다(구인회 외, 2010). <표 2>는 이 중 장애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상, 급여(내용), 전달체계의 핵심 변화를 중심으로 표를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정책의 핵심이 되는 장애인복지법의 법령 변화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수용 및 보호”, “생활시설 확대”, “자립생활, 탈시설 확산”의 3개의 단계로 나누어 장애인의 시민권적 지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장애인복지법 변천과 시민권

구분	81' 심신장애자복지법	89' 장애인복지법	현행 장애인복지법
대상	‘심신장애’를 지체불자유, 시각, 청각장애, 정신박약 등으로 한정하였음. 심신장애자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립과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장애를 행정체계에 등록하게 함. 정부 기관에서 장애를 판정하고 이를 지자체 행정체계에 등록시키면서 수급 자격이 발생함.	‘장애’에 대한 유형이 보다 다양해지고 구체화되었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수급자격을 판정함.
서비스의 내용	-제2장 복지조치 재활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 보장구의 교부등, 고용의 촉진, 시설의 우선이용, 편의시설, 부양수당 -제3장 심신장애자복지시설 시설의 정의, 설치, 수탁, 감독	구법에 비해 서비스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구체화되었으며, 시설 이외에 여러 재가서비스들이 생겨남.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 지급 등 구법에 비해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와 수당이 생김.

구분	81' 심신장애자복지법	89' 장애인복지법	현행 장애인복지법
전달체계	시군구에서는 재원 및 관리감독을 담당하며, 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법인, 재단 등이 주요 역할을 함.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재원으로 단체를 비롯한 민간 기관을 지원하고, 이와 더불어 공공 조직체(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들이 생겨남.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 및 수탁 사업으로 민간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1. 장애인에 대한 수용 및 보호

1970년대까지는 장애인을 일정한 장소나 시설에 모이게 하거나, 보호의 대상으로만 한정해 왔다.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폐지되기 전까지 해방 이후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제도로 평가받는다(최옥채, 정하나, 2012). 국가는 이 법에 “불구·폐질·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는 자”를 구호 대상에 포함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70년대 후반까지 개별적인 자선에 의존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김용득, 2004).

「생활보호법」으로 인해 국가는 장애인을 구호 대상으로서 관계 맺게 된다. 이때의 장애인의 시민권적 지위는 Marshall이 언급한 시민권의 3가지 요소 중 사회적 요소에 해당한다. 최소한의 복지와 안정을 누리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괄한 권리의 의미를 담고 있다. 빈곤 상태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며, “불구·폐질·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된다.

UN은 1971년에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과 1975년 <장애인 권리선언>을 발표하고,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면서 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유엔총회는 1976년 장애인 권리에 관한 선언의 이행에 관한 제31차 회의 결의안을 상정하여 1981년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였으며, 그 주제를 “완전한 참여”로 설정하였다²⁾. 한국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였고,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였으며, 이후 개정을 거듭하여 현행법이 완성되었다. 즉, 1970년대 이후부터 장애인은 구호대상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국가는 사회복지수급권을 위주로 시민권을 발전시켜 왔다. 장애인복지법의 모태가 된 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과 이후

2) “Resolutions and decision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during its 31st session”, UN문서 A/31/39, Suppl. no. 39 (1976), 104.

전면개정된 89년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2024년의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함께 권리 및 의무에 내용을 명시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현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시민권은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혜택과 서비스 및 경제적 지원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며(Taylor-Gooby, 2008; 5), 장애인복지법은 그 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전달체계를 명시하여 지원을 구체화시키며 발전되어 왔다. 장애에 대한 정의를 통해 그 대상을 판별하는 절차가 생겨났으며,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점차 다양해지고 구체화 되었다. 민관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재원 및 전달체계에 관한 절차가 확립되어 왔다.

사회서비스 수급권의 발달과 함께 권리 행사를 위한 수급자격 또한 구체화되었다.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개정하면서 장애인등록제(제19조)를 신설하였다. 장애등록제를 도입하여 수급자격 및 등급을 판별하고, 이를 행정체계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제도가 구체성을 갖고, 행정적으로 정밀해지면서 장애인의 요보호 대상자로서의 정체성은 강화되었다. 이전에도 장애인에 대한 기준(심신장애자 기준)이 있었으나, 이를 행정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은 보호의 대상, 사회서비스 수급자로서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졌다. 그 이후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관한 제도적 진화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에도 여러 차례 개정이 진행되었다. 국가의 책임과 재원 강화 및 서비스 다양화 등 구체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수급자로서의 지위와 요보호 대상자로서의 정체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국가 제도 및 법률이 정착되어 갈수록, 책임과 의무보다는 권리담론 위주로 시민권이 구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심신장애자복지법 제4조 1항(자립에의 노력), 장애인복지법 제5조(장애인 및 가족의 의무)를 통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사회참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2007년 4월 전부 개정을 거쳐 삭제되었다³⁾. 이러한 개정은 현실적으로 장애인에게 비합리적인 기준이 되기도 하는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의무를 약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무와 권리담론의 약화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개정문에 해당 개정이 ‘장애인의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함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은, 권리담론의 강화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권리담론의 관점은 의무를 수행하거나 조건을 전제하는 수급권이 아닌, 개인이 한 국가의 시민이기에 제공되는 권리의 ‘보편성’을 사회적 시민권의 본질로 간주하기 때문이다(서정희, 2008: 151).

따라서 장애인의 시민권은 권리담론위주의 서비스 수급자로서의 지위가 고착화된 것으로 보인다. 즉, 장애인은 경제활동에 대한 의무가 약화되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강화

3) 법률 제8367호

되면서 시민권이 생산성, 능동성, 책임과 의무보다 보호와 구제의 대상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2. 장애인 생활시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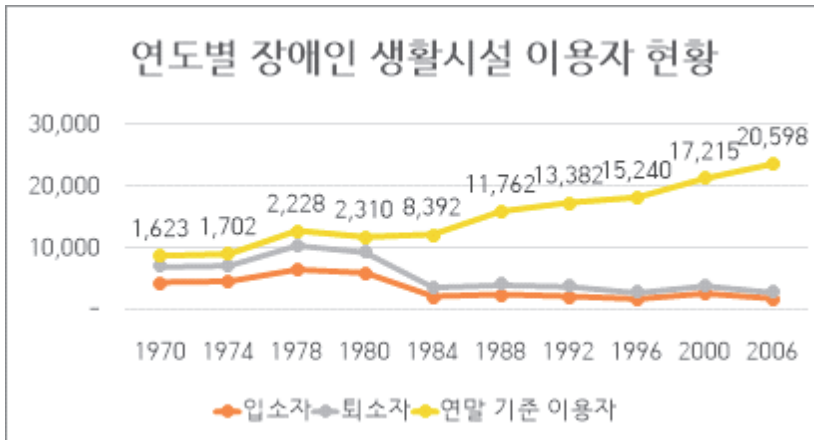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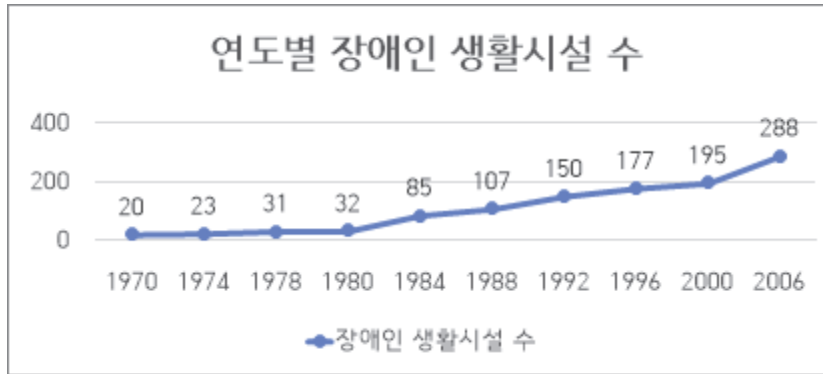
1980년대 이후 ‘심신장애자’라는 단어가 법적 용어로 등장하고, 이들을 위한 복지조치 및 자립과 경제활동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자립에 대한 의무는 그 가족에게까지 부여하였다. 개인에게 부여된 경제활동 및 자립에 대한 의무와 함께, 국가는 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했다. 동법 제3장(심신장애자복지시설) 및 제4장(비용)의 내용은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시설을 기금사업의 일종으로 민간에 이를 위탁하여 지원하도록 명시하였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발전하면서 장애인 생활시설은 급격히 확대되었다. 장애인생활시설은 ‘장애인이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을 의미한다(개정 전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⁴⁾. 이때, 장애인 생활시설의 기능은 가정이 없거나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설이용 장애인의 개인별 장애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재활(상담·치료·사회적응훈련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1; 박형진, 2012 재인용). 1978년도에 장애인 생활시설이 31개소, 이용자 2,228명이었으나, 이후 1988년 107개소, 11,762명까지 늘어났다(그림 1). 또한,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였고, 개인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⁵⁾.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더욱 용이해졌고, 이에 따라 장애인 생활시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는 2만 명 이상이 생활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2012년부터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자 장애인 생활시설을 주거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시설로 규정하였다(법률 2010517호).

5) 법률 제5358호

[그림 1] 연도별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



출처: 보건사회통계연보, 보건복지통계연보 연도별 자료 저자 재구성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

그러나 이러한 생활시설의 확대가 장애인의 사회적 시민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사회적 시민권은 국가가 개인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나 재정적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Taylor-Gooby, 2008: 5). 그러나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고, 오히려 장애인을 지역사회 다른 사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기도 하였다.

전통적인 돌봄모델은 장애의 식민화(colonisation of disability) 차원에서의 개념화일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서비스 제공자가 중심이 되는 이와 같은 전통적 돌봄의 확대는 장애에 있어 개인의 부적절성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취약한 이들을 지원하거나 통합시키지

못하는 사회의 구조적 관계는 은닉하기 때문이다. 식민지배의 과정은 서비스 수취인이 묘사되는 방식, 서비스 이용자의 목소리가 때로 무시되는 방식,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슈가 사회문제로 구성되는 방식 등을 포함한다(Shakespeare, 2021: p. 243). 영국의 경우 이와 같은 전통적 돌봄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지역사회 보호를 지향하는 운동으로 이어졌다(Shakespeare, 2021).

앞서 살핀 대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의 정의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는, 장애인이 사회에서 소위 '일반'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상담, 치료, 훈련받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동시에, 이는 상담·치료·훈련을 통해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시설 내에서 기약 없이 머물러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박형진, 2012). 즉, 장애인 생활시설의 목적과 기능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준비가 된 장애인들만이 지역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허락된다는 함의를 유추할 수 있다(박형진, 2012).

3. 자립생활, 지역사회 거주

자립과 사회참여 등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거주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며 2010년대부터 탈시설 정책이 표면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2011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이때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⁶⁾. 2013년 서울시는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목표로 수립하였고,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계획에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환경 조성을 포함시켰다(서울특별시, 2013;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이후 2021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여 국가 계획으로 선포하기까지 이르렀다(보건복지부, 2021). 20여 년간의 간격을 두고 그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 수용에서 사회로의 전환으로 정책의 방향 자체가 변화한 것이다. 특히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거주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전환, 축소하고 이를 지역사회 서비스전달체계로 흡수시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인프라구축을 위한 비용과, 주거 지원, 자립 및 소득 보장과 관련한 제도들이 논의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장애인의 주거정책의 주요 목표인 장애인의 온전한 자립, 지역사회에의 포함을 위해서는

6) 법률 제10517호

장애 당사자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태도가 또 하나의 핵심요인이 된다. 그러나 지역사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장애인에 도움이 필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의 권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배타적 수용의 입장을 보인다(김용진, 2008: 61-62; 박형진, 2012 재인용). 또한, 보호와 재활 이데올로기에서 자립 이데올로기로 변화하면서, 장애인을 부르는 용어가 병신, 불구자, 심신장애자에서 장애인, 장애우로 바뀌고,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을 부르는 용어가 수용보호시설에서 생활시설, 거주시설로 바뀌어왔다. 그러나 용어의 변화가 권리의 회복을 가져왔던 것은 아니었으며, 장애인과 관련된 용어는 그것이 무엇이든 장애인이 여타 사회 구성원과는 다른 사람임을 강조한다. 시설정책에서 탈시설화 정책들로의 변화 역시 장애인에 대한 억압의 제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장애인은 취약하고 무능하며 위험할 수 있다는 편견과 그로 인한 불편한 감정이 제거되지 않는 한,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법과 정책들, 프로그램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박형진, 2012: 68).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및 자립을 목표로 주거지원정책이 도입되어 왔으나, 해외 사례 및 실제 정책 실천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책 이면의 의미를 살펴보면 시민권의 확대에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Fée(2016)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 주거권의 확장이 반드시 모든 이의 시민권의 확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음을 - 오히려 시민권의 제약이 될 수 있음을 - 설명한다. 영국에서 사회통합 담론 끝에 생겨난 공공주택의 확대는, 그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규정하는 새로운 제약(restriction)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주거의 영역에서 시민권은 적극적이고, 지역사회에 잘 통합된(well-integrated) 구성원이어야 취득할 수(earned) 있게 된 셈이라는 것이다(Fée, 2016: 8). 공공주택을 그것을 가장 받아 마땅한(deserve it the most) 이들에게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의 긍정적 기여를 입증하도록 만들었고, 훈련, 교육, 고용 등의 상태에 있음이 그 기준이 되곤 하였다(Fée, 2016: 10). 즉, 주택이라는 서비스의 수급권을 정교화하여, 성실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보상으로 여겨져왔으며, 국가가 시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이다.

또한, 주거정책에서의 시민권은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특정한 행동을 요구받는 조건으로 왜곡되기도 하였다. 모든 사람이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완전히 누리야 한다는 개념인 '노멀라이제이션'은, 현실에서 잘못 해석되어 일반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만들었다. 장애인이 표면적으로나마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들에게 '허용'된 '바람직한' 감정만을 드러내야 하며, 이들은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응훈련을 요구받는다(박형진, 2012: 69). 즉, 현재의 노멀라이제이션은 장애인들만의 '보통사람되기' 훈련의 모양새를 띤다(박형진, 2012: 69).

〈표 3〉 장애인의 시민권적 지위 변화

구분	장애인에 대한 수용 및 보호	장애인 생활시설 확대	자립생활, 지역사회 거주
장애 시민권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에 대한 의무 약화 ■ 사회서비스 접근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분리 ■ 시설 이외 다른 사회서비스 접근권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권 보장 ■ 자립 이데올로기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대상 주거정책을 살펴보고 장애인의 시민권과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의 전환점들을 중심으로 제도나 법률을 통해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사회적 권리로서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급권과 함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미를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시민권은 이주여성, 이민 등과 같은 법적 논의에서 이루어지거나(고상두&하명신, 2010; 신지원, 2010; 이다혜, 2015) 특정 정책이나 법률을 위주로 그 적용가능성을 연구해 왔으나(서정희, 2010; 강민형, 2016; 신유리 외 2017),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법과 주거정책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권적 지위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먼저, 장애인은 관련 명칭이나 법제화 과정에서 서비스 수급자로서의 지위를 구성하였다.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국내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은 시혜적 대상으로서의 위치를 요구받았다. 이후 법적 수급자격이 구체화되고,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법에 명시되면서 장애인의 사회보장수급권은 일부 확장되었다. 이어 법 개정을 거듭하며 국가의 책임과 자원 강화 및 서비스 다양화 등 구체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제도 안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수급자로서의 지위와 요보호 대상자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해 온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은 시설 중심 사회서비스에 의해 분리되어 지역사회 접근 및 기회가 제한되었다. 장애인의 생활시설은 급격히 확대되었고, 대규모 시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설 중심 사회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제공자 중심의 돌봄 모델은 개인의 취약성 및 한계를 강조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당시의 장애인 생활시설의 목적과 기능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지역에서 분리시켜 사회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세 번째, 장애인 주거정책이 보호에서 자립으로의 방향의 전환을 이루었으나, 주거권 보장이 장애 시민권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장애인의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의 기능을 축소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자립은 기술과 능력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과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독립성과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이다(Shakespeare, 2021: 244). 장애인의 시설수용이 사회통합과 사회복귀, 자립생활과 인권적 가치에 위배된다는 지적들 때문에 최근 시설의 소규모화와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등으로 정책이 변화해 왔다. 그러나 주거정책은 국가가 사회적 시민권을 보장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오히려 시민권의 제약이 될 수 있으며, 국가가 시민을 통제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국가가 장애인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행동을 요구하는 조건으로서 기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권은 복지국가의 사회권과 연결되어 권리와 의무를 재현하고, 공동체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법제화 및 전달체계 발전과정에서 수급권적 지위가 공고히 여겨져 왔으며, 생산성이 있고 능동적인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보다는 지역사회로부터의 분리 또는 통합을 중심으로 국가와의 불균형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국가는 주거정책을 통해 시설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기도 하였다. 적정 주거는 국가가 이행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로서, 이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 접근성, 개별화된 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한다. 즉, 주거가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애인의 주거권이 핵심적인 시민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선택권 및 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민형 (2016). 장애 관점에서의 시민권 재개념화 연구 취약 성과 돌봄 개념을 중심으로, 장애의 재해석, 1-36.
- 구인회, 손병돈, 안상훈. (2010).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나눔.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김병인, 조남경. (2020). 복지국가의 활성화와 사회적 시민권의 재구성: 사회부조 개혁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6, 7-44.
- 김용득. (2004). 한국 장애인복지 변천과 대안 담론 모색. 한국장애인복지학, (1), 147-178.
- 고상두, 하명신. (2010). 다문화 시대 독일의 시민권 변화: 개정국적법 및 이민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0(1), 421-443.
- 박윤영. (2018). 주거기본법의 한계와 개정방안-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사회복지법제연구, 9(3), 65-82.
- 박형진. (2012). 배제와 포함의 복지정치: 장애인 생활시설과 탈시설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글로벌사회복지연구, 2(1), 53-78.
- 보건복지부. (2023).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 ~'27).
- 보건복지부. (2021.8.2.).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보도자료.
- 서울특별시. (2013).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3~2017).
- 서정희. (2008). 시민권 담론의 두 얼굴-Marshall의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재해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9, 147-165.
- 서정희. (2010).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1), 211-235.
- 신동면. (2010). 사회복지의 공공성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17(1), 241-265.
- 신유리, 김정석, 허준기. (2017). 장애인복지에서 사회적시민권의 이론적 적용 가능성 고찰: 자기 결정권, 사회적배제, 사회적포함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18(1), 43-75.
- 신지원. (2010). 다층적 통합거버넌스를 통한 이주여성의 시민권 구현.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 유해미. (2003). 아동 양육 정책의 재편과 시민권의 변화: 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 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3), 9-44.
- 이다혜. (2015). 시민권과 이주노동-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민권'의 모색.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기. (2016). 주거기본법의 제정과 주거권, 그 함의. 공법연구, 44(4), 267-299.
- 장은혜. (2014). 주거권의 법적 쟁점과 보장법제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8(1), 47-82.

- 최옥채, 정하나. (2012). 한국 사회복지제도 형성과 전개와 특성:[생활보호법] 중심으로:[생활보호법]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8(3), 403-429.
- Beckett, A. E. (2005). Reconsidering citizenship in the light of the concerns of the UK disability movement. *Citizenship studies*, 9(4), 405-421.
- Fée, D. (2016). Housing and citizenship in the UK: Towards a conditional right?. *Revue Française de Civilisation Britannique. French Journal of British Studies*, 21(XXI-1). 1-17.
- Marshall, T. H., & Bottomore, T. (1992).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In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London: Pluto Press, 1-52.
- Marie, S. (2018) Tensions and unity in the struggle for citizenship: Swedish disability rights activists claim 'Full Participation! Now!', *Disability & Society*, 33(4), 539-561
- OHCHR. (2017). *General comment No.5 on Article 19 - the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https://www.ohchr.org/en/documents/general-comments-and-recommendations/general-comment-no5-article-19-right-live>)
- Quilgars, D., & Pleace, N. (2016). Housing first and social integration: A realistic aim?. *Social Inclusion*, 4(4), 5-15.
- Rosa, V. (2018). Social citizenship and urban revitalization in Canada. *Canadian Journal of Urban Research*, 27(2), 25-36.
- Shakespeare, T. (2021). *장애학의 쟁점*(이지수 역). 서울: 학지사.
- Sperrin, Á. (2023). A Disability Rights Approach to a Constitutional Right to Housin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bility and Social Justice*, 3(1), 80-95.
- Sylvestre, J. (2017). *Housing, Citizenship, and Communities for People with Serious Mental Illness: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Perspectives* (1st e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Taylor-Gooby, P. (2008). *Reframing Social citizenship*. Oxford: Oxford.
- Turok, I., Scheba, A., & Visagie, J. (2022). Can social housing help to integrate divided cities?.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15(1), 93-116.
- Waldschmidt, A., & Sépulchre, M. (2019). Citizenship: reflections on a relevant but ambivalent concep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Disability & Society*, 34(3), 421-448.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06).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ttp://www.un.org/esa/socdev/enable/rights/convtexte.html>.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Citizenship Statu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Housing Policy

Jinhong Min*, Yeon Soo Kim**

The citizenship statu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embedded in relevant institutions and policies in a way that specifies particular qualifications or conditions related to disability. In particular,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housing policies encompass not only the right to receive welfare services as a form of social rights but also the meaning of political and civil rights that autonomous individuals hold as members of the community. This study examines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housing policies, which form the foundation of disability welfare policies, to analyze the citizenship statu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ts changes. Firs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been positioned as service recipients through the terminology and legislative processes related to disability. Additionally, as the social welfare system was established, persons with disabilities were separated into facility-based social services, limiting their access to and opportunities within the local community. Although disability housing policies have since shifted from a protection-oriented approach to one focused on independence, the guarantee of housing rights has not necessarily led to an expansion of citizenship.

Keywords : Persons with Disabilities, Citizenship, Housing rights, Institution, Housing polic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논문 투고 : 2025.04.09.	논문 심사 : 2025.05.28.	게재 확정 : 2025.06.16.
---------------------	---------------------	---------------------



장애의재해석 제6권 제1호
2025 Vol. 6, No. 1, 075 - 104

사회복지사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최형월**, 임해영***

본 연구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그들의 도전행동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분석하여 발달장애인과 사회복지사들을 지지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의 논의점을 찾는 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에 이 연구는 성인기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 경험이 3년 이상 된 사회복지사 10명을 선정하여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결핍된 욕구', '주변 환경의 영향력', '점차 증폭되는 부정적 심리 기제', '내적 갈등', '자동반사적 반응', '미숙한 대처에 대한 자책', '발달장애인을 더 깊게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 '주변 체계가 주는 갈등적 상황', '이직 의도의 이유', '지지와 동력의 원천', '발달장애인에 대한 넓어진 이해의 폭', '유능성과 성장으로써 함께 성장해 나가는 '나'', '기관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지지의 중요성', '제도적 차원의 지원 필요'라는 14개의 범주가 상정되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인기 발달장애인 및 이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천적·정책적 논의점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주제어 : 사회복지사, 성인기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 이 논문은 주저자인 최형월의 2025년 “성인기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경험 연구”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교신저자,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부교수, hae0629@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발달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일상생활, 여가활동 등 생활 전반 걸쳐, 누군가의 밀착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병화와 이미영(2018)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되어도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비율이 10.2%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누군가의 돌봄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McGill & Breen, 2020; 김선희, 2023). 또한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를 반영하듯, 20세 이상 성인기 이후 발달장애인은 21년 6월 189,239명에서 23년 12월 200,312명으로, 불과 2년 사이에 11만 명 이상이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24). 발달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신체적·인지적 기능 퇴행 등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돌봄의존도를 더 높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발달장애인은 낮은 지적기능과 의사소통의 한계로 인해 자신들의 의사나 욕구를 과잉 내지 폭력적 행동으로 나타낼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도전행동'이라는 용어로 명명되고 있다(Emerson & Bromley, 1995). 김미옥(2023)에 따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19세~29세 40.5%, 30~39세 32.5%로,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중 약 3명은 매일 도전행동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중 매일 도전행동을 하는 발달장애인은 49.3%이며 도전행동의 강도는 56.5%가 심하다고 조사되고 있다(김미옥, 2023). 하지만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은 발달장애인과 도전행동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실천 현장에 진입한 경우가 많고, 자칫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에 잘못 개입할 경우, 이것은 발달장애인에 인권 침해의 문제와 결부될 수도 있다(박광옥, 우리진, 강한나, 2023).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는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 개입과 관련하여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깊이 개입해야 하는지를 상당한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김미옥, 2023; 박광옥 외, 2023). 더욱이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주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사회복지사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김미옥, 김고은, 2017; 이병화, 이미영, 2018). 이 점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 생애에 걸쳐 돌봄서비스에 의존하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할 때, 성인기 이후 발달장애인은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제공받는 학령기를 지나 새롭고 낮은 환경일 수 있는 장애인 복지 기관으로의 서비스 전환 경험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김대용, 김민희, 2024). 이러한 서비스 전환 경험은 낮은 환경으로 인해, 발달장

애인의 도전행동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이 점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자해, 타해, 자기자극, 과잉행동 등으로 나타나는(김고은, 김호신, 2019) 도전행동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분석한 양적 연구들은 이 행동이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 방안을 분석한 연구(McDonald & McGill, 2013; 이병화, 이미영, 2018; 김고은, 김호신, 2019; 김성중, 황정하, 2019; Mullins & Scott, 2023),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강화 및 지원을 분석한 연구(민경심, 임장현, 2019; 채수정, 이희연, 홍기형, 2021; 연석정, 김정연, 박은혜, 2023), 긍정적 행동 지원과 도전행동의 감소와의 영향 관계를 규명한 연구(Schall, 2010; Bruinsma et al, 2023)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 경험을 분석한 국내 질적 연구들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적응 과정과 인식을 분석한 연구(임혜경, 박재국, 이연재, 2017; 전경화 외, 2019; 윤선미, 정이윤, 양호정, 2022),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에 대한 거주시설 종사자 교육과정 개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박광옥 외, 2017; 유수진, 이은혜, 한정은, 2022; 김대용, 김민희, 2024). 이로인해 기존 연구들은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이라는 고유한 특성에 주목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지원 욕구를 드러내는지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장애인 복지 실천현장에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에 개입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도전행동을 어떻게 의미부여 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의 세밀한 지원을 위한 욕구를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이 연구는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사들이 부여하는 성인기 발달장애인 도전행동에 대한 의미들을 과정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적 이해가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의 이해 단계에 따라, 도전행동에 대한 대응과 개입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방법은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하는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시각적 변화 흐름에 따라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과정적으로 이해하는데 강점이 있는 연구방법이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및 발달장애인을 좀 더 섬세하게 지지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영역의 논의점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II. 선행연구 검토

2023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등록 발달장애인은 272,524명으로, 이 중에서 20세 이상 성인기 이후 발달장애인은 총 약 73.2%(200,312명)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 이는 성인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아동·청소년기 비율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타인의 도움이 일부·상당 부분 필요한 발달장애인 비율은 최소 75%이며(경기복지재단, 2023), 신변처리와 같이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 능력이 떨어지는 발달장애인 비율은 52.2%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4:225).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발달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돌봄 의존도가 높은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시 상당한 체력과 에너지 소모에 따른 어려움, 이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부담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발달장애인의 대표적인 특성 중 하나인 도전행동(Challenging Behaviour)은 “행동을 하는 개인 또는 타인의 신체적 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강도와 빈도, 지속시간의 측면에서 문화적으로 비정상적인 행동, 또는 지역사회시설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으로 정의되고 있다(Emerson & Bromley, 1995:4-5). 더욱이 도전행동이 심할수록 장애 정도가 최중증장애일 가능성이 높고, 의사소통 및 자기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며, 두 가지 형태 이상의 도전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Emerson & Bromley, 1995).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은 ‘문제행동’, ‘과잉행동’, ‘부적응 행동’ 등으로 규정하기도 한다(김미옥, 김고은, 2017; 김고은, 김호신, 2019). 이처럼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은 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어 왔으며, 사회복지사들은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화, 절망감, 무력감, 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고 있고, 이로 인한 소진을 호소한 비율도 95.4%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고은, 김호신, 2019; 박광옥 외, 2023). 더욱이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으로부터 야기되는 부정경험으로 인해 1년 이내에 이직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회복지사 비율이 45.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박광옥 외, 2023). 위와 같은 조사 결과는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이 사회복지사들에게 상당한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로도를 느끼게 하는 소진 경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박광옥, 이동석, 김은서 2017; Simó-Pinatella et al., 2023).

반면에 도전행동의 ‘도전’이라는 용어를 살펴보면, 영미권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 ‘게임이나 논쟁에 참여하거나 경쟁하도록 하는 것’을 뜻하며, 우리말에서 ‘도전’은 ‘대항하는 것’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9:40).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도전행동은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처한 불만족스러운 상황, 환경에 저항하거나 자

신의 욕구를 표출하기 위한 행동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다. 예컨대 발달장애인들은 스스로의 욕구를 표현하기 위한 소통행위로서 도전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김고은, 김호신, 2019). 이로 인해 최근에는 과거의 부정적 개념보다는 좀 더 중립적인 의미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김고은, 김호신,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이란 용어는 ‘직원을 때린다’, ‘분노’, ‘슬프다’, ‘화가 난다’ 등 행동 중심의 과잉되고 폭력적인 행동 언어로 이해되고 있다(Mark et al, 2017:255-257). 이로 인해 Mark et al(2017)은 이 용어가 사람들이 발달장애인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부정적 프레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한 용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에서도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어려운 행동’이라는 용어로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2;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4).

그렇다면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은 이것을 경험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인식과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이 행동은 좀 더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지만, 반대의 의미로도 이해될 수도 있다. 이 점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경험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2024년 현재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인력을 위한 제도화된 교육이 부족한 상태이며, 경력직 사회복지사의 경우도 일회적이고 단기간의 보수교육이나 양성교육 정도를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보건복지인재개발원, 2024).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이들의 도전행동을 좀 더 전문적이고 열린 태도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는 현실일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실천현장에서 경험하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어떤 대처 노력과 지원 욕구들을 드러내는지도 섬세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도전행동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사회복지사 당사자의 생동감 있는 목소리를 통해 이해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근거이론 연구방법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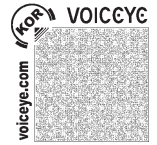
질적 연구는 연구 현상으로 제기되는 타자의 삶을 추체험함으로써, 잘 알려지지 않은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나 해석을 확장시켜 나가도록 한다(Corbin & Strauss, 2019).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방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세계 안에서 경험되는 특정한 사회현상의 과정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회현상이 어떠한 조건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이론적인 개념과 범주들로 나타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 연구라고 할 수 있다(임해영, 이혁구, 2014). Corbin과 Strauss(2015)에 따르면, 근거이론의 장점 중 하나는 특정한 사회현상을 경험하는 연구대상자가 타인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어떤 본질적 의미를 드러내는지, 이러한 본질적 의미는 어떤 과정과 행위에 관한 이론적 기초가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Creswell & Poth, 2023).

따라서 이 연구가 분석하고자 하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경험은 이 행동을 마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경험이 시간적 변화 흐름에 따라 어떠한 의미구조로 나타나는지, 이 의미구조들은 어떠한 과정적 단계로 변화해가는지, 그리고 이것은 이론적 기초로서 어떤 시사점으로 드러내는지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Corbin과 Strauss(2015)의 근거이론 방법 적용을 하였다.

2. 자료수집과 연구 참여자 선정

이 연구의 자료수집은 질적 연구방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일대일 심층 면담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직간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최소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적절한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해 ○○시 사회복지사협의회 밴드 모임에 모집 문건을 게시하였고, 동시에 연구 참여자가 또 다른 연구 참여자를 추천하는 눈덩이 표집을 함께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 연구는 10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취된다는 것과 연구 참여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녹취된 내용과 전사된 내용 모두를 익명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내하였다. 1회 면담 시간은 90분 내외로 진행하였으며, 면담 횟수는 평균 2회로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근거이론의 자료수집과 동시에 분석 원칙에 따라 수집된 자료는 수집과 동시에 분석하였으며, 더 이상 새로운 하위 범주, 상위범주가 출현되지 않는 상태를 이론적 포화의 상태로 이해하고, 면담을 종료하였다(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22). 본 연구의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발달장애인 지원경력	근무기관	근무지
1	남	53	20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서울
2	여	56	8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경기
3	남	51	3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서울
4	남	44	15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경기
5	여	58	9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서울
6	여	57	11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서울
7	여	29	3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경기
8	남	36	4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경기
9	여	30	5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경기
10	남	44	22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경기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작업을 실시하였다. 먼저 개방코딩 단계에서는 전사한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읽는 줄단위(Line by Line)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적 개념인 1차 코드를 부여했고, 이러한 1차 코드를 개념으로 확정하기 위해 다시 원자료로 돌아가 부여된 1차 코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순환의 과정을 거쳤다. 이것을 통해 개념을 확정하고, 이 개념들이 공통적으로 묶이는 하위범주, 상위범주로의 추상화 과정을 거쳤다. 축코딩 단계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의미 부여하는 개별 상위범주 중 중심현상을 상정하고, 이 중심현상 축을 중심으로 어떠한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증재적 조건의 영향력 아래, 작용/상호작용 전략과 대응을 하면서 이것이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선택코딩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인 성인기 발달장애인 도전행동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경험을 관통하고 통합할 수 있는 핵심 범주를 상정하고, 이것을 개별범주들의 논리적 연결성을 중심으로 재기술하는 이야기 윤곽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과정분석에서는 개방코딩과 축코딩, 선택코딩을 통해 드러난 개별 상위범주들의 유기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이것이 시간의 변화 흐름에 따라 어떤 과정적 단계로 나타나는지를 이해하였다(박휴용, 2023).

4.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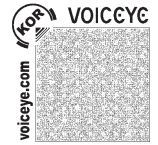
연구의 엄격성은 연구 자료수집이나 증거가 연구결과 제시에 있어, 연구 주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진실성에 입각하고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다(유기웅 외, 2022). Guba와 Lincoln(2005)은 질적 연구의 엄격성 기준을 ‘객관성’, ‘검증 가능성’, ‘신뢰성’, ‘전이 가능성’, ‘활용 가능성’ 5가지로 제시하였다(박휴용, 2023).

먼저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이다. 삼각검증법은 Denzin(1970)이 질적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수집의 다원성을 뜻한다(유기웅 외, 2022).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경험을 심층면담 이외에, 사진 및 영상물, 간단한 메모 등의 진실성 있는 부차적 자료를 수집하여, 이것을 개념 및 범주 도출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김영천, 2018). 둘째, 검증 가능성은 동료검토로 사회복지 박사 2인의 자문을 통해, 연구자의 주관적 선입견, 연구결과 도출에 있어 과도한 해석 등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이것을 연구결과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신뢰성은 연구결과와 진실성과 연결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1, 3, 9, 10)에게 연구결과에 대한 확인을 거쳤다(유기웅 외, 2022). 넷째, 전이 가능성은 심층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천, 2018). 이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면담 내용을 연구자의 해석과 통찰을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섯째, 활용 가능성으로 감사를 남기는 것이다. 본 연구의 감사자료 남기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를 통해, 연구계획에 관한 심의 승인으로 (P01-202402-01-028)이것을 대체하였다.

IV. 연구결과

1. 축코딩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 내용 기술

이 연구는 원자료에 대한 줄단위 분석을 통하여 개방코딩에서 161개의 개념을 생성하였고, 개념들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속적으로 반복 비교하면서 45개의 하위범주와 14개의 상위범주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2>과 같다.



〈표 2〉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경험 범주 목록

	범주	하위범주
인과적 조건	결핍된 욕구	·욕구불만의 표출 ·관심받고 싶은 욕구 ·집착적인 행동
	주변 환경의 영향력	·사회복지사도 도전행동을 야기하는 환경의 일부 ·날씨의 영향 ·폭력적인 가족 보호자의 역할 모방
맥락적 조건	점차 증폭되는 부정적 심리 기제	·당혹스러움 ·지치는 기분 ·삭혀야 하는 화 ·두려움을 느낌 ·트라우마와 같은 심리적 각인
	내적 갈등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지원 사이의 갈등 ·지원과 인권침해 사이에서 흔들림 ·이론과 현장 사이의 괴리
	자동반사적 반응	·무관심으로 대응 ·반복적 대처 ·습관적 몸이 먼저 반응
	미숙한 대처에 대한 자책	·후회스러움 ·미안한 마음
중심 현상	발달장애인을 더 깊게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	·다른 방식의 의사 표현이라는 생각의 전환 ·이용자 시각에서 이해하려 지원하려는 노력 ·기존 사회복지사와는 다른 접근을 모색 ·일관된 지원 방법의 중요성 자각과 정보 공유 ·보완적 의사소통 필요성의 자각과 참여
중재적 조건	주변 체계가 주는 갈등적 상황	·시설상급자의 지원방식에 대한 불편함 ·무리한 요구와 태도의 보호자
	이직 의도의 이유	·장애인 당사자의 도전행동에서 기인 ·관리자의 미흡한 태도에서 기인
	지지와 동력의 원천	·동료 사회복지사로부터 얻는 힘 ·긍정적 보호자는 적극적 케어를 할 수 있는 동력제공 ·발달장애인의 긍정적인 변화는 이 일을 지속하게 하는 힘
작용/ 상호작용 전략	발달장애인에 대한 넓어진 이해의 폭	·서로 알아차리는 교감 ·시간 속에서 확장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유능성과 성장로써 함께 성장해 나가는 '나'	·도전행동의 이해와 개입의 유능성을 발휘하는 사회복지사 ·도전행동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연결 ·신앙의 힘을 통해 마음을 다잡는 사회복지사
결과	기관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지지의 중요성	·도전행동으로부터 사회복지사와 이용자의 분리될 휴식공간개선의 필요 ·발달장애인 현장 투입 시 필수적인 사전교육이 필요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도전행동에 대한 교육 참여 욕구 ·시설 상급자의 격려가 주는 힘
	제도적 차원의 지원 필요	·도전행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관련 법적 조항 개선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사회복지사의 중원이 우선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디지털 장치사용 지원 ·심리상담 지원 필요

1) 인과적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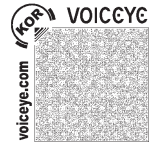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의 발생적 원인에 해당되는 인과적 조건은 ‘결핍된 욕구’, ‘주변 환경의 영향력’이란 범주로 나타나고 있다. 근거이론에서 인과적 조건이란 특정한 연구 현상이 ‘왜’, ‘어떻게’, ‘어디서’와 같은 질문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더 깊게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이라는 이 연구의 중심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일, 사람 등이 원인적 배경이 되는 것을 뜻한다(Strauss & Corbin, 2001). 이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은 발달장애인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관심받고 싶은 결핍된 욕구, 음식이나 옷 등에 집착하는 행동으로 인해 도전행동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은 자신들이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주변 환경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사도 도전행동을 야기하는 환경의 일부’라는 범주가 포함되는데 사회복지사의 성향과 지원하는 방식, 태도 등이 도전행동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외에 연구 참여 사회복지사들은 발달장애인들이 날씨와 습도의 영향, 폭력적인 가족 보호자 행동을 모방하는 모습 등이 원인이 되어 도전행동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였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자해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

발달·지체 중복장애인이예요. 이분의 특성상 몸이 경직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됩니다. 이분은 자기 욕구가 해소가 안 되면 예를 들어 김치를 달라고 했는데 안준다거나 라면이나 간식을 먹고 싶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를 안 해주면 자해를 합니다. 휠체어에 머리를 뒤로 해서 넘어가서 뒷머리를 찌다거나 앞으로 쏟아져서 턱을 깨서 응급실에 실려간다가... 온몸을 힘을 줘서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몸에 상처를 내요(참여자1).

〈사회복지사도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의 환경이 되기도 함〉

도전적 행동은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원할 때는 도전적 행동이 없다가... 다른 사회복지사로 바뀌면 그들에게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도전적 행동이 잦고 도벽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리를 지키는 편이예요. 발달장애인과 방안에 같이 있고 음악도 들려주는데 다른 사회복지사는 그렇게 안한단 말이에요. 발달장애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니 말썽을 부리더라고요, 이런 경우 도전적 행동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참여자6).



2)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사회복지사들이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경험의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조건을 말하며, 중재적 조건보다는 좀 더 미시적이고 심리 내적인 기제들이 포함된다(임해영, 2016).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에 대한 사회복지사 경험의 중심에는 ‘발달장애인을 더 깊게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이라는 중심현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좀 더 미시적이고 특수한 조건을 ‘점차 증폭되는 부정적 심리 기제’, ‘내적 갈등’, ‘자동반사적 반응’, ‘미숙한 대처에 대한 자책’이란 범주로 상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지치고, 화가 나는 부정적인 심리 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의미부여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사회복지사들이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으로 인해 지원과 인권 침해 사이에서 흔들리거나, 학습한 이론과 현장 사이의 괴리 등을 경험할 때 내적 갈등을 느낀다고 이해하였다. 게다가 연구 참여자들은 수시로 발생하는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자동반사적 반응’을 하거나 혹은 좀 더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미숙한 대처에 대한 자책’으로 자신들의 혼란스러운 심리 내적 기제를 드러내고 있다.

〈도전행동을 지원하면서 맞았던 경험이 또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함〉

그렇게 맞고 나서 그 당사자를 지원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지원해서 또 맞으면 어떡하지. 약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감정이 꽤 오래 갔던 거 같아요(참여자9).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이 학대로 비춰질 수 있음〉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위해를 한다든지 자신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할 때는 당연히 제재라든지 그 행동을 소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제재를 하는 제 모습이 제삼자의 눈으로 봤을 때 학대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이기도 하겠죠. 그런 것들이 어려운 지점입니다(참여자3).

〈짜증 섞인 목소리와 행동으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처한 것이 후회됨〉

도전적 행동을 보인 이용자에게 사회복지사는 언어지원을 하지만, 거의 90% 이상이 알아 듣지 못하죠.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설명을 하는데 알아 듣지 못해 굉장히 답답하죠 ... (중략)... 사실 알아요. 말하면서도 알고. 결국은 저도 사람인지라 말 안에 짜증스러움이 묻어나올 수가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고 그러죠.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처가 끝나고 나서 (짜

증스럽게 대했던 것을) 후회해요(참여자4).

3) 중심현상

중심현상이란 이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의 경험이 무엇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이것을 후속하는 증재적 조건 혹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조절되어지는 연구 현상의 중심적 생각을 의미한다(Corbin & Strauss, 2019).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맥락적 조건으로 제시된 부정적이고 미숙한 심리적 기제 안에서도 도전행동을 하는 발달장애인이 어떤 상황에서 도전행동을 더 하게 되는지, 어떠한 지원을 더 필요로 하는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발달장애인을 더 깊게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이란 중심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중심현상에는 도전행동이 ‘다른 방식의 의사 표현이라는 생각의 전환’, ‘이용자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지원하려는 욕구’, ‘기존 사회복지사와는 다른 접근을 모색’, ‘일관된 지원방법의 중요성 자각과 정보 공유’, ‘보완적 의사소통 필요성의 자각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생각과 실천적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다른 방식의 의사표현이라는 생각의 전환’은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상황과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거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답답함을 느낄 때, 도전행동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연구 참여 사회복지사들은 ‘이용자 시각에서 이해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기존 사회복지사와는 다른 접근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선배 사회복지사들의 구세대적인 서비스 지원방법을 답습하지 않고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 도전행동을 이해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동료 간의 ‘일관된 지원방법의 중요성 자각과 정보 공유’의 노력을 언급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과 보완적 대체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자각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본다고 구술하였다. 예를 들어 당일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안내를 사진이나 그림으로 만들어 사용하면서 도전행동의 빈도나 강도를 줄이고, 발달장애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도구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소통이 안되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표현이 도전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함〉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은 의사 표현인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분이 누군가를 때리는 행동은 누군가가 당사자분이 싫어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불만을 표현 한 것일 수도 있고, 겁을 줘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본인이 어떤 표현을 못하니까 위협적인 몸짓을 하거나 큰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자해 타해로 표현하는 의사표현 방법인 것 같아요(참여자10).

〈일관된 지원을 하기 위해 새로이 알게 된 정보는 서로 공유함〉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일관성 있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힘든 부분이 선생님들마다 케어하는 개입방법이 달랐잖아요. 지금도 사실 서로 일관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맞춰가려고 이야기하고 으쌰으쌰 합니다. 최대한 일관된 지원으로 맞춰가고 있고 일대일 케어하면서 이용자의 특성을 새로이 알게 되는 것은 공유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참여자4).

〈일정표를 확인시켜줌으로써, 도전적 행동을 중재하고 소통함〉

발달장애인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시각적인 걸 많이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주간보호시설이니까 ‘오전 시간에는 어떤 걸 하고 오후 시간에 어떤 걸 해요.’를 안내하는 그림 자료를 사용해요. 사실 오늘 프로그램이 뭔지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이용자는 등원하자마자 집 가고 싶다고 때를 부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경우에 오늘의 일정표에 프로그램 안내 그림 자료를 붙여두고 하나씩 지워나가요. ‘일정표에 아무 것도 없네요. 그럼 우리 이제 집 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참여자9).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미시적 조건인 맥락적 조건보다 좀 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조건으로서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면서 내·외적 조건으로써 작용/상호작용 전략과의 유기적 관계 안에서 연구의 중심현상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코딩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천, 2018). 이러한 중재적 조건은 연구의 중심현상인 ‘발달장애인을 좀 더 깊게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이 영향을 받는 거시적 조건으로서, 여기에는 ‘주변체계가 주는 갈등적 상황’, ‘이직 의도의 이유’, ‘지지와 동력의 원천’이라는 범주가 포함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심리 내적 어려움 속에서도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좀 더 깊게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그렇지만 두려움과 소진의 부정적 심리기제를 안겨주는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은 이들에게 상당히 힘겨운 경험이기도 하다. 먼저 ‘주변체계가 주는 갈등 상황’은 ‘시설 상급자의 지원 방식에 대한 불편함’과 ‘무리한 요구와 태도를 보이는 보호자’와의 경험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참여자들은 시설 상급자가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지원방법과 달리 도전행동을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햄버거나 자장면을 먹이는 등의 일관성 없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전행동을 더욱 부추길 때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자신의 자녀에게만 특별히 더 신경 써주기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자기 중심적 태도를 드러낼 때, 갈등을 경험하였다. 연구 참여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경험하면서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지원하는 자신들의 개인적 노력이 무너지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하였다. 이 속에서 참여자들은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고 싶은 '이직 의도의 이유'가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연구 참여 사회복지사들은 자신들이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지지와 동력의 원천도 함께 이야기하였다. 이것은 동료 사회복지사의 따뜻한 위로에서 힘을 얻는 것과 사회복지사인 자신을 지지해 주는 보호자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에서 얻는 힘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구 참여 사회복지사들은 '발달장애인의 긍정적인 변화가 이 일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라고도 의미부여 하였다. 예컨대 참여자들이 발달장애인 도전행동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방법을 찾아 제공함으로써 도전행동의 빈도가 줄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 성취감과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동료 사회복지사, 긍정적 지지 체계가 되어주는 보호자, 발달장애인의 긍정적 변화라는 '지지와 동력의 원천'을 통해, 좀 더 발달장애인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유능성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성찰 속에서 성장해 가는 자신을 마주하는 작용/상호작용으로 전략으로 이어진다고 이해하였다.

〈서비스를 지원하는 실무 사회복지사의 지원 방법을 존중하지 않는 중간관리자〉

도전행동이 꺾이지 않을 때 국장님이 햄버거를 사먹으러 가자고 이래요. 이런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부적 강화가 되는 거예요... (중략)... 그분은 앞으로는 교사가 하는 말은 안 듣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급이 움직여야 돼요. 국장님이 햄버거를 먹으로 나간다는 등 자장면을 먹으로 나간다는 등 이렇게 알려주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몇 번 하다보니까 고착화 돼 버린 거예요(참여자4).

〈보호자가 종사자를 신입하면 일도 수월하고 이용자의 생활 모습을 편안하게 대화하게 됨〉

a,b이용자가 프로그램을 같이 하다가 둘 중 한명이 프로그램에 더 참여하고 싶어 욕심을 부리면서 도전적 행동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면 '그랬군요,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제가 집에 가서 좀 지켜 볼게요'라고 말하는 보호자에게는 추후 또 문제 발생 시 이야기를 하겠죠. 혹은 '선생님이 어제 말씀해 줘서 집에서 지켜봤는데 크게 이상 행동이 없었어요. 아침 송영 시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으니 좀 봐 주세요.'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용자의 상황을 미리 체크하니 케어하는데도 편하고, 보호자님과 라포도 형성되어 이용자의 상황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참여자8).

〈도전행동의 개입을 고민하고 지원하면서 편안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유임〉

이용자의 도전행동에 대한 이유를 찾고 그 행동을 여러 방법으로 지원하면서 적절한 지원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니 그 분이 좀 편해지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사회복지사로서 성취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참여자9).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중심현상을 일상적 혹은 전략적으로 다루고 조절하는 의도적 행위로서, 이것을 통해 연구의 중심현상이 결과로 이어지게 하는 일종의 전략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김영천, 2018; 유기웅 외, 2022).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심리 내적 기제와 주변 체계의 부정적인 영향력 안에서, 좀 더 발달장애인을 깊이 있고 섬세하게 이해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형성되고, 지속적인 교감을 통해 과거 부정적으로 생각되었던 것들이 점차 긍정적 이해로 변화되는 경험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넓어진 이해의 폭’과 ‘유능성과 성찰로써 함께 성장해 나가는 ‘나’로 상징되고 있다. 먼저 ‘발달장애인에 대한 넓어진 이해의 폭’은 ‘서로 알아차리는 교감’과 ‘시간 속에서 확장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라는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유능성과 성찰로써 함께 성장해 나가는 ‘나’는 ‘도전행동의 이해와 개입의 유능성을 발휘하는 사회복지사’로 변모해 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속에서 이들은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연결’된다고 의미부여하고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신앙의 힘을 통해 마음을 다잡는 사회복지사’로서,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존재로 자신을 이해하였다.

〈말하지 않아도 감정표현과 그것의 관찰로 알아차리는 무언의 소통〉

우리 발달장애인분들하고 대화 사실 의사소통이 어렵잖아요. 그들의 감정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싫어 좋아 이 단어만 해도 알 수 있는데 그 말조차 못하는 사람은 표정에서 드러나고... 우리 발달장애인분들도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수를 치면서, 눈빛으로 그렇게 때문에 감정적 소통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날과는 조금 다름을 캐치하고 이용자를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대하는 것 같아요(참여자7).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이해의 생각으로 변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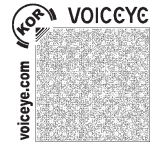
처음에는 '도대체 왜 이러지'라고 부정적으로만 보여지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다 보니 시야가 좀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이용자분이 이게 불편해서 나한테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행동을 했구나. 그런게 보이니까 조금 변하긴 했죠...(중략)... 발달장애인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참여자8).

〈수시로, 무시로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

저는 매일 아침 그리고 시설에서 예배드리는 주일 아침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장애인분들의 도전행동에 바르게 대응하도록 해주세요. 저와 이들의 영혼을 살려주세요.'라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발달장애인을 지원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아 수시로 기도하면서 지원하고 있어요(참여자3).

6) 결과

본 연구 참여자들은 중심현상인 '발달장애인을 더 깊게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넓어진 이해의 폭', '유능성과 성찰로써 함께 성장해 나가는 '나'와 상호작용하면서, 이 연구의 최종적 결과와 연결되고 있다. 근거이론에서 결과란 중심현상을 다루는 의도적 행위인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연구 현상의 최종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천, 2018; Corbin & Strauss, 2019). 연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 도전행동에 대한 개인 차원의 적극적 이해와 노력 속에서 좀 더 유능한 사회복지사로 성장해 가는 자신을 마주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이 사회복지사 개인의 노력 결과에 따른 산물이라는 점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도전행동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법적 조항 지원과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디지털 장치 사용을 욕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서비스 지원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을 직접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상당히 고강도이면서, 도전행동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관과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욕구들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것은 연구 참여자 자신과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지지의 중요성', '제도적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라는 범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이 멈추지 않고 지속 될 경우 그 행동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있을 사회복지사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휴게 공간의 필요성을 욕구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 복지 현장 진입 전 필수적인 사전교육의 필요성을 욕구하였다.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도전행동에 대한 사전 이해 여부에 따



라,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태도와 서비스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은 입직 후에도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도전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보수교육 참여를 기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제도적 차원의 지원 필요성은 도전행동의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법적 조항개선,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인력 증원 외 디지털 장치를 활용한 도전행동 지원, 심리상담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용자들과 분리된 공간과 휴게 시간 지원〉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으로 사회복지사는 심리적으로 에너지도 많이 소진되고, 그렇게 때문에 일단은 이용자와 분리되어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분리해서 쉬는 휴식이 필요해요. 우리 시설은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참여자2).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죠. 왜냐면 사회복지사는 자격증만 있으면 발달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일 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근무를 시작한게 아니에요. 저도 이 분야에 종사하면서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을 공부하면서 터득한건데...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시설에 오면 도망칠 수도 있거든요. 정말 몰랐던 환경에 들어오는 거니까(참여자7).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 지원 시, 사회복지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디지털 장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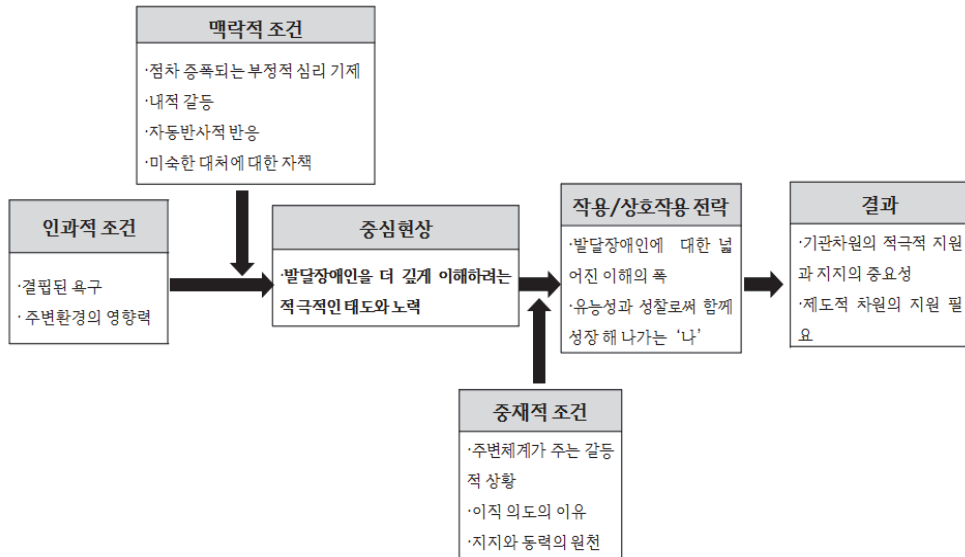
최중증은 솔직히 이대일로 붙어야 될 때도 있어요. 이대일이 모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 (중략)... 교육에 참여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시설은 벨을 누르면 옆의 동료 사회복지사가 온다고 하던데,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해 주면 좋겠어요(참여자6).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은 사회복지사에게는 안식월, 심리상담 등의 지원〉

시각중복 발달장애인분이 생활하는 방 옷장 문고리에 목을 뒀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아침에 당직자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런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 당직자는 심리적 트라우마가... 그 방만 들어가면 안 좋은 모습이 떠오를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안식월 혹은 심리상담 등등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참여자1).

위와 같이 기술한 총 14개의 범주를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라는 여섯 가지 패러다임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성인기 발달장애인 도전행동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경험연구 패러다임 분석 모형



2. 핵심범주 구성과 이야기 윤곽 전개

근거이론에서 핵심범주란 연구 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개별범주의 결과물들이 핵심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몇몇 단어로 추상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trauss & Corbin, 2001). 그리고 이야기 윤곽 전개는 이러한 핵심범주를 중심에 놓고 개별범주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범주 간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임해영, 2016).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된 14개의 범주들을 관통하면서, 통합할 수 있는 핵심범주를 ‘발달장애인이라는 타자를 깊게 이해하기 위한 전문가로서의 고심과 성장의 여정’으로 상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경험하면서 그것의 원인을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욕구, 불만 표출이나 시설 사회복지사에게 관심 받고 싶은 욕구, 특정한 물건, 음식에 대한 ‘집착적인 행동’ 등의 ‘결핍된 욕구’로부터 야기된다고 하였다. 또한 도전행동 발생의 원인에는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사회복지사도 도전행동을 야기하는 환경의 일부’가 된다고 하였고, 날씨의 영향, 폭력적인 가족 보호자의

역할 모방에서도 기인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경험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점차 증폭되는 부정적 심리 기제’와 마주하게 되는데, 이것은 ‘당혹스러움’, ‘지치는 기분’, ‘삭혀야 하는 화’, ‘두려움을 느낌’, ‘트라우마와 같은 심리적 각인’으로 경험되기도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은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경험하면서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지원책 사이의 갈등’과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제재하는 과정이 인권 침해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 ‘지원과 인권 침해 사이에서 흔들리는’ 혼란을 경험하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마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예기치 못한 특성으로 ‘이론과 현장 사이의 괴리’를 경험하면서 상당한 내적 갈등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반복되는 장애인의 도전행동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자동 반사적 반응’을 한다고도 하였다. 이러한 자동 반사적 반응에는 무관심으로 대응하거나 일상 속에서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대처하는 것, 몸이 먼저 반응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자동 반사적 반응이 서비스 제공 경험 부족 등에서 기인하는 미숙한 대처를 후회스러움과 자책감의 미안한 마음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연구 참여 사회복지사들은 이와 같은 복잡한 심리적 기제 안에서도 ‘발달장애인을 더 깊게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이들의 노력과 태도는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다른 방식의 의사 표현이라는 생각의 전환’과 ‘이용자 시각에서 이해하고 지원하려는 노력’, ‘기존 사회복지사와는 다른 접근을 모색’이라는 경험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연구 참여자들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일반된 지원방법의 중요성 자각과 정보 공유’, ‘보완적 의사소통 필요성의 자각과 참여’로 나타난다.

하지만 연구 참여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차원의 태도 변화와 노력들은 주변 체계가 주는 갈등적 상황에서 흔들리기도 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연구 참여 사회복지사들을 갈등하게 하는 주변 체계는 시설 상급자의 원칙과 일관성 없는 지원 방식에 대한 불편함과 무리한 요구와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자기중심적인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의 경험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들은 이 일은 그만두고 싶은 ‘이직 의도의 이유’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렇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서로 격려하는 ‘동료 사회복지사로부터 얻는 힘’이 크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 보호자는 적극적 케어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하면서, 보호자와의 깊은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구 참여 사회복지사들은 ‘발달장애인의 긍정적 변화는 이 일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지지와 동력의 원천이 있어 포기하지 않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넓어진 이해의 폭’을 지닌 자기 자신과 마주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발달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교감’을 통한 소통을 하면서, ‘유능성과 성찰로써 함께 성장해 나가는 ‘나’를 발견하는 모습으로 나타

나게 된다. 연구 참여 사회복지사들은 자신들의 변화와 성장의 중심에는 기관과 국가 차원의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뒷받침이 있기보다는 변화와 성장을 위한 자신들의 개인적 차원의 노력들에 더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들은 ‘발달장애인이 라는 타자를 깊게 이해하기 위한 전문가로서의 고심과 성장의 여정’에는 ‘기관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지지의 중요성’과 ‘제도적 차원의 지원 필요’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전자에는 ‘도전행동으로부터 사회복지사와 이용자의 분리될 휴식 공간 개선의 필요’, ‘발달장애인 현장 투입 시 필수적인 사전교육이 필요’,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도전행동에 대한 교육 참여 욕구’, ‘시설 상급자의 격려가 주는 힘’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후자에는 ‘도전적 행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관련 법적 조항 개선’,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디지털 장치 사용 지원’,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사회복지사의 증원이 우선’, ‘심리상담 지원 필요’라는 의미들을 드러내었다.

3. 과정분석

본 연구는 성인기 발달장애인 도전행동을 개방코딩과 축코딩, 핵심범주와 이야기 윤곽 전개라는 선택코딩을 거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어떤 변화의 단계로 경험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도전행동 경험에 대한 변화의 과정을 ‘당혹’, ‘갈등’, ‘모색’, ‘성장’, ‘대안적 욕구’의 단계로 이해하였다.

1) 당혹 단계

연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 기관에 입사할 당시,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해 알지 못했고 도전행동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실천현장에 진입하였다. 이들 중에는 입직한 시설에서 도전행동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본 이도 있었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도전행동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달장애인이 참여자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일방적인 공격과 폭력에 노출되었던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다. 이들은 발달장애인의 이러한 도전행동을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혹스러운 기분으로 이해하였다. 더욱이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이 자기 자신 및 주변의 다른 장애인, 사회복지사,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 낯선 사람에게조차도 도전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자신과 장애인에게 화가 나기도 하며, 이로 인해 부정적 감정들이 점차 증폭되는 심리적 어려움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

사들이 발달장애인 도전행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도전행동을 경험하고 개입했어야 했던 입직 초기의 경험을 ‘당혹’의 단계로 이해하였다.

2) 갈등 단계

연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에 대한 당혹스러움을 경험하면서 그 행동에 대해 사회복지사인 자신이 습관적으로 대처하려는 미숙함에 대한 자책, 그리고 시설 상급자, 가족 보호자 등과 같은 주변인들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다양한 내적 혼란과 괴리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또한 이들은 직장 상사가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잘못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동심리로 인해 갈등이 생겨난다고 하였다. 더욱이 가족 보호자가 자기 자녀인 발달장애인에게만 더 서비스해 주길 바라거나, 자신을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잠정적 범죄자로 오해하는 경험 속에서 이 일을 그만 두고 싶은 갈등을 드러내기도 한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제재하는 개입 과정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모르는 제삼자의 눈에는 자칫 장애인을 확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갈등하게 한다고 이해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참여자들의 내적 갈등과 발달장애인을 둘러싼 주변인들과의 부정적 상호작용 안에서 벌어지는 불편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이 연구는 이것을 ‘갈등’ 단계로 이해하였다.

3) 모색 단계

연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과 도전행동에 대해 당혹스러움과 갈등의 단계를 거쳐 ‘발달장애인이라는 타자를 깊게 이해하기 위한 전문가로서의 고심과 성장의 여정’의 과정 안에서, 어떤 직·간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지를 고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은 그들의 결핍 욕구를 드러내는 표현의 한 방식이라는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 속에서 이들은 발달장애인 당사자 시각에서 도전행동을 지원하려는 노력과 기존 사회복지사들과는 다른 접근성을 통해 발달장애인 도전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모색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보완적 대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하루 일과표를 그림이나 사진으로 만들어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의 빈도를 낮추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발달장애인과 소통하면서 도전행동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 제공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모색’의 단계로 이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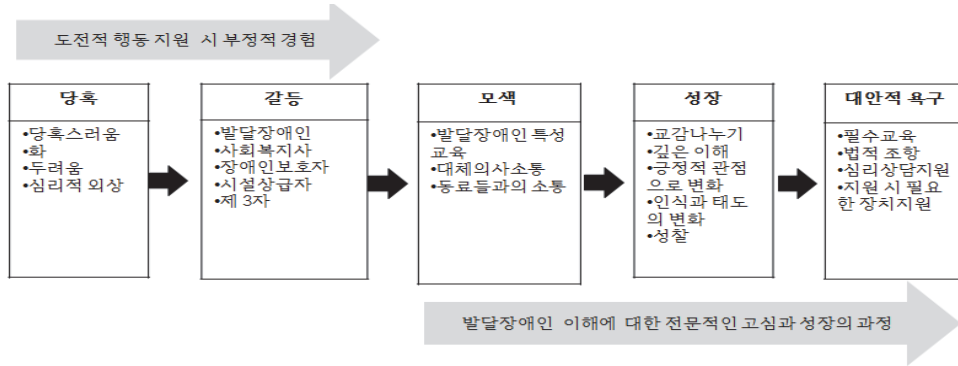
4) 성장 단계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좀 더 잘 지원하기 위한 모색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돌봄과 지원방법 등을 찾아가게 된다. 이 속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전문사회복지사로 성장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활동을 하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조금씩 넓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도하면서 발달장애인을 바라보던 관점의 변화를 인식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것의 의미를 '유능성과 성찰로써 함께 성장해 나가는 '나'로 이해하였다. 이것은 과거에 자신이 제공했던 서비스 지원 태도와 방법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변화 등에서 점진적으로 유능성을 발휘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 연구는 이것을 '성장'의 단계로 이해하였다.

5) 대안적 욕구 단계

연구 참여 사회복지사들은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당혹, 갈등, 모색, 성장의 점진적 변화의 단계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 과정에서 이들은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기 자신, 그리고 발달장애인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욕구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지원 욕구를 기관 차원에서는 도전행동이 일어나는 위험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사회복지사의 분리, 장애인과 장애인을 분리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도전행동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입직 교육 및 보수교육이 좀 더 풍부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이외에도 연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때 서비스 공백의 문제와 사회복지사의 업무 피로도를 낮추기 위한 인원 증원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 도전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신체적 제재 및 사회복지사들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 참여 사회복지사들의 욕구를 이들이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적 욕구로 보고, 이것을 대안적 욕구의 단계로 의미화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참여 사회복지사들의 성인지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경험의 과정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도전행동을 경험하는 사회복지사의 변화 과정



V.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위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를 통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논의점과 제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은 발달장애인 도전행동의 원인을 결핍된 욕구와 주변 환경의 영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들은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보완적 대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연구 참여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보완적 대체 의사소통의 도구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으로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다(참여자 1, 4, 6, 7, 8, 9). 이 점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보완적 대체 의사소통 도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대체 의사소통 도구를 사용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조혜희 외, 2025), 시설 및 기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의사소통이 되는 소수의 몇몇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김경양, 김성현, 2020).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욕구 등을 좀 더 섬세하게 이해하면서 발달장애인의 개별수준에 맞고 조작성이 용이한 보완적 대체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 시설 환경 및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련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둘째, 발달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

격 기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은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에 대한 사전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상당히 당혹스러운 부정적 감정과 트라우마와 같은 심리적 각인으로 경험하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도상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이라면, 발달장애인 및 도전행동에 대한 사전 이해 없이도 실천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한국보건복지인재원, 2022:6). 이로 인해 박광옥 등(2023)의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복지를 위한 실천현장 진입 전 사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교육보다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지원 전문사회복지사’ 자격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선행 연구들에서는(박광옥 등, 2022; 2023,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024) 도전행동 지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을 국가 자격 제도화의 필요성으로 연결시키고 있지 못하다. 발달장애인 지원 전문사회복지사를 국가 자격으로 제도화했을 시, 발달장애인과 이들의 도전행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실천현장 진입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다. 이것은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은 물론, 사회복지사들의 소진 및 이직 의도를 낮출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전문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들의 현장 진입은 이들의 직업적 자부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과 ‘도전행동에 대한 이해’에 관한 발달장애인 전문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 전문사회복지사 양성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셋째, 사회복지사들이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에 연루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컨대 연구 참여 사회복지사들은 장애인 당사자나 타 이용자, 종사자 등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도전행동의 위급 상황에서, 그것에 대처하는 자신의 모습이 자칫 장애인을 학대하거나 싸우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였다. 이미 선행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에 대한 신체적 개입의 필요성을 응답자의 93%가 동의하고 있다(박광옥 외, 2023). 또한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대부분(86.0%)이 적극적인 신체적 개입을 하고 있다고(박광옥 외, 2023) 조사 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 사회복지사들이 법적 문제에 연루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는 것은 이들이 기준으로 삼을 만한 개별화된 매뉴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에서 발달장애인 도전행동에 대한 매뉴얼을 보급하고 있지만, 시설 유형 등에 따른 이용인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장애인들의 도전행동의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설에 맞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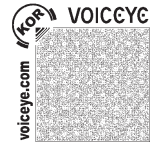
개별화 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이 연구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발달장애인 도전행동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하고, 공통된 도전행동 사례에 대한 대응과 개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시설 유형에 따라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에 대한 좀 더 세분화된 매뉴얼 개발과 보급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넷째, 발달장애인 실천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관련 제도화된 보수교육의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 개입에 대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이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렇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에 대해 시설 상급자의 일관성 없는 지원 방식과 임기응변식의 지원 행태로 갈등을 경험하면서(연구참여자 1, 2, 3, 4, 5, 6) 소진과 이직의 의도가 만들어진다고도 하였다. 이로 인해 연구 참여 사회복지사들은 발달장애인과 도전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을 기관 지원 없이 스스로 찾아서 참석한 적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발달장애인과 도전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사들의 노력이 국가적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사회복지사 개인의 고민과 노력에 더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시설 상급관리자와 시설장 등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필수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서비스 질 향상과 이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과 도전행동에 관한 전문적 이해와 실천적 역량 향상을 위한 법정 의무교육의 제도화를 제안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생활시설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한 사회복지사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연구 참여자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설 유형의 사회복지사 경험을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이 연구가 연구 참여자의 모집공고문을 통한 자발적 참여와 연구 참여자가 참여자를 소개하는 눈덩이 표집 방법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편의 표집에서 오는 한계점으로 추측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현장 경력이 최소 3년 이상 최고 22년까지 연구 참여자 간 경력 편차가 컸다. 이러한 경력 편차의 큰 차이는 연구 현상의 공통적 주제보다는 극단적이고 예외적 주제의 출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경력 편차의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통해, 연구 현상의 공통적 주제의 출현 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경양, 김성현. (2020). AAC중심으로 특화된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성인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 *자폐성장장애연구*, 20(1), 103-128.
- 김고은, 김호신. (2019).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이 종사자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종사자 인식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사회복지연구*, 10(3), 216-245.
- 김대용, 김민희. (2024). 성인기 발달장애인복지 현장의 도전적 행동 교육과정 개발 요구 분석. *행동분석·지원연구*, 11(2), 1-26.
- 김미옥. (2023). 최종증 발달장애인 전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입 연구. 보건복지부, 전북대학교.
- 김미옥, 김고은. (2017).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에 관한 쟁점과 전망. *비판과사회정책*, 56, 59-94.
- 김선희. (2023).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평가 모형 설계: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3(4), 139-170.
- 김성중, 황정하. (2019).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인식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개입전략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연구*, 23(2), 1-27.
- 김영천. (2018).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민경심, 임장현. (2019). 통합학급 차원의 AAC중재가 일반학생의 장애인식이 자폐성장장애학생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보완대체의사소통연구*, 7(1), 47-75.
- 박광옥, 김용득, 이동석, 최지혜, 양해만. (2022). 발달장애인 지원 종사자 교육 수요 분석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청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박광옥, 우리진, 강한나. (2023). 도전적 행동 발달장애인 지원실태 및 교육 욕구 조사. 청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박광옥, 이동석, 김은서. (2017).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 연구: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35, 151-176.
- 박휴용. (2023). *인문사회 질적 연구 방법론*. 전북: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 보건복지부 (2024). 장애인 등록 현황(2023.12월 기준) <https://www.mohw.go.kr>(2024.12.12. 접근).
-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9).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 가이드.
-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2). 발달장애인 어러은행동 컨설팅 매뉴얼.
- 유기용,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22).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 유수진, 이은혜, 한정은. (2020). 성인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관련 현황 및 종사자의 인식에 대한 연구: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학*, 20(12), 383-392.
- 윤선미, 정이윤, 양호정. (2022). 초기 성인기 발달장애인 자녀의 도전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 과 경험. 정서·행동장애연구, 38(3), 411-440.
- 이병화, 이미영. (2018).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유형에 따른 신체적 개입과 종사자 소진과의 관계 연구: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전략의 조절 효과. 한국장애인복지학, 42, 77-105.
- 임해영, 이혁구. (2014). 양육 결정 미혼모의 초기 모성 경험에 관한 연구: 해석학적 근거이론 방법. 사회복지연구, 45(3), 35-69.
- 임해영. (2016). 49재에 참여한 유족들의 애도 경험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39(2), 237-271.
- 임해경, 박재국, 이연재. (2017). 발달장애 자녀의 성인기 삶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견해에 대한 근거 이론적 접근.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8(4), 289-326.
- 전경화, 김신호, 김혜경, 이형주, 임병우. (2019). 발달장애아 부모의 생애사를 통해 본 도전적 행동 돌봄 적응. 한국정책연구, 19(3), 25-45.
- 조혜희, 송주희, 이영선, 박은혜. (2025). 성인발달장애인 대상 AI 기반 보완대체의사소통 시스템 요구 분석. 특수교육, 24(1), 95-117.
- 채수정, 이희연, 홍기형. (2021). 의사소통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 어휘 목록 개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보완대체의사소통연구, 9(1), 1-26.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022). 2022년 장애인복지교육 네트워크 1차 실무협의체. 2022년 2월 21일.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024). 발달장애인 지원종사자 역량강화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정책변화는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동반하고 있는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2024년 2월 21일.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4). 2024년 정기총회. 209-238. 서울: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 Bruinsma, E., van den Hoofdakker, B. J., Hoekstra, P. J., de Kuijper, G. M., & de Bildt, A. A. (2023). Effects of positive behaviour support delivered by direct staff on challenging behaviours and quality of life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 multicentre cluster-controlled trial.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37(1), 1-13.
- Corbin, J., & Strauss, A. (2019). 근거이론 4판: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김미영, 정승은, 차지영, 강지숙, 권유림, 김윤주, 박금주, 서금숙 역). 서울: 현문사.
- Creswell, J. W., & Poth, C. N. (2023). 질적 연구 방법론 5가지 접근(4판)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California: Sage Publication (조흥식, 정신욱, 김진숙, 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
- Emerson, E. (1995). *Challenging behaviour: Analysis and intervention in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merson, E., & Einfeld. L. (2011). *Challenging Behaviou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merson, E., & Bromley, J. (1995). The form and function of challenging behaviours.

-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39(5), 388-398.
- Mark, H-L., Jane, E., Shona, D., Amy, C., Rosalind, B., & Victoria B. (2017). Everyone Thought I Was a Very Very Bad Person... No One Want to Know You Like the Nurses and Doctors' : Using Focus Groups to Elicit the Views of Adults with Learning Disability Who Use Challenging Behaviour Services. *British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45(4), 253-258.
- MacDonald, A., & McGill, P. (2013). Outcomes of Staff Training in Positive Behaviour Support: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Physical Disabilities*. 25(1), 17-33.
- McGill, C., & Breen, C. J. (2020). Can Sensory Integration Have a Role in Multi-Element Behavioural Intervention? An Evaluation of Factors Associated with the Management of Challenging Behaviour in Community Adult Learning Disability Services. *British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48(2). 142-153.
- Mullins, L., & Scott, V. (2023). A model for fostering community capacity to support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ho engage in challenging behaviour: A scoping review.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27(4), 1085-1106.
- Schall, C. M. (2010). Positive behavior support: Supporting adul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in the workplace.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32(2). 109-115.
- Simó-Pinatella, D., Günther-Bel, C., & Mumbardó-Adam, C. (2023). Addressing Challenging Behaviours in Children with Autism: A Qualitative Analysis of Teachers' Experi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bil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70(1), 18-31.
- Strauss, A., & Corbin, J., (1998).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Strauss, A., & Corbin, J., (2001).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신경림 역). 서울: 현문사.

Abstract

How do social workers experience the challenging behavior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adults?

Hyoung Wol, Choi*, Hae Young, Lim**

This study is an experiential study on the challenging behaviors experienced by social workers who support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adults, and aims to find a point of discussion on welfare for the disabled that can support both. Therefore, this study selected 10 social workers with more than three years of experience in providing service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adults and analyzed them using the grounded theory method of Strauss and Corbin (1998). As a result of the analysis, 14 categories were proposed: "deficient desire," "influence of surrounding environment," "negative psychological mechanism that gradually amplifies," "internal conflict," "automatic reflex response," "self-reproach for immature coping," "active attitude and effort to understand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ore deeply," "conflict situations given by the surrounding system," "reasons for intention to change jobs," "source of support and motivation," "a wider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I' who grows together with competence and reflection," "the importance of active support and support at the institutional level," and "the need for support at the institutional level" were proposed.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practical and policy discussions to support and support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 Ph.D. in Social Welfare from Yemyung Graduate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Yemyung Graduate University



adulthood and social workers who provide care services to them.

Keywords : Social worke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hallenging behavior, Strauss and Corbin's grounded theory

논문 투고 : 2025.04.13.	논문 심사 : 2025.05.28.	게재 확정 : 2025.06.16.
---------------------	---------------------	---------------------



장애의재해석 제6권 제1호

2025 Vol. 6, No. 1, 105 - 135

‘접근성 매니저’의 직무 모형 분석 : 문헌분석, 설문조사 및 FGI를 통한 도출과 검증*

최보경**, 최보연***, 정종은****

본 연구는 문화예술 현장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문 인력으로서 ‘접근성 매니저’의 직무를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구조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접근성 매니저’는 아직 제도적 기준이나 명확한 역할 규정이 부재한 신생 직업으로, 본 연구는 문헌분석, 설문조사,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직무 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먼저 국내외 사례를 기반으로 문헌분석을 수행하여 접근성 매니저의 직무를 ‘접근성 기획 관리’, ‘접근성 교육’, ‘접근성 기술지원’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총 14개의 책무(duty)와 111개의 작업(task)을 도출하였다. 이후 접근성 매니저먼트 실천 경험이 있는 국내 활동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FGI를 실시하여 직무 정의 및 책무와 작업 분류의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접근성 매니저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를 제안하였으며, 이는 향후 교육과정 개발, 정책 수립 등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장애인 접근성, 접근성 매니저, 접근성 매니저 직무, 접근성 매니저 책무, 접근성 매니저 업무

* 이 논문은 연구진이 참여한 『2024 접근성 매니저 직무 분석 및 양성 과정 개발』(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25)의 일부를 재구성하여 수정 및 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박사과정

***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부교수, jjekorea@pusan.ac.kr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문화예술 현장에서 ‘접근성 매니저’ 직무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5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설립을 기점으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공동 발간한 『문화시설별 접근성 가이드』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관련 기관의 노력으로 장애인 접근성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전담할 전문 인력으로서 ‘접근성 매니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함께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활동가들(강보름, 고주영, 박지선, 이지혜, 2021; 고주영, 2023; 고주영, 김민술, 김지수, 이진희, 2023; 권지현, 김은정, 이충현, 박지선, 2022; 김수현 2023; 이강은 2022; 장슬기 2024) 및 연구자들(최석규, 장수혜, 2020; 김중진, 이혜나, 김민정, 2023; 조현성, 김홍규, 정병은, 최보연, 최선영, 2024; 정종은, 최강찬, 강지섭, 2024; 최보연, 정종은, 2025; 정종은, 최보연, 2025)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매니저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체계적인 직무기술(job description)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¹⁾

학술연구로서 처음으로 ‘접근성 매니저’를 제목에 담고 있는 논문은 《장애의 재해석》 제 5권 제2호에 실린 「해외 주요국의 ‘접근성 매니저’ 직무 현황 분석: 접근성 매니저 채용 공고 분석을 중심으로」(정종은 외, 2024)인데, 이 연구는 영국·호주·캐나다·미국·프랑스·일본의 ‘접근성 매니저’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접근성 매니저의 직무를 ‘접근성 기획 관리자’, ‘접근성 교육 전문가’, ‘접근성 기술지원 전문가’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해외의 사례를 바탕으로 거시적인 직무 분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향후 국내에서 접근성 매니저 관련 논의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하여 이어지면서 해당 직무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즉, 2010년대 중후반부터 공연예술계에서 일부 연출가, 기획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시작된 접근성 매니저 업무(최보연, 정종은, 2025)가 최근에는 시각예술 분야(김현경, 2020) 및 문화예술교육 분야(최선영, 2024)로도 확산되고 있는바, 향후 체계적인 정책 과제로 접근성 매니저 및 접근성 매니지먼트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접근성 매니저가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인력인지를 보

1) 최석규와 장수혜(2020)는 국립극단을 중심으로 접근성 매니저의 필요성을 고민하면서 네 가지 직무를 도출하였다. 김중진 외(2023)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미래 유망 신직종 발굴이라는 견지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접근성 매니저에 주목하면서, 세부 직무를 여섯 가지로 제안하였다. 조현성 외(2024)는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주목한 가운데, 접근성 매니저의 부상이라는 현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최보연 외(2025), 정종은 외(2025)는 각각 접근성 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접근성 매니지먼트 제고를 위한 탐색적 연구를 실행하였다.

다 분명한 형태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직무분석의 필요성은 장애인 관련 혹은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장애인 관련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2002)의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관리운영요원 직무분석 및 배치방향 연구」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4)의 「장애인직업능력평가사 직무분석」이 초기 연구로서 조직의 배치와 직무별로 요구되는 기술·역량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이은실(2020)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양성교육 과정 개선 방안을 모색하면서 현장의 실습 운영과 교육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도출하였다. 한편,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문화관광부(2005)의 「문화예술 기획·경영분야 전문 인력 형성 구조 분석과 인력정책 방향 연구」가 초기 분석 연구로 문화예술 기획·경영 인력의 직무와 경력구조를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홍애령과 임수진(2020)이 예비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현황과 직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역할을 심도 있게 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장애인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가 각자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 두 영역을 아우르는 '접근성 매니저'라는 새로운 전문 인력의 직무를 새롭게 규정하기에는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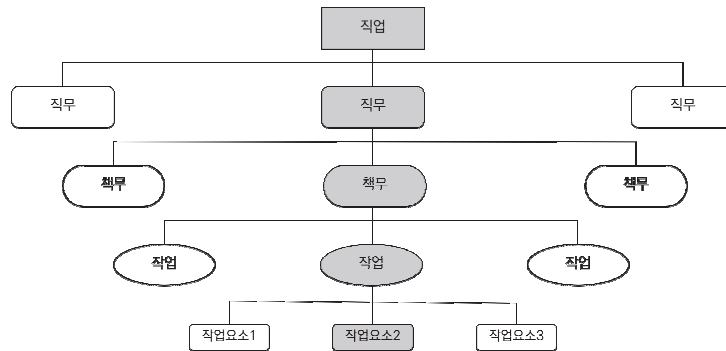
반면, 해외에서는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장애와 문화예술을 통합한 접근성 매니저 직무를 제도화하여 모두의 문화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정종은 외(2024)가 제시한 해외 여섯 개 국가의 접근성 매니저 채용 공고의 분석 결과를 출발점으로 삼되, 체계적인 직무 모형 도출을 위한 절차 및 분석틀을 탐색·도입하고 국내외 관련 문헌분석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된 접근성 매니저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실제로 국내에서 접근성 매니저 활동을 전개해온 당사자들의 관점과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함으로써 접근성 매니저 직무 모형을 검증하고 타당성을 제고할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접근성 매니저의 직무 모형 도출, 직무 모형 검증, 직무기술서 작성을 핵심적인 내용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직무분석은 특정 직무의 내용과 수행 기준, 요구 역량을 명확히 정의하고 구조화하는 작업으로, 조직 내 직무 설계, 인력 배치, 교육 훈련, 성과평가 등 인사·조직 운영의 핵심 기반이 된다(행정안전부, 2008). 그러나 접근성 매니저와 같이 새롭게 형성되었거나 제도화 초기 단계에 있는 직업은 정체성과 실천적 범위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기준이 부재하기에, 이를 가시화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작업가설적 프레임으로서 직무 모형을 제시하였

다. 이는 신생 직업의 역할을 구조화하여 후속 검증을 위한 좋은 기준점이 되며 체계적인 검증을 통해 정책 설계 및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 문서로 정교화될 수 있다.

[그림 1]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직무 구조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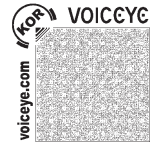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직무 관련 용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개발한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에서는 직업(Occupation)을 “주요 작업과 책무(tasks and duties)가 매우 높은 유사성을 지닌 직무(job)의 집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²⁾ 여기서 직무(job)란 “자영업을 포함하여 특정한 고용주를 위해 개별 종사자가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해야 할 일련의 작업과 책무(tasks and duties)”로 정의된다. 다시 책무(duty)란 공통의 목적이나 연관성을 지닌 작업의 집합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여기서 작업(task)이란 한 개의 직무를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나눈 직무분석의 가장 작은 단위로서 자체로 독립할 수도 있고, 측정이 가능한 행동의 범위라고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작업 요소(task element)란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동, 단계, 혹은 의사결정을 말하며, 작업 목록의 작업 요소는 작업수행자의 행동을 세부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으로 각 작업의 진행단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상을 종합하자면, ILO의 직무 구조 체계는 위의 [그림 1]과 같이 ‘직업-직무-책무-작업-작업요소’라는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³⁾

이러한 구조적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 매니저 직무분석’을 위한 방법으로서 문헌분석,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이는 분석할 대상 직업에 관한 참고

2)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12).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ISCO-08. 1 v. Geneva: ILO, p. 11.

3) [그림 1]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직업교육훈련과정 개발을 위한 직무분석. 제16-1681호. 31~32쪽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문헌 혹은 자료가 드물고, 그 분야의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 거의 없을 때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최초분석법(New Analysis Method)’의 궤적을 따르고자 한 것이다(한국 직업능력개발원, 2001: 22~25).

먼저 ‘문헌분석’을 통해서는 접근성 매니저 직무와 관련한 해외 여섯 개 국가의 채용 공고 분석을 기반으로 국내 보고서, 학술논문 등 관련 문헌을 분석한 결과를 체계적으로 그룹화(grouping)하여 직무 모형의 초안을 도출하였다.⁴⁾ 한편 ‘직무 관련 설문조사’는 접근성 매니저먼트 경험이 있는 접근성 매니저/활동가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바, 접근성 매니저 직무 정의의 적절성 및 직무에 관한 세 가지 분류의 타당성을 일차적으로 점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다음으로 ‘전문가 인터뷰’ 역시 접근성 매니저먼트 경험이 있는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FGI(Focus Group Interview)의 형식으로 연구진이 도출한 직무 모형에 관한 추가적인 검증을 위해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직무’ 정의의 적절성에 관한 검증에서 시작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인 층위에서 ‘책무’와 ‘작업’에 관한 분석의 타당성까지 검토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전반적인 절차와 절차별 방법 및 주요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본 연구의 절차 및 방법

단계	절차	방법	주요 내용
1단계	직무 모형 도출	문헌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및 직무 정의 도출 • 직무별 책무 도출 • 책무별 작업 도출
2단계	직업 및 직무 정의 검증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정의 적절성 검증 • 직무 정의 타당성 검증
3단계	직무, 책무, 작업 정의 및 내용 검증	F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 정의 적절성 검증 • 책무 적절성 검증 • 작업 적절성 검증
4단계	직무기술서 작성	분석 종합 및 서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별 상세 기술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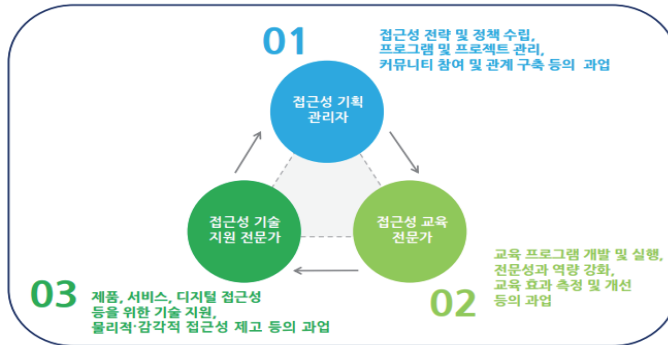
4) 문헌분석 단계에서의 직무 모형(안)은 ‘접근성 매니저’의 직무·책무·작업의 ‘작업가설적 정의(working definition)’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는 바, 이러한 내용은 국내에서 ‘접근성 매니저’란 호칭으로 불리는 전문가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미래에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역할도 포함하였다.

II. 문헌분석: 접근성 매니저 직무 모형 도출

1. 접근성 매니저의 직업 및 직무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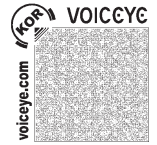
전술하였듯이,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접근성 매니저' 직무 현황 분석」(정종은 외, 2024)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위 연구는 접근성 매니저의 직업(occupation)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국·캐나다·호주·미국·프랑스·일본의 접근성 매니저 채용 공고를 분석함으로써 귀납적인 방식으로 접근성 매니저라는 직업을 구성하는 세 가지 직무(job)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림 2] 접근성 매니저의 세 가지 직무



출처 : 정종은 외(2024: 252)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직무의 상위에 존재하는 '접근성 매니저' 직업 정의는 무엇일까? 최보연 외(2024; 2025)는 접근성에 대한 개념적·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접근성을 “장애인을 포함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개별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의 창작·향유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에 동등하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적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종은 외(2025)는 접근성 매니저를 “장애인 및 모든 이들이 동등한 권리로써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물리적, 감각적, 정보적, 사회문화적 장벽 등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완화하는 전문인력”이라는 작업가설적 정의(working definition)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접근성 매니저의 세 가지 직무별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2〉 접근성 매니저의 세 가지 직무별 정의(안)

직무명	직무 정의
접근성 기획 관리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문화예술을 평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접근성 작품·행사·시설·서비스 전반의 접근성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접근권을 강화하는 일
접근성 교육	학습자, 기관,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접근성 교육 수요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접근성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그 운영 결과를 평가하는 일
접근성 기술지원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양한 접근성 기술을 발굴·도입·관리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기획하고 매개하는 일

2. 접근성 매니저의 책무 및 작업 풀(pool)의 구성

다음으로는 접근성 매니저의 직업 정의 및 세 가지 직무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국내의 선행연구들 및 해외의 채용 공고들에서 확인되는 접근성 매니저의 책무 및 작업에 관한 내용을 수집하여 책무의 풀(pool)을 구성하였다. 접근성 매니저가 감당해야 할 책무는 국내의 문헌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총 326개를 도출하였고, 작업은 책무별로 핵심적인 것들을 선별하여 각각 2~5개 수준으로 도출하였다.

먼저 국내 문헌분석은 『문화시설별 접근성 가이드: 총론편』, 『국립극단 장애와 연극 창작·제작 방향성 연구』, 『2023 국내의 직업비교 분석을 통한 신직업연구』를 대상으로 접근성 매니저의 책무와 작업을 도출하였는바, 아래는 그중 『문화시설별 접근성 가이드 총론편』에서 도출한 6개의 책무(duty)와 19개의 작업(task)의 내용이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두 개의 연구 결과 역시 분석 및 재구조화하여, 총 16개의 책무와 책무별 세부 작업을 도출하였다.

〈표 3〉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24)에서 도출한 접근성 매니저 책무(1~6)

순번	책무	작업	출처
1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내 휠체어 접근로 관리 • 점자블록 관리 • 장애인 화장실 관리 • 장애인 안내 시스템 구축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24)
2	장애인을 위한 관람 서비스 개발 및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보조 장치 활용 계획 • 점자 안내서 개발 및 제공 • 촉각 지도 개발 및 제공 • 촉각투어 개발 및 제공 • 포용적 디자인 서비스 방안 마련 	
3	프로그램 및 이벤트의 접근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유형을 고려한 이벤트 계획 	
4	정보 제공 및 커뮤니케이션의 접근성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 접근성 콘텐츠 기획 • 매표소/정보데스크 운영 방안 마련 	

순번	책무	작업	출처
5	접근성 및 장애 감수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 직원 교육 자원봉사자 대상 인식 교육 접근성 지원 방법 교육 프로그램 기획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2024)
6	기관 내부 접근성 정책 개발 및 평가 기준/ 가이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근성 가이드라인 수립 접근성 프로그램 평가 접근성 시설 평가 개선사항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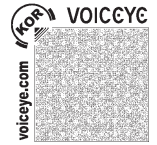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해외 자료를 분석하여 책무 풀을 추가로 도출했다. 책무 17~79까지는 영국의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추가하였는바, Accessibility Officer(책무 17~22), Disability Arts Officer(책무 23~28), Inclusive Arts Coordinator(책무 29~34), Access Coordinator(책무 35~40), Equality, Diversity, and Inclusion (EDI) Manager(책무 41~47), Access Advisor(책무 48~53), Audience Development Manager(책무 54~59), Access Producer(책무 60~65), Head of Access and Learning(책무 66~72), Community and Access Manager(책무 73~79)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무와 작업을 데이터베이스화했다.

한편 책무 80~122까지는 미국의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정리했다. Accessibility Program Manager(책무 80~85), Accessibility Coordinator(책무 86~91), Disability Arts Coordinator(책무 92~97), Inclusive Programs Coordinator(책무 98~103), Accessibility Consultant(책무 104~109), Community Engagement Manager(책무 110~116), Digital Accessibility Specialist(책무 117~122)에 관한 자료가 그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캐나다의 자료 분석을 통해서도 책무 123~177을, 프랑스의 자료 분석으로 책무 178~228이 도출되었다. 호주의 자료 분석을 통해서도 책무 229~290이 도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일본의 자료 분석을 통해서도 책무 291~326이 도출되었다. <표 4>는 책무와 작업 풀의 구성을 위해 가장 마지막으로 분석한 일본의 ‘포용적 프로그램 코디네이터(インクルーシブプログラムコーディネーター)’의 책무 및 작업 관련 내용이다.

<표 4> 일본 자료에서 도출한 접근성 매니저 책무(320~326)

순번	책무	작업	출처
320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용적 문화 프로그램 기획 이벤트 및 워크숍 운영 	일본 인클루시브프로그램 코디네이터 (포용적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321	교육 자료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근 가능한 자료 제작 대체 형식 제공 (큰 글자, 점자, 오디오 등) 	
322	참여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참여 지원 개별 요구 사항 대응 	
323	평가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효과 평가 개선 방안 제시 	



순번	책무	작업	출처
324	홍보 및 아웃리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사용자와의 사용성 테스트 디지털 경험 개선을 위한 피드백 수집 디자인 단계에서 지원 	일본 인클루시브 프로그램 램코디네이터 (포용적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325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결과 및 권고사항 보고 시정 조치 계획 수립 	
326	기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 기술 도입 및 활용 지원 디지털 접근성 표준 제공 	

3. 책무의 그룹화(grouping)를 통한 직무-책무-작업 모형(안)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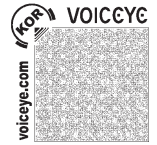
위에서 도출한 326개의 책무는 국내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여러 국가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도출한 것으로 상호 간에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역할의 목적과 문화예술 현장 적용성 등의 기준을 중심으로 유사한 책무들을 묶고 반복되는 책무들을 통합 또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그룹화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총 14개의 책무를 추출할 수 있었다.

- A.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관리, B. 접근성 경영기획 및 운영, C. 접근성 문화예술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관리, D. 접근성 정책 기획 및 평가, E. 사용자 서비스 제공 및 관리, F. 접근성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G.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H. 커뮤니티 참여 및 협력, I. 접근성 정책 교육, J. 접근성 콘텐츠 기획 및 품질 관리, K. 접근성 기술지원 기획 및 구현, L. 접근성 기술 평가 및 개선, M. 접근성 장비 관리, N. 디지털 접근성 기획 및 관리.

책무별 작업(task)도 같은 방식으로 선별하였는바, 이와 같은 책무(duty)와 책무별 작업(task)을 앞서 도출한 직무(job) 정의에 따라 직무별로 배치하면 아래의 <표 5>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서로 중첩되는 영역으로 인해 분류가 어려운 예도 있었지만, ‘접근성 기획 관리’는 접근성 전략 수립과 운영 및 관리, ‘접근성 교육’은 인식 개선과 인적 역량 강화, ‘접근성 기술지원’은 다양한 기술의 실행 지원이라는 직무별 핵심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책무와 작업을 분류하였다. 요약하자면, 본 단계에서의 분석 및 재구조화 결과, 접근성 매니저의 직무 모형은 총 3개의 직무 아래 14개의 책무와 108개의 작업으로 구성되었다.

〈표 5〉 접근성 매니저의 직무-책무-작업 모형(안)

직무	책무	작업
접근성 기획 관리	A.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 가이드라인 확인 및 반영 • 시설 접근성 탐색 및 장벽 발견 • 물리적 접근성 평가 및 개선 방안 제시 • 통합적 문제점 리스트 작성 및 관리 • 접근성 기획안 작성 • (시설팀과 협력) 유지보수 관리 • 주기적 모니터링 수행 • 사용자 인터뷰,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 개선된 환경의 접근성 재검토
	B. 접근성 경영기획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 비전 및 목표 설정 • 접근성 전략계획 수립(장·단기 계획, 예산 추산, 성과지표 정의) • 접근성 전략 실행 및 모니터링 • 채용 및 인사 지원 • 조직 내부 커뮤니케이션 강화 • 외부 커뮤니케이션 및 관계 관리 • 접근성 관련 법·규제·표준 변경사항 모니터링 후 전략 업데이트 • 접근성 관련 국제 동향 조사 및 벤치마킹 • 조직 내 접근성 문화 확산을 위한 경영진 브리핑 및 정책 지원 요청 • 성과 평가 및 내부 보고용 접근성 성과 보고서 작성(분기/연간)
	C. 접근성 문화예술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 문화예술 프로젝트 선정 • 기존 접근성 문화예술 프로젝트 접근성 상태 분석 및 평가 • 접근성 문화예술 프로젝트 기획 전략 수립 • 접근성 문화예술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 관계 기관 및 관계 부서와 접근성 협업 계획 수립 • 접근성 예산 관리 및 기금 모금 활동 진행 • 프로젝트 인력구성 및 관리 • 접근성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감독 선정 • 정보 제공 및 커뮤니케이션의 접근성 방안 마련 • 소셜 미디어 및 이벤트 활용 마케팅 • 홍보·마케팅 및 관객 개발 • 네트워킹 및 자원 확보 • 접근성 실행 위기관리 • 접근성 실행 안전관리
	D. 접근성 정책 기획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내부 정책 및 지침 검토(현행 접근성 표준 반영 여부 확인) • 법률·규정 파악 및 준수 전략 수립 • 정책 개정 초안 작성 및 관련 부서 의견 수렴 • 최종 정책 문서화 및 사내 공지(내부 포털, 이메일) • 접근성 정책 연구 및 제안 • 정책 변경 사항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및 교육 자료 제작 • 정책 준수 상태 점검(내부 감사, 점검 보고서 작성) • 정책 효과성 평가(정량·정성 지표 기반)
	E. 사용자 서비스 제공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 서비스 매뉴얼 개발 • 예매 및 문의 응대 프로세스 구축 (전화, 온라인 채널 관리) • 휠체어 좌석 배치 관리 • 예매 시스템 개선 협의 • 현장 안내 인력 배치 및 교육 • 서비스 이용 현황 모니터링(티켓 판매 데이터, 만족도 조사) •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수집(고객 설문, 피드백 시스템 운영) • 긴급 상황(응급 의료 지원, 긴급 대피) 매뉴얼 수립 및 훈련
접근성 교육	F. 접근성 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 교육 요구사항 분석 (직원, 경영진, 외부 이해관계자) • 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직무	책무	작업
	설계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방법 및 범위 설정(다회 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 교육 일정 및 예산 계획 수립 교육 강사 섭외 및 강사 관리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준비 및 운영(장애유형별 접근성 고려) 교육 참가자 피드백 수집 및 반영(교육 후 설문, 인터뷰) 교육 성과 평가(지식 향상도, 만족도 측정) 및 개선안 도출
	G.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측면에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프로젝트 대상 선정(예: 직원 접근성 역량 강화 프로젝트) 프로젝트 목표·범위·일정·예산 수립 프로젝트 관련 부서/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교육 부서, IT 팀, 외부 전문가 등) 프로젝트 실행(교육 콘텐츠 개발, 워크숍, 세미나 개최) 진행 상황 모니터링(마일스톤 점검, 예산 집행 확인) 성과 평가(프로젝트 완료 후 만족도 조사, 역량 변화 측정) 개선사항 반영 및 차기 프로젝트 계획 업데이트
	H. 커뮤니티 참여 및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커뮤니티의 접근성 요구 파악(인터뷰, 설문, 현장 방문) 커뮤니티 맞춤형 접근성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역 단체·비영리기관과 협력 프로젝트 추진(워크숍, 세미나 공동 개최) 소외된 그룹 대상 참여 촉진 이니셔티브 개발 커뮤니티 이벤트·축제에서의 접근성 교육 세션 운영 커뮤니티 피드백 수집 및 개선사항 반영 커뮤니티 네트워크 확대(신규 협력 파트너 발굴, 협약 체결)
	I. 접근성 정책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내부 접근성 정책·지침 내용분석 및 정리 정책 교육용 자료 개발(정책 요약문, 가이드, Q&A) 정책 관련 법·규제 변경사항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업데이트 정책 준수 필요성 및 사례 중심의 교육 세션 기획 정책 교육 대상자(직원, 자원봉사자, 파트너) 선정 및 교육 일정 조율 정책 교육 효과 평가(정책 이행률, 이해도 측정) 지속적인 정책 교육 콘텐츠 개편 및 가이드라인 재공지
접근성 기술지원	J. 접근성 콘텐츠 기획 및 품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근성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구축(음성해설, 자막, 대체 텍스트 등) 콘텐츠 기획(대상, 형식, 분량) 및 제작 일정 수립 콘텐츠 품질 테스트(사용자 테스트, 접근성 검사 툴 활용) 오류 및 개선점 식별 후 수정(불명확한 자막, 시각 자료 대체 텍스트 재작성) 최종 승인 전 품질 검수 및 산출물 관리(버전 관리, 백업) 콘텐츠 접근성 유지·개선 위한 정기 점검 및 업데이트
	K. 접근성 기술지원 기획 및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근성 니즈 분석 후 적합한 접근성 기술지원 솔루션 (보조기기, 소프트웨어) 기획 새로운 접근성 기술 도입 및 프로토타입 테스트 개발자와 디자이너 협업으로 접근성 기능 구현(스크린 리더 호환성, 음성명령 등) 기술지원 도입 일정 및 예산 계획 수립 사용자 대상 기술지원 서비스 안내 및 교육(이용 방법, 문의 대응) 도입 기술의 작동 안정성 검증 및 문제 해결
	L. 접근성 기술 평가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입된 접근성 기술 솔루션 성능 평가(사용빈도, 오류 발생률 등) 사용자 피드백 수집(장애인 사용자 인터뷰, 설문) 성과 지표(KPI)에 따른 기술지원 효과 분석 개선사항 도출 및 차기 기술 업데이트 계획 반영 최신 기술 동향 파악 및 벤치마킹을 통한 개선안 제안 평가 결과를 문서화하고 관련 부서 공유
	M. 접근성 장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근성 관련 장비(보조공학 기기, 장비 대여품) 재고 파악 및 유지보수 계획 수립 장비 사용 절차·지침 마련(대여 신청 프로세스, 반납 기준) 주기적 장비 점검 및 수리·교체 관리

직무	책무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비 이용 현황 모니터링(이용 빈도, 이용자 만족도) 장비 관련 불편사항 또는 고장 접수 및 신속 대응 필요 시 장비 확충(신규 장비 구매, 성능 높은 모델 도입) 및 예산 계획 반영
	N. 디지털 접근성 기획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플랫폼 접근성 평가(자동화 툴, 수동 테스트) 디지털 접근성 개선 전략 수립(KWCAG 기준 반영, UI/UX 개선) 개발자 협업 통한 접근성 기능 구현 디지털 경험 개선을 위한 사용자 피드백 수집 및 반영 디지털 접근성 정책·가이드라인 개발 및 업데이트 지속적인 준수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III. 설문조사 결과: 직무 모형 1차 검증

1. 설문조사 개요

II장에서 도출한 접근성 매니저의 직무 모형에 대해서 연구진은 접근성 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FGI를 활용하여 두 차례의 검증을 진행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먼저 설문조사 결과를 서술하고자 하는바, 설문조사는 일차적인 검증을 위해서 해외사례 및 국내 문헌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접근성 매니저 직업(occupation)의 정의 및 세 가지 직무(job)에 대한 정의의 적절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설문조사는 구글 링크를 활용하여 조사 참여자가 온라인에 직접 접속하여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기간은 2024년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8일간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은 접근성 매니저/활동가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조사의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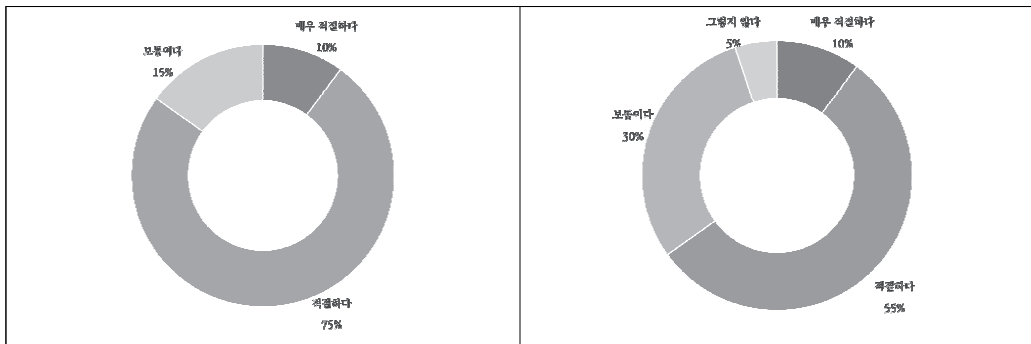
〈표 6〉 설문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성별)

응답자	평균연령	성별	
		남	여
3	29세 이하	2	1
12	30~39세	1	11
5	40~49세	1	4
0	50~59세	0	0
0	60세 이상	0	0
전체		4	16

2. 접근성 매니저 직업(occupation) 정의의 적절성

앞서 서술한 접근성 매니저의 정의, 즉 ‘장애인 및 모든 이들이 동등한 권리로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물리적, 감각적, 정보적, 사회문화적 장벽 등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완화하는 전문인력’이라는 정의에 대해 접근성 매니저 자신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접근성 매니저들은 ‘적절하다’는 의견(15명/75%)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3명/15%), ‘매우 적절하다’(2명/10%) 순이었다. ‘별로 적절하지 않다’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선택지에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약 85%의 접근성 매니저들이 위에서 제시한 ‘접근성 매니저 직업에 대한 정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접근성 매니저 ‘직업’ 정의의 적절성 [그림 4] 접근성 매니저 ‘직무’ 분류의 적절성



3. 접근성 매니저 직무(job) 정의의 적절성

한편 [그림 2]와 <표 2>에서 제시한 접근성 매니저의 직무 분류에 따라, 연구진은 설문조사 참여자들에게 접근성 매니저의 직무를 ①접근성 기획 관리, ②접근성 교육, ③접근성 기술지원으로 분류한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고 이러한 분류 및 정의의 적절성을 질문하였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질문에 대해서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적절하다’는 의견(11명/5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통이다’라는 의견(6명/30%), ‘매우 적절하다’라는 의견(2명/10%) 순으로 응답이 이루어졌다. 긍정적인 답변이 총 65%로 이 역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직업 정의의 경우(85%)와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가 응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외에서 이루어진 ‘접근성 매니저’ 직무 구분을 국내에 적용할 때는, 상황이 사뭇 다를 수 있다는 접근성 매니저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IV. FGI 결과: 직무 모형 2차 검증

1. FGI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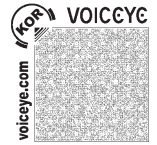
설문조사를 통한 직무 모형 1차 검증 이후 설문조사 참여자 중에서 접근성 매니지먼트 관련 활동 이력이 깊은 현장 전문가(SME: Subject Matter Expert) 7명을 대상으로 FGI를 통해 직무 모형에 대한 2차 검증을 실행했다. 이들은 모두 접근성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실제로 활동하며 직무 현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야별 핵심 전문가들로, 특히 '접근성 매니저' 개념의 국내 도입과 확산에 기여한 선구자도 포함되어 있다. 인터뷰는 비대면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진이 준비한 자료와 질문지를 사전에 제공하되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인터뷰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외에도 직무 모형 상에 표기된 작업(task) 중에서 핵심 작업을 판별하기 위한 서면조사 역시 동시에 수행했다.⁵⁾ 7명의 인터뷰 대상자의 주요 활동 분야는 아래와 같다.

〈표 7〉 인터뷰 참여자 목록

순번	연령대	성별	활동 분야
1	40대	여	공연
2	40대	여	문화예술 교육
3	30대	여	공연
4	30대	여	전시
5	20대	여	공연
6	30대	여	문화예술 기획
7	30대	여	공연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업 정의와 직무 정의에 대한 접근성 매니저들의 개략적인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다면, FGI를 통해서도 II장에서 도출한 직무 모형에 관하여 보다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 즉, 접근성 매니저의 직무(job)는 물론이고 책무(duty)와 작업(task)의 층위에서도 연구진이 도출한 분석 결과를 확인하여 적절성을 검토하고 수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FGI를 통해 확인한 접근성 매니저들의 의견을 분석한 내용은 아래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5) 인터뷰는 평균 두 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화상회의를 녹화하고 전사한 후에 분석을 진행했다. '핵심 작업' 판별을 위한 서면조사는 인터뷰 종료 후에 참여자들이 중요도를 표기하여 제출하였는바, 총 일곱 명 중 다섯 명의 인터뷰이가 서면조사에 응했다.



2. 접근성 매니저의 직무·책무·작업 정의 검토

1) 접근성 매니저의 세 가지 직무(job) 정의에 관하여

세 가지 직무 분류 및 직무별 정의에 대한 검토에서는 대체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FGI를 통해서도 제시되었으나, 일부 직무 정의 문구에 대한 수정 의견도 여럿 제시되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접근성 매니저들이 제시한 직무 정의 관련 수정 의견은 다음 <표 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8> 접근성 매니저의 세 가지 직무 정의 관련 수정 의견

직무명	직무 정의	수정 의견
접근성 기획 관리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문화예술을 평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접근성 작품·행사·시설·서비스 전반의 접근성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접근권을 강화하는 일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문화예술을 평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u>장애 유형과 조건을 고려한 물리적/감각적, 서비스/콘텐츠 및 사회문화적 차원의 접근성 전략</u> 전반을 기획 및 실행하며,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접근권을 <u>제고하는 일</u>
접근성 교육	학습자, 기관,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접근성 교육 수요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접근성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그 운영 결과를 평가하는 일	접근성에 대한 폭넓은 인식 개선 및 실질적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u>접근성에 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요자 특성에 맞춰 설계 및 운영, 평가를 담당하는 일</u>
접근성 기술지원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양한 접근성 기술을 발굴·도입·관리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기획하고 매개하는 일	<u>실질적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접근성 관련 물리적, 감각적 기술 및 도구 등을 발굴·도입·관리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u>

2) 접근성 매니저 직무별 책무(duty)의 적정성에 관하여

접근성 매니저의 직무별 책무와 책무 정의에 대한 검토에서는 대체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나, 몇 가지 구체적인 수정 의견이 존재했다. 14개의 책무 중에서 다음의 네 가지 수정 의견이 제시되었다. 첫째, ‘접근성 기획 관리’ 직무의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관리’ 책무의 경우 ‘접근성 기술지원’ 직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접근성 실행 차원에 가깝다는 판단에 따라 ‘접근성 기술지원’ 직무의 책무로 수정 배치하였다. 둘째, 같은 직무 내의 ‘접근성 문화예술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관리’ 책무의 경우 연구진이 제시한 정의가 접근성 매니저가 접근성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오독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시되었으며, 이에 접근성 매니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책무의 경우 ‘유관기관 및 부서와 협력’하여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는 전문 인력임을 추가로 명시하였다.⁶⁾ 셋째, ‘접근성 기술지원’ 직무로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관리’ 책무를 이동하면

6) 예를 들어, ‘접근성 문화예술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관리’ 책무에서 홍보 및 마케팅은 홍보팀에서 주관하는 업무이며, 접근성 매니저는 홍보팀과 협력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 일반적인 문화기관에서 시설팀의 주관업무이기 때문에 접근성 매니저가 시설팀과 협력하여 ‘함께’ 배리어를 발굴하고 개선지원을 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서술하였다. 넷째, ‘접근성 기술지원’ 직무에서 마지막 책무로 제시된 ‘디지털 접근성 기획 및 관리’의 경우에는 사용자 피드백과 정책·가이드라인의 유기적 연계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책무 정의를 “웹사이트, 앱, 디지털 콘텐츠 등의 온라인 환경에서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평가·개선 전략을 수립하여 개발자와 협업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내부 정책·가이드라인을 개발·업데이트하여 디지털 접근성을 지속하여 향상하는 일”이라고 수정하였다.

3) 접근성 매니저 책무별 작업(tasks)의 적정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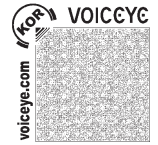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책무별 작업의 정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는바, 마찬가지로 대체로 타당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특별히 ‘접근성 교육’ 직무의 경우에는 수정 의견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표 5>에서 제시된 108개 작업에 대한 접근성 매니저들의 삭제, 추가 등 수정 의견을 종합하면, 아래의 <표 9~10>과 같다.

<표 9> 접근성 기획 관리 직무 내의 ‘작업 정의’ 수정 의견

1. 접근성 기획 관리		
책무	작업	수정 의견
접근성 경영기획 및 운영	조직 내부 커뮤니케이션 강화	조직 내부 커뮤니케이션 강화 (개발, 디자인, HR 등 조직 내 부서와 협업 및 접근성 목표 통합)
	외부 커뮤니케이션 및 관계 관리	(정부, 커뮤니티, 고객 등) 외부 커뮤니케이션 및 관계 관리
접근성 문화예술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관리	소셜 미디어 및 이벤트 활용 마케팅	접근성 소셜 미디어 및 이벤트 활용 마케팅 지원
	홍보·마케팅 및 관객 개발	접근성 홍보·마케팅 및 관객 개발 지원
	-	(추가) 창·제작 프로젝트 유통 지원
	네트워킹 및 자원 확보	내외부 네트워킹 및 자원 확보

<표 10> 접근성 기술지원 직무 내의 ‘작업 정의’ 수정 의견

3. 접근성 기술지원		
책무	작업	수정 의견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관리	접근성 가이드라인 확인 및 반영	접근성 가이드라인 확인 및 반영
	통합적 문제점 리스트 작성 및 관리	통합적 문제점 리스트 작성 및 관리 지원
	접근성 기획안 작성	물리적 접근성 기획안 작성 지원
	(시설팀과 협력) 유지보수 관리	(시설팀과 협력) 유지보수 관리 지원
접근성 콘텐츠 기획 및 품질관리	주기적 모니터링 수행	주기적 모니터링 수행 지원
	-	(추가) 기술 전문가(수어통역사, 음성해설가 등) 섭외
접근성 기술지원 기획 및 구현	-	(추가) 기술 전문가(수어통역사, 음성해설가 등) 섭외



3. 접근성 매니저 책무별 우선순위 및 핵심 작업(key task) 선정

FGI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면조사를 통해서 접근성 매니저의 책무별 작업 중 핵심 작업을 도출하기 위해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작업의 중요도(importance)를 측정하였다. 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책무별로 제시된 작업 전체의 평균값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은 작업에 짙은 색깔 표시를 했다. 책무별로 평균값보다 더 높은 중요도를 갖는다고 평가 받은 '핵심 작업'에는 총 60개가 선정되었는바, 관련한 세부 내용은 아래 <표 11~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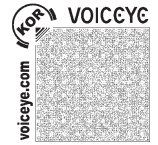
<표 11> '접근성 기획 관리' 직무 내의 '핵심 작업'

1. 접근성 기획 관리			
책무	작업	중요도	평균
접근성 경영기획 및 운영	접근성 비전 및 목표 설정	3.80	3.44
	접근성 전략계획 수립 (장·단기 계획, 예산 추산, 성과지표 정의)	3.40	
	접근성 전략 실행 및 모니터링	4.00	
	채용 및 인사 지원	3.60	
	조직 내부 커뮤니케이션 강화(개발, 디자인, HR 등 조직 내 부서와 협업-접근성 목표 포함)	3.80	
	(정부, 커뮤니티, 고객 등) 외부 커뮤니케이션 및 관계 관리	3.80	
	접근성 관련 법·규제·표준 변경사항 모니터링 후 전략 업데이트	2.80	
	접근성 관련 국제 동향 조사 및 벤치마킹	3.60	
	조직 내 접근성 문화 확산을 위한 경영진 브리핑 및 정책 지원 요청	3.00	
성과 평가 및 내부 보고용 접근성 성과 보고서 작성(분기/연간)	2.60		
접근성 문화예술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관리	프로젝트 선정	3.20	3.39
	기존 접근성 문화예술 프로젝트 접근성 상태 분석 및 평가	3.00	
	접근성 문화예술 프로젝트 기획 전략 수립	3.60	
	접근성 문화예술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3.80	
	관계 기관 및 관계 부서와 접근성 협업 계획 수립	4.00	
	접근성 예산 관리 및 기금 모금 활동 진행	2.80	
	프로젝트 인력구성 및 관리	3.80	
	접근성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감독 선정	3.20	
	정보 제공 및 커뮤니케이션의 접근성 방안 마련	3.40	
	접근성 소셜 미디어 및 이벤트 활용 마케팅 지원	3.00	
	접근성 홍보·마케팅 및 관객 개발 지원	3.20	
	창·제작 프로젝트 유튜브 지원	3.00	
	내외부 네트워킹 및 자원 확보	3.20	
	접근성 실행 위기관리	3.80	
접근성 실행 안전관리	3.80		
접근성 정책 기획 및 평가	기존 내부 정책 및 지침 검토 (현행 접근성 표준 반영 여부 확인)	3.40	3.03
	법률·규정 파악 및 준수 전략 수립	3.20	
	정책 개정 초안 작성 및 관련 부서 의견 수렴	3.00	
	최종 정책 문서화 및 사내 공지 (내부 포털, 이메일 등)	3.60	
	접근성 정책 연구 및 제안	3.20	
	정책 변경 사항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및 교육 자료 제작	2.40	

	정책 준수 상태 점검 (내부 감사, 점검 보고서 작성)	3.00	
	정책 효과성 평가(정량·정성 지표 기반)	2.40	
사용자 서비스 제공 및 관리	관람 서비스 매뉴얼 개발(예: 공연 전 사전 안내, 보조도구 대여 절차)	3.80	4.00
	예매 및 문의 응대 프로세스 구축 (전화, 온라인 채널 관리 등)	4.00	
	휠체어 좌석 배치 관리	4.60	
	예매 시스템 개선 협의	4.00	
	현장 안내 인력 배치 및 교육	4.20	
	서비스 이용 현황 모니터링 (티켓 판매 데이터, 만족도 조사)	4.20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수집 (고객 설문, 피드백 시스템 운영)	3.00	
	긴급 상황(응급 의료 지원, 긴급 대피) 매뉴얼 수립 및 훈련	4.20	
전체 평균: 3.46			

〈표 12〉 '접근성 교육' 직무 내의 '핵심 작업'

2. 접근성 교육			
책무	작업	중요도	평균
접근성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접근성 교육 요구사항 분석 (직원, 경영진, 외부 이해관계자)	3.40	3.60
	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3.00	
	교육 방법 및 범위 설정 (다회 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	4.00	
	교육 일정 및 예산 계획 수립	3.40	
	교육 강사 섭외 및 강사 관리	3.60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준비 및 운영 (장애유형별 접근성 고려)	3.60	
	교육 참가자 피드백 수집 및 반영 (교육 후 설문, 인터뷰)	3.80	
	교육 성과 평가(지식 향상도, 만족도 측정) 및 개선안 도출	4.00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교육 측면에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프로젝트 대상 선정 (예: 직원 접근성 역량 강화 프로젝트)	2.80	3.40
	프로젝트 목표·범위·일정·예산 수립	3.40	
	프로젝트 관련 부서/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 (교육 부서, IT 팀, 외부 전문가 등)	3.00	
	프로젝트 실행 (교육 콘텐츠 개발, 워크숍, 세미나 개최)	4.20	
	진행 상황 모니터링 (마일스톤 점검, 예산 집행 확인)	3.60	
	성과 평가 (프로젝트 완료 후 만족도 조사, 역량 변화 측정)	3.40	
커뮤니티 참여 및 협력	개선사항 반영 및 차기 프로젝트 계획 업데이트	3.40	3.31
	지역 커뮤니티의 접근성 요구 파악 (인터뷰, 설문, 현장 방문)	3.20	
	커뮤니티 맞춤형 접근성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4.00	
	지역 단체·비영리기관과 협력 프로젝트 추진 (워크숍, 세미나 공동 개최)	3.80	
	소외된 그룹 대상 참여 촉진 이니셔티브 개발	3.40	
	커뮤니티 이벤트·축제에서의 접근성 교육 세션 운영	2.60	
	커뮤니티 피드백 수집 및 개선사항 반영	3.20	
	커뮤니티 네트워크 확대 (신규 협력 파트너 발굴, 협약 체결)	3.00	
접근성 정책 교육	조직 내부 접근성 정책·지침 내용 분석 및 정리	3.40	3.40
	정책 교육용 자료 개발 (정책 요약문, 가이드, Q&A)	3.20	
	정책 관련 법·규제 변경사항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업데이트	3.20	
	정책 준수 필요성 및 사례 중심의 교육 세션 기획	3.40	
	정책 교육 대상자(직원, 자원봉사자, 파트너) 선정 및 교육 일정 조율	4.20	
	정책 교육 효과 평가(정책 이행률, 이해도 측정)	3.20	
	지속적인 정책 교육 콘텐츠 개편 및 가이드라인 제공	3.20	
	전체 평균: 3.43		



〈표 13〉 ‘접근성 기술지원’ 직무 내의 ‘핵심 작업’

3. 접근성 기술지원			
책무	작업	중요도	평균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관리	접근성 가이드라인 확인	3.40	3.35
	시설 접근성 탐색 및 장벽 발견	4.40	
	물리적 접근성 평가 및 개선 방안 제시	4.20	
	통합적 문제점 리스트 작성 및 관리 지원	3.20	
	물리적 접근성 기획안 작성 지원	3.60	
	(시설팀과 협력) 유지보수 관리 지원	2.20	
	주기적 모니터링 수행 지원	2.20	
	사용자 인터뷰,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4.00	
접근성 콘텐츠 기획 및 품질 관리	개선된 환경의 접근성 재검토	3.00	3.91
	접근성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구축 (음성해설, 자막, 대체 텍스트 등)	3.80	
	콘텐츠 기획(대상, 형식, 분량) 및 제작 일정 수립	3.80	
	기술 전문가(수어통역사, 음성해설가 등) 섭외	5.00	
	콘텐츠 품질 테스트 (사용자 테스트, 접근성 검사 툴 활용)	3.40	
	오류 및 개선점 식별 후 수정 (불명확한 자막, 시각 자료 대체 텍스트 재작성)	3.60	
	최종 승인 전 품질 검수 및 산출물 관리 (버전 관리, 백업)	4.00	
접근성 기술지원 기획 및 구현	콘텐츠 접근성 유지·개선 위한 정기 점검 및 업데이트	3.80	4.00
	접근성 니즈 분석 후 적합한 접근성 기술지원 솔루션 기획	4.20	
	새로운 접근성 기술 도입 및 프로토타입 테스트	3.60	
	개발자, 디자이너와 협업하여 접근성 기능 구현 (스크린 리더 호환성, 음성명령 등)	3.40	
	기술지원 도입 일정 및 예산 계획 수립	3.60	
	기술 전문가(수어통역사, 음성해설가 등) 섭외	5.00	
	사용자 대상 기술지원 서비스 안내 및 교육 (이용 방법, 문의 대응)	4.00	
접근성 기술 평가 및 개선	도입 기술의 작동 안정성 검증 및 문제 해결	4.20	3.03
	도입된 접근성 기술 솔루션 성능 평가 (사용빈도, 오류 발생률 등)	3.20	
	사용자 피드백 수집(장애인 사용자 인터뷰, 설문)	3.40	
	성과지표(KPI)에 따른 기술지원 효과 분석	3.00	
	개선사항 도출 및 차기 기술 업데이트 계획 반영	3.20	
	최신 기술 동향 파악 및 벤치마킹을 통한 개선안 제안	2.80	
접근성 장비 관리	평가 결과를 문서화하고 관련 부서 공유	2.60	3.07
	접근성 관련 장비(보조공학 기기, 장비 대여품) 재고 파악 및 유지보수 계획 수립	2.60	
	장비 사용 절차·지침 마련 (대여 신청 프로세스, 반납 기준)	2.80	
	주기적 장비 점검 및 수리·교체 관리	3.20	
	장비 이용 현황 모니터링 (이용 빈도, 이용자 만족도)	3.40	
	장비 관련 불편사항 또는 고장 접수 및 신속 대응	3.40	
디지털 접근성 기획 및 관리	필요 시 장비 확충 (신규 장비 구매, 성능 높은 모델 도입) 및 예산 계획 반영	3.00	3.57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플랫폼 접근성 평가 (자동화 툴, 수동 테스트)	3.60	
	디지털 접근성 개선 전략 수립 (KWAG 기준 반영, UI/UX 개선)	3.80	
	개발자 협업 통한 접근성 기능 구현	3.60	
	디지털 경험 개선을 위한 사용자 피드백 수집 및 반영	3.60	
	디지털 접근성 정책·가이드라인 개발 및 업데이트	3.20	
지속적인 준수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3.60		
전체 평균: 3.53			

V. 접근성 매니저 직무기술서 도출

이번 장에서는 지금까지 조사 및 분석한 직무분석 내용을 최종적으로 종합하여 접근성 매니저의 직무와 책무, 작업 등을 정리하고 이러한 활동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직무 역량을 지식·기술·태도 차원에서 서술하는 세부적인 직무기술서를 도출하고자 한다. '접근성 기획 관리', '접근성 교육', '접근성 기술지원'이라는 세 가지 직무별로 차례차례 직무 정의에서 시작하여 책무 및 책무 정의, 작업 및 핵심 작업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접근성 매니저' 직무기술서_ '접근성 기획 관리'

가. 직무	접근성 기획 관리 (Access Planning & Management)	
나. 직무 정의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문화예술을 평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과 조건을 고려한 물리적/감각적, 서비스/콘텐츠 및 사회문화적 차원의 접근성 전략 전반을 기획 및 실행하며,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접근권을 제고하는 일	
다. 책무/책무 정의	라. 작업	핵심 작업
A. 사용자 서비스 제공 및 관리 :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관객이 관람·참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예약·예매 절차, 현장 지원, 긴급 대응 등 접근성 서비스를 편리하고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일	A-1. 관람 서비스 메뉴얼 개발 (예: 공연 전 사전 안내, 보조도구 대여 절차)	
	A-2. 예매 및 문의 응대 프로세스 구축 (전화, 온라인 채널 관리 등)	○
	A-3. 휠체어 좌석 배치 관리	○
	A-4. 예매 시스템 개선 협의	○
	A-5. 현장 안내 인력 배치 및 교육	○
	A-6. 서비스 이용 현황 모니터링 (티켓 판매 데이터, 만족도 조사)	○
	A-7.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수집 (고객 설문, 피드백 시스템 운영)	
	A-8. 긴급 상황(응급 의료 지원, 긴급 대피) 메뉴얼 수립 및 훈련	○
B. 접근성 경영기획 및 운영 : 조직 차원에서 접근성 관련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단기 전략 계획을 마련하며, 내부·외부 커뮤니케이션, 성과 평가, 자원 배치 등으로 접근성을 지속하여 향상하는 일	B-1. 접근성 비전 및 목표 설정	○
	B-2. 접근성 전략계획 수립 (장·단기 계획, 예산 추산, 성과지표 정의)	
	B-3. 접근성 전략 실행 및 모니터링	○
	B-4. 채용 및 인사 지원	○
	B-5. 조직 내부 커뮤니케이션 강화 (개발, 디자인, HR 등 조직 내 부서와 협업 및 접근성 목표 통합)	○
	B-6. (정부, 커뮤니티, 고객 등) 외부 커뮤니케이션 및 관계 관리	○
	B-7. 접근성 관련 법·규제·표준 변경사항 모니터링 후 전략 업데이트	
	B-8. 접근성 관련 국제 동향 조사 및 벤치마킹	○
	B-9. 조직 내 접근성 문화 확산을 위한 경영진 브리핑 및 정책 지원 요청	
	B-10. 성과평가 및 내부 보고용 접근성 성과 보고서 작성(분기/연간)	
C. 접근성 문화예술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관리	C-1. 프로젝트 선정	
	C-2. 기존 접근성 문화예술 프로젝트 접근성 상태 분석 및 평가	
	C-3. 접근성 문화예술 프로젝트 기획 전략 수립	○



: 문화예술 분야에서 접근성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전시, 공연, 축제 등)를 기획·실행하고, 유관 기관 및 부서와 접근성 협업 계획을 수립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일	C-4. 접근성 문화예술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0	
	C-5. 관계 기관 및 관계 부서와 접근성 협업 계획 수립	0	
	C-6. 접근성 예산 관리 및 기금 모금 활동 진행		
	C-7. 프로젝트 인력구성 및 관리	0	
	C-8. 접근성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감독 선정		
	C-9. 정보 제공 및 커뮤니케이션의 접근성 방안 마련	0	
	C-10. 접근성 소셜 미디어 및 이벤트 활용 마케팅 지원		
	C-11. 접근성 홍보·마케팅 및 관객 개발 지원		
	C-12. 창·제작 프로젝트 유통 지원		
	C-13. 내외부 네트워킹 및 자원 확보		
	C-14. 접근성 실행 위기관리	0	
	C-15. 접근성 실행 안전관리	0	
	D. 접근성 정책 기획 및 평가 : 법·규제·표준에 기반한 내부 접근성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개정하고, 적용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분석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일	D-1. 기존 내부 정책 및 지침 검토 (현행 접근성 표준 반영 여부 확인)	0
		D-2. 법률·규정 파악 및 준수 전략 수립	0
		D-3. 정책 개정 초안 작성 및 관련 부서 의견 수렴	
D-4. 최종 정책 문서화 및 사내 공지 (내부 포탈, 이메일 등)		0	
D-5. 접근성 정책 연구 및 제안		0	
D-6. 정책 변경사항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및 교육 자료 제작			
D-7. 정책 준수 상태 점검 (내부 감사, 점검 보고서 작성)			
D-8. 정책 효과성 평가 (정량·정성 지표 기반)			

접근성 매니저 직무 중 첫 번째인 ‘접근성 기획 관리’ 직무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문화예술을 평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과 조건을 고려한 물리적/감각적, 서비스/콘텐츠 및 사회문화적 차원의 접근성 전략 전반을 기획 및 실행하며,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접근권을 제고하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직무는 A. 사용자 서비스 제공 및 관리, B. 접근성 경영기획 및 운영, C. 접근성 문화예술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관리, D. 접근성 정책 기획 및 평가라는 네 가지 책무로 구성된다. ‘접근성 기획관리’를 위한 직무 역량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범주에 따라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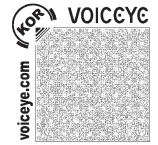
〈표 14〉 ‘접근성 기획 관리’를 위한 직무 역량

구분	내용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근성 관련 법·규제·표준에 대한 이해 접근성,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개념 및 장애 인권 관련 지식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공연, 전시, 축제 운영 특성) 프로젝트 관리 이론(계획 수립, 일정·예산 관리 기법) 조직 전략기획, 정책 수립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석 및 문제해결 능력 커뮤니케이션 및 협상 기술 문서화 및 보고 능력(정책 문서, 기획안, 보고서 작성) 디지털 활용 능력(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툴 등) 혁신·창의 사고(접근성 개선 아이디어 도출, 새로운 기술/솔루션 도입)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성과 공감: 다양한 이용자의 관점 이해 및 존중 • 책임감: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 유연성: 규제 변경,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 수정 및 즉각적인 대응 • 협력적 자세: 팀원, 다른 부서, 외부 파트너와 원활한 협업 지향 • 지속적 개선 의지: 피드백을 적극 수용, 접근성 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 학습 및 노력
----	---

2. '접근성 매니저' 직무기술서_ '접근성 교육'

가. 직무	접근성 교육 (Access Education)	
나. 직무 정의	접근성에 대한 폭 넓은 인식 개선 및 실질적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접근성에 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요자 특성에 맞춰 설계 및 운영, 평가를 담당하는 일	
다. 책무	라. 작업	핵심 작업
E. 접근성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조직 내외부 이해관계자(직원, 경영진, 자원봉사자 등)를 대상으로 접근성 인식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고, 실행 후 효과를 평가·개선하는 일	E-1. 접근성 교육 요구사항 분석 (직원, 경영진, 외부 이해관계자)	
	E-2. 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E-3. 교육 방법 및 범위 설정 (다회 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	0
	E-4. 교육 일정 및 예산 계획 수립	
	E-5. 교육 강사 섭외 및 강사 관리	0
	E-6.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준비 및 운영 (장애유형별 접근성 고려)	0
	E-7. 교육 참가자 피드백 수집 및 반영 (교육 후 설문, 인터뷰)	0
	E-8. 교육 성과 평가(지식 향상도, 만족도 측정) 및 개선안 도출	0
F.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개선 프로젝트(교육, 제도 개선, 기술 도입 등)를 발굴·기획하고, 예산·일정·자원 관리, 실행 모니터링, 성과 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일	F-1. 교육 측면에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프로젝트 대상 선정 (예: 직원 접근성 역량 강화 프로젝트)	
	F-2. 프로젝트 목표·범위·일정·예산 수립	0
	F-3. 프로젝트 관련 부서/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 (교육 부서, IT 팀, 외부 전문가 등)	
	F-4. 프로젝트 실행 (교육 콘텐츠 개발, 워크숍, 세미나 개최)	0
	F-5. 진행 상황 모니터링 (마일스톤 점검, 예산 집행 확인)	0
	F-6. 성과평가 (프로젝트 완료 후 만족도 조사, 역량 변화 측정)	0
	F-7. 개선사항 반영 및 차기 프로젝트 계획 업데이트	0
G. 접근성 정책 교육 : 조직 내부 구성원 및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접근성 관련 정책·지침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정책 이해도를 높여 조직 전반에 접근성 문화를 확산하는 일	G-1. 조직 내부 접근성 정책·지침 내용 분석 및 정리	
	G-2. 정책 교육용 자료 개발 (정책 요약문, 가이드, Q&A)	
	G-3. 정책 관련 법·규제 변경사항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업데이트	0
	G-4. 정책 준수 필요성 및 사례 중심의 교육 세션 기획	0
	G-5. 정책 교육 대상자(직원, 자원봉사자, 파트너) 선정 및 교육 일정 조율	0
	G-6. 정책 교육 효과 평가(정책 이행률, 이해도 측정)	
	G-7. 지속적인 정책 교육 콘텐츠 개편 및 가이드라인 재공지	
H. 커뮤니티 참여 및 협력 : 지역사회, 장애인 단체, 비영리기관 등 커뮤니티와 협력 관계를 구축·유지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하며, 다양한 의견과 피드백을 반영해 접근성을 향상하는 일	H-1. 지역 커뮤니티의 접근성 요구 파악 (인터뷰, 설문, 현장 방문)	
	H-2. 커뮤니티 맞춤형 접근성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0
	H-3. 지역 단체·비영리기관과 협력 프로젝트 추진 (워크숍, 세미나 공동 개최)	0
	H-4. 소외된 그룹 대상 참여 촉진 이니셔티브 개발	0
	H-5. 커뮤니티 이벤트·축제에서의 접근성 교육세션 운영	
	H-6. 커뮤니티 피드백 수집 및 개선사항 반영	
	H-7. 커뮤니티 네트워크 확대 (신규 협력 파트너 발굴, 협약 체결)	



접근성 매니저의 두 번째 직무는 ‘접근성 교육’으로 해당 직무는 “접근성에 대한 폭넓은 인식 개선 및 실질적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접근성에 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요자 특성에 맞춰 설계 및 운영, 평가를 담당하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E. 접근성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F.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G. 접근성 정책 교육, H. 커뮤니티 참여 및 협력이라는 네 가지 책무를 중심으로 직무가 구성되어 있다. 접근성 교육을 위한 직무 역량은 <표 15>와 같이 제안할 수 있다.

<표 15> ‘접근성 교육’을 위한 직무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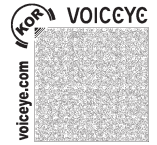
구분	내용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 관련 법·규제·표준에 대한 이해 • 교육학 이론 및 성인학습원리에 대한 이해 • 교육 프로그램 기획·개발 방법론, 커리큘럼 설계 지식 • 접근성,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개념 및 장애 인권 관련 지식 • 문화예술 산업 및 지역사회 특성, 이해관계자 구조 파악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요구분석 능력(설문, 인터뷰, 자료 분석) 및 교육 콘텐츠 개발 역량 • 커뮤니케이션 능력: 강사·교육생·내부 직원·외부 파트너와의 의사소통 • 프로젝트 관리 능력: 교육 일정·예산 관리, 자원 배분, 성과 측정 • 평가 및 피드백 반영 스킬: 교육 후 성과분석, 개선안 도출 • 디지털 교육 플랫폼 활용 능력: 온라인 강의, e러닝 콘텐츠 제작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성과 공감: 장애인 및 다양한 학습자의 관점 존중 • 학습자 중심 사고: 각기 다른 학습자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 • 지속적 개선 의지: 교육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발전 • 협력적 자세: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협업 추구 • 문제해결 지향: 새로운 접근성 요구나 난관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

3. ‘접근성 매니저’ 직무기술서_‘접근성 기술지원’

가. 직무	접근성 기술지원 (Access Technical Support)	
나. 직무 정의	실질적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접근성 관련 물리적, 감각적 기술 및 도구 등을 발굴·도입·관리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	
다. 책무	라. 작업	핵심 작업
1. 접근성 기술지원 기획 및 구현 : 보조기기, 소프트웨어, 디지털 툴 등 접근성 향상 기술을 발굴·선정·도입하고, 개발자·디자이너 등과 협력하여 시스템 내에 구현, 사용자 지원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접근성 기술 기반을 마련하는 일	I-1. 접근성 니즈 분석 후 적합한 접근성 기술지원 솔루션 기획	○
	I-2. 새로운 접근성 기술 도입 및 프로토타입 테스트	
	I-3. 개발자, 디자이너와 협업하여 접근성 기능 구현 (스크린 리더 호환성, 음성명령 등)	
	I-4. 기술지원 도입 일정 및 예산 계획 수립	
	I-5. 기술 전문가(수어통역사, 음성해설가 등) 섭외	○
	I-6. 사용자 대상 기술지원 서비스 안내 및 교육 (이용 방법, 문의 대응)	

	I-7. 도입 기술의 작동 안정성 검증 및 문제 해결	0
J. 접근성 콘텐츠 기획 및 품질 관리 : 음성해설, 자막, 점자 자료 등 다양한 형식의 접근성 콘텐츠를 기획·제작·검증하여, 모든 사용자에게 평등한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품질을 지속하여 개선하는 일	J-1. 접근성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구축 (음성해설, 자막, 대체 텍스트 등)	
	J-2. 콘텐츠 기획(대상, 형식, 분량) 및 제작 일정 수립	
	J-3. 기술 전문가(수어통역사, 음성해설가 등) 섭외	0
	J-4. 콘텐츠 품질 테스트 (사용자 테스트, 접근성 검사 툴 활용)	
	J-5. 오류 및 개선점 식별 후 수정 (불명확한 자막, 시각 자료 대체 텍스트 재작성)	
	J-6. 최종 승인 전 품질 검사 및 산출물 관리 (버전 관리, 백업)	0
	J-7. 콘텐츠 접근성 유지·개선 위한 정기 점검 및 업데이트	
K.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관리 : 시설 환경(출입구, 통로, 객석, 화장실 등)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찾고, 시설팀과 협력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문화예술 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접근성을 확보·유지하는 일	K-1. 접근성 가이드라인 확인	0
	K-2. 시설 접근성 탐색 및 장벽 발견	0
	K-3. 물리적 접근성 평가 및 개선 방안 제시	0
	K-4. 통합적 문제점 리스트 작성 및 관리 지원	
	K-5. 물리적 접근성 기획안 작성 지원	0
	K-6. (시설팀과 협력) 유지보수 관리 지원	
	K-7. 주기적 모니터링 수행 지원	
	K-8. 사용자 인터뷰,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0
	K-9. 개선된 환경의 접근성 재검토	
L. 디지털 접근성 기획 및 관리 : 웹사이트, 앱, 디지털 콘텐츠 등의 온라인 환경에서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평가·개선 전략을 수립하여 개발자와 협업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내부 정책·가이드라인을 개발·업데이트하여 디지털 접근성을 지속하여 향상하는 일	L-1.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플랫폼 접근성 평가 (자동화 툴, 수동 테스트)	0
	L-2. 디지털 접근성 개선 전략 수립 (WCAG 기준 반영, UI/UX 개선)	0
	L-3. 개발자 협업 통한 접근성 기능 구현	0
	L-4. 디지털 경험 개선을 위한 사용자 피드백 수집 및 반영	0
	L-5. 디지털 접근성 정책·가이드라인 개발 및 업데이트	
	L-6. 지속적인 준수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0
M. 접근성 장비 관리 : 보조공학기기, 대어 장비 등 접근성 관련 물리적 장비의 재고 관리, 유지보수, 수리·교체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하는 일	M-1. 접근성 관련 장비(보조공학 기기, 장비 대여품) 재고 파악 및 유지보수 계획 수립	
	M-2. 장비 사용 절차·지침 마련 (대어 신청 프로세스, 반납 기준)	
	M-3. 주기적 장비 점검 및 수리·교체 관리	0
	M-4. 장비 이용 현황 모니터링 (이용 빈도, 이용자 만족도)	0
	M-5. 장비 관련 불편사항 또는 고장 접수 및 신속 대응	0
	M-6. 필요시 장비 확충 (신규 장비 구매, 성능 높은 모델 도입) 및 예산 계획 반영	
N. 접근성 기술 평가 및 개선 : 도입된 접근성 기술 솔루션의 성능, 안정성, 사용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피드백과 성과분석을 통해 기술지원 방식을 개선·업데이트하며,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하는 일	N-1. 도입된 접근성 기술 솔루션 성능 평가 (사용빈도, 오류 발생률 등)	0
	N-2. 사용자 피드백 수집(장애인 사용자 인터뷰, 설문)	0
	N-3. 성과지표(KPI)에 따른 기술지원 효과 분석	
	N-4. 개선사항 도출 및 차기 기술 업데이트 계획 반영	0
	N-5. 최신 기술 동향 파악 및 벤치마킹을 통한 개선안 제안	
	N-6. 평가 결과를 문서화하고 관련 부서 공유	

세 번째 직무인 '접근성 기술지원'은 “실질적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접근성 관련 물리적, 감각적 기술 및 도구 등을 발굴·도입·관리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은 여섯 개의 책무로



구성된다. I. 접근성 기술지원 기획 및 구현, J. 접근성 콘텐츠 기획 및 품질 관리, K.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관리, L. 디지털 접근성 기획 및 관리, M. 접근성 장비 관리, N. 접근성 기술 평가 및 개선이 바로 그것이다. 접근성 기술지원 직무를 위한 필수적인 역량은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접근성 기술지원'을 위한 직무 역량

구분	내용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 관련 국제 표준(예: WCAG), 국내외 법규, 가이드라인 이해 • 보조공학기기, 접근성 소프트웨어, 디지털 접근성 기술 전반에 대한 지식 • IT 인프라(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기본 이해 • UX/UI 설계 원칙 및 사용성 평가 방법론 • 문화예술 산업의 기술적 흐름 및 이용자 특성 파악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해결 능력: 접근성 이슈 분석, 기술적 해결책 제안 • 기술 구현 및 튜닝 능력: 보조기기 세팅, 접근성 관련 기능 설정/개선 • 프로젝트 관리 능력: 기술 도입 일정·예산 관리, 성과 측정 • 커뮤니케이션 능력: 개발자·디자이너와 협업, 내부 사용자 지원 및 외부 업체 협력 등을 위한 소통 능력 • 데이터 분석 및 도구 활용 능력: 접근성 검사 툴, 분석 소프트웨어 활용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성과 공감: 장애인 및 다양한 학습자의 관점 존중 • 학습자 중심 사고: 각기 다른 학습자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 • 지속적 개선 의지: 교육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발전 • 협력적 자세: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협업 추구 • 문제해결 지향: 새로운 접근성 요구나 난관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장애인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인력으로서 '접근성 매니저'의 직무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직무기술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현재 접근성 매니저는 국내 제도권 내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신생 직업으로 역할의 정의와 직무 범위에 대한 합의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작업가설적 직무 모형을 구성하고, 현장전문가(SME)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 해당 모형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 뒤, 직무기술서 형태로 그 내용을 구조화하였다.

먼저 '접근성 매니저'의 정의를 "장애인 및 모든 이들이 동등한 권리로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물리적, 감각적, 정보적, 사회문화적 장벽 등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완화하는 전문인력"으로 제시하였으며, 설문조사와 FGI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들의 다수가 이를 적절하거나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어 접근성 매니저의 직무는 '접근성 기획 관리', '접근성 교육', '접근성 기술지원'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었

으며, 이러한 직무 분류 아래 총 14개의 책무(duty)와 111개의 작업(task)을 도출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접근성 기획 관리’ 직무는 책무 4개, 작업 41개로 구성되었으며, ‘접근성 교육’ 직무는 책무 4개, 작업 29개로 구성되었다. ‘접근성 기술지원’ 직무의 경우 책무 6개, 작업 41개로 다른 직무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책무가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자의 두 직무가 기획이나 인식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반해, 접근성 기술지원 직무는 주로 이를 실행하는 업무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진은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접근성 매니저라는 직업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직무와 책무, 작업을 도출하고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위와 같은 수치들보다 더 중요한 시사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접근성 매니저 직무기술서는 ‘접근성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접근성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의 다수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향후에는 문화예술 기관 내부 채용이나 외부 전문인력 배치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본 기술서는 현재 수행 중인 일과 향후 확장될 수 있는 역할 모두를 아우르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가 세 가지 직무와 그 하위 작업을 총망라한 만큼 이 모든 업무를 접근성 매니저 한 명이 모두 수행해야 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직무 범주가 각각 분화되어 별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제도화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된 한국의 상황에서는 당분간 한 명의 인력이 여러 역할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프로젝트 주체나 기관이 이를 ‘1인 직무’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본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여 당면한 과제에 맞는 작업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이 타당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접근성 매니저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이 직무기술서에 나열된 ‘기술(skill)’보다는 ‘태도(attitude)’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FGI 결과에서도 확인한바, 접근성 관련 실천 경험을 가진 다수의 전문가가 기술적 수행보다도 장애 당사자, 유관 부서,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이야말로 핵심적인 자질이라고 공통으로 서술하였다. 직무기술서가 행동 중심의 작업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가능케 한 ‘Do’의 산물이지만, 그 모든 작업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해서 곧바로 접근성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배리어컨셔스(barrier-conscious)’의 관점을 유지하며 조율하고 협력하려는 자세가 동반되어야 한다(신재, 2019; 최보연 외 2024).

더불어 접근성이라는 과제는 단기간 내에 완료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중장기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국내 사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해외의 분석틀을 다수 원용해 직무기술서를 구성하였기에 이후 축적된 국내 실천 사례를 바

탕으로 더욱 정교하고, 실제 현장에 밀착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접근성 매니저의 활동이 문화예술 전반으로 확대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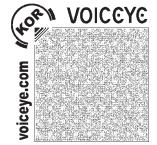
한편,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와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우선, 접근성 매니저 직무 모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의 접근성 매니저 역할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교육계나 공공행정 분야에서 접근성 매니저가 활동한다면 본 연구에서 정의한 책무 외에 추가 과업이 요구되거나 중요도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분야를 확대하여 다양한 맥락에서 접근성 매니저 직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의 범용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와 FGI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표본 규모와 구성에도 제한이 있었다. 연구에 협력한 전문가들이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비교적 소수의 집단이었던 만큼 접근성 매니저 직무에 관한 모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완전히 대변하지는 못했을 수 있다. 특히, 공연 분야 전문가에 다수 의탁한 바, 추후 타장르 및 타분야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를 폭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직무 기술서에 기재된 내용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가 접근성 매니저의 직무 내용 규명에 초점을 둔 반면, 실제 이러한 직무를 현장에 도입했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장애인 접근성이 향상되는지를 입증하는 방법은 다루지 못하였다. 향후에는 다양한 기관에서 접근성 매니저를 실무에 배치하고 그 성과와 영향을 평가하는 실증 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들이 누적된다면 본 연구가 초석이 되어 접근성 매니저 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한층 더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접근권 향상과 포용적 문화환경 조성에 하나의 발걸음이 되길 기원한다.

참고문헌

- 강보름, 고주영, 박지선, 이지혜. (2021. 7. 28). [좌담] 창작을 매개하는 활동: 동료시민으로 공존하기 위한 연결. 웹진이음.
- 고주영. (2023.11.29.). 굳이 꺼내는 이야기들 - 배제도 배려도 아닌 진정한 협업을 위하여. 웹진이음.
- 고주영, 김민술, 김지수, 이진희. (2023.11.29). [좌담] 장애와 예술, 구색 맞추기를 넘어: 질문과 시도가 존재할 뿐, 완벽은 없다. 웹진이음.
- 권지현, 김은정, 이충현, 박지선. (2022.11.23.). [좌담] 배리어프리를 위한 갈등과 충돌을 넘어: 낮설지만 더 넓은 세계로의 자상한 초대. 웹진이음.
- 김수현. (2023.12.13.). 접근성 매니저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함께 즐기는 예술을 위해! (인터뷰) 접근성 매니저 강보름[커티콜], SBS NEWS.
- 김중진, 이해나, 김민정. (2023). 2023 국내외 직업 비교 분석을 통한 신직업 연구_2차 연도 연구 (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
- 김현경. (2020).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가이드라인 수립 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관광부. (2005). 문화예술 기획·경영분야 전문 인력 형성 구조 분석과 인력정책 방향 연구. 문화예술교육과 05-18
- 문화체육관광부. (2023.12.29). '23년 장애예술인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한 원년.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0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요원 직무분석 및 배치방향 연구.
- 신재. (2020.05.04). 극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가, 배리어컨서스를 위하여, No.199, 더뮤지컬.
- 이강은. (2022.9.6). 목소리 보여주고 표정 들려주고..장애·비장애인 관객 모두를 품다. 세계일보. <https://v.daum.net/v/6QLrsI4I8n>
- 이은실. (2020).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개선방안. 인문사회, 11(6), 1077-1088.
- 장슬기. (2024). [Interview 장슬기의 언더뷰] 완전한 배리어프리는 불가능하다-이충현 문화기획자. 참여사회, Vol. 314, 19-21.
- 정중은, 최강찬, 강지섭. (2024). 해외 주요국의 '접근성 매니저' 직무 현황 분석: 접근성 매니저 채용 공고 분석을 중심으로. 장애의 재해석, 5(2), 239-270.
- 정중은, 최보연. (2024.10.14). [기조발제문] 우리는 접근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문화시설 접근성 가이드 연계 포럼 -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정중은, 최보연. (2025). 접근성 매니저 지원 정책을 위한 탐색적 연구 - '접근성 매니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지역과 문화, 12(1), 251-276.
- 조현성, 김홍규, 정병은, 최보연, 최선영. (2024).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활동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최보연, 정종은. (2024).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념적 고찰: 접근성 개념 및 관련 용어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연극학*, 16(2), 85-114.

최보연, 정종은. (2025). 문화예술 분야 접근성 실천의 확산을 위한 탐색적 연구: 접근성 매니저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교육연극학*, 17(1), 95-126.

최석규, 장수혜. (2020). 국립극단 장애와 연극 창작·제작 방향성 연구. 국립극단.

최선영. (2024). 같이 좀 모르자 - 장애인 예술교육 강의노트. 스튜디오네버다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24). 문화시설 접근성 가이드-총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직업교육훈련과정 개발을 위한 직무 분석. 제16-1681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장애인직업능력평가사 직무분석. 연구자료 2004-8.

홍애령, 임수진. (2020).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현황 분석 및 문화예술교육사 직무역량의 개념화. *한국무용과학회지*, 37(2), 59-72.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12).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ISCO-08*, 1 v. Geneva: ILO,

Abstract

Analysis of the Job Model of the 'Access Manager'

: Derivation and Verification through
Literature Review, Survey and FGI

BoKyung Choi*, BoYun Choe**, JongEun Chung***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define and structure the duties of an "Accessibility Manager" as a specialized role dedicated to ensuring accessibi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the arts. The "Accessibility Manager" is a newly emerging profession that currently lacks institutional standards or clearly defined responsibilities. This research integrates literature analysis, surveys, and focus group interviews (FGIs) to develop and validate a job model for the role. First, through a literature review based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the duties of an Accessibility Manager were categorized into three main areas: accessibility planning and management, accessibility education, and accessibility technical support. From these, a total of 14 duties and 111 tasks were identified. Subsequently, surveys and FGIs were conducted with domestic activists and experts who have practical experience in accessibility management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job definitions, duties, and task classifications. Based on this analysis, a job description tailored to the Korean context for the Accessibility Manager role was proposed. This can serve as foundational material for future curriculum development, policy formulation, and related initiatives.

Keywords : Accessibi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ccessibility Manager, Accessibility Manager duties, Accessibility Manager responsibilities, Accessibility Manager tasks

* Ph.D. Student,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rt, Culture & Image

** Assistant Professor, Sanji University, Department of Culture & Contents

*** Associate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rt, Culture & Image



논문 투고 : 2025.04.14.	논문 심사 : 2025.05.28.	게재 확정 : 2025.06.16.
---------------------	---------------------	---------------------



장애의재해석 제6권 제1호

2025 Vol. 6, No. 1, 137 - 161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른 비교

이교일*, 김지은**, 하은호***, 김은빈****

이 연구는 Allport(1954)의 접촉이론을 이론적 틀로 활용하여,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라 SNS 간접접촉, 사회적 거리감, 장애수용태도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비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38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사회적 거리감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SNS 간접접촉과 사회적 거리감이 장애수용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 접촉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사회적 거리감이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SNS 간접접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Allport(1954)의 접촉이론을 토대로 비장애대학생의 직접접촉 및 SNS 간접접촉의 상호작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집단 간 차원에서 밝힌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장애대학생과 장애인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방안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비장애대학생, 접촉이론, 장애수용태도, SNS 간접접촉, 직접접촉, 사회적 거리감

*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실버복지학과 조교수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부생

*** 대구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학부생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부생

I. 서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은 시혜나 동정을 넘어, 사회 내 차이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공동체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 특히 대학교는 성인 초기 단계에 사회적 가치관과 타자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는 중요한 공간이다. 대학생이 대학교에서 다양한 대상과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경험은 개인적 수준을 넘어 사회 전반의 인식과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김민경·박재국, 2018).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생의 장애수용태도는 개인의 인식을 넘어 사회 통합의 기반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비장애대학생과 장애대학생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태도 변화의 기제를 규명하려는 시도를 했다.

장애수용태도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평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사회 내 차이를 존중하려는 인지적·정서적 반응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장애인과의 직접접촉 경험(송수지·김정민, 2008; 김종운·고영희, 2018), 사회적 거리감(Bogardus, 1933; Wilson & Scior, 2015),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SNS 간접접촉(최유숙, 2019; Turner, 2007)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들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접촉 수준에 따라 간접접촉으로 인하여 장애수용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Allport(1954)의 접촉이론을 이론적 틀로 활용하고자 한다. Allport(1954)는 이질적인 집단 간의 편견 해소를 위해서는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동등한 지위, 공동의 목표, 협동적 상호작용, 권위·법·관습의 지원이라는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된 접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후 Pettigrew & Tropp(2006)는 이러한 조건이 사회적 거리감 감소와 장애수용태도 향상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SNS와 같은 매체를 통한 간접접촉은 직접접촉의 대안적 수단으로 간주되며, 그 효과는 개인의 접촉수준이나 기존의 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대학생 집단은 직접접촉과 간접접촉이 동시에 가능한 환경에 위치하므로, 이 두 접촉유형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연구대상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간접접촉의 효과가 개인의 사회적 맥락이나 경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중에서도 사회적 거리감은 장애수용태도를 설명하는 핵심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상미·김유리, 2019; 김혜숙, 2007). 즉, 간접접촉이 장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그 효과는 장애인을 얼마나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는가에 따라 실제 장애수용태도로 이어지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대체로 직접접

촉과 간접접촉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데 그쳤으며, 직접접촉 수준에 따라 간접접촉과 사회적 거리감, 장애수용태도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 실천적인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동향

비장애인의 장애수용태도에 관한 연구는 직접접촉과 간접접촉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먼저 직접접촉 경험과 장애인식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장애수용태도가 직접접촉의 양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송수지·김정민(2008)은 장애인과의 직접적 경험이 ‘역고정관념’ 형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김종운·고영희(2018)는 대학생의 장애인 자원봉사 참여가 장애인식 개선과 긍정적 태도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적절한 조건 하에 이루어지는 직접접촉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고, 장애수용태도 향상에 효과적인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직접접촉의 질적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장애수용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한 연구도 있다. 이소영·이경희(2016)는 반복적인 만남을 통해 형성된 경험이 고정관념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김영미·진혜경(2021)은 장애인과의 직접접촉에 자발성이나 맥락이 결여될 경우 오히려 기존의 편견을 강화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정은 외(2020)는 휠체어 사용자들이 일방적인 도움을 받는 경험에서 비장애인의 시혜적 태도가 강화됨을 보여주며, 접촉의 빈도보다 질과 상호작용 방식이 장애수용태도 형성에 더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SNS를 통한 간접접촉과 장애인 인식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도 주목받고 있다. 최유숙(2019)은 대학생 커뮤니티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만연하며, 이러한 간접접촉이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나대웅(2023)은 영상 미디어가 장애인을 영웅이나 동정의 대상으로 재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고착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는 SNS를 통한 간접접촉이 단순 정보 노출 이상의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양상이 직접접촉과는 다른 기

제를 통해 때로는 왜곡된 인식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장애수용태도가 높은 경향이 있으며(김중운·고영희, 2018), 학년이 높아질수록 수용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강영심 외, 2020). 또한 정신건강이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이 장애인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태도가 나타난 연구도 있다(장대연·이성민, 2024). 특히 사회적 거리감은 장애수용태도를 결정짓는 변수로, 사회적 거리감이 낮을수록 장애인을 가족, 친구, 이웃처럼 가까운 존재로 인식하며 이들을 정서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김중운·고영희, 2018).

대학교라는 공간에서의 장애인식에 관한 연구 또한 확대되고 있다. 김민경·박재국(2018)은 대학교에서 형성된 장애수용태도가 향후 사회 전반의 장애수용문화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손성화·강영심(2019)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대학교는 성인기로 이행하는 중요한 장(場)이며, 이 시기의 사회적 접촉 경험은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수용태도 형성과 사회통합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직접접촉과 간접접촉 중 하나에 집중하거나, 직접접촉의 양적 수준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접촉유형 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SNS 기반 간접접촉의 빈도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그 효과가 직접접촉 경험에 따라 어떻게 조절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더욱이 대학생은 장애인과의 직접접촉과 SNS 기반의 간접접촉이 모두 이루어지는 집단이므로, 이들의 접촉 경험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라 SNS 간접접촉, 사회적 거리감, 장애수용태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가 직접접촉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Allport(1954)의 접촉이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현대사회에서 비장애대학생과 장애대학생 간의 접촉 환경에서 나타나는 장애수용태도를 설명하고자 한다. Allport(1954)의 이론은 집단 간 편견 해소를 위한 조건과 접촉의 효과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며, 장애인과 장애인 간 상호작용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수용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이론적 틀로 간주된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공존이 아닌, 사회적 관계의 질과 심리적 거리감의 조정이라는 차원에서 장애친화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설명력을 지닌다.

2. 접촉이론(Contact theory)

Allport(1954)의 접촉이론은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서로 다른 집단의 관계를 설명할 때 유용한 이론이다. Allport(1954)는 특정 조건이 갖춰진 구조화된 상황에서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접촉이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설하에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동등한 집단 지위, 공동의 목표, 집단 간 협동, 권위·법·관습의 지원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집단 간 접촉의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접촉이론은 조건을 통해 집단 간 관계의 긍정적 가능성을 제시하였지만, 이는 단순히 접촉 그 자체로 집단 간의 편견이 해소되거나 우호적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경은, 2013).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접촉은 오히려 긴장감과 불안을 초래하며, 다른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므로(Bennett, 2007), 접촉이론은 접촉이라는 행위 자체보다는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이나 조건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황, 즉 접촉의 유형은 직접접촉과 간접접촉으로 구분된다. 직접접촉은 두 집단이 실제로 만나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Allport(1954)는 집단 간의 직접접촉이 갈등을 해소하고 다른 집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직접접촉은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고 고정관념을 수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관계 개선에 효과적이지만(Pettigrew, 1998), 그것을 지역사회에 실제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다른 집단과 관계를 맺기 위해선 그 집단이 처해있는 환경이나 상황과 같은 사회문화적 이해가 필요한데(윤인진 외, 2018), 이는 현재 우리 사회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미디어와 SNS를 통한 의사소통이 활발해졌으며, 집단 구성원은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 간접적인 경험에서 얻은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집단에 대해 해석할 단서를 얻는다(황현진 외, 2024). SNS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간접접촉은 접촉이론에서 말하는 직접접촉의 대안으로,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상호작용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 간접접촉은 직접접촉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집단에 대한 초기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간접접촉을 통해 얻은 이미지는 직접접촉을 통해 체험한 경험과 일치할 때 그 효과가 더욱 강력해진다(Pettigrew & Tropp, 2006). 즉, 직접접촉과 간접접촉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며, 두 접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인 인식변화와 태도 개선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쪽에 편중된 접촉 경험은 오히려 왜곡된 인식 형성이나 거리감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두 접촉 형태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접촉구조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 관점이 된다.

따라서 접촉이론은 단일한 접촉경험의 효과를 넘어서, 다양한 접촉유형 간의 상호작용과 그 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분석틀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와 같이 직접접촉과 간

접촉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Allport(1954)의 접촉이론 관점은 두 접촉유형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며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3. 장애수용태도의 정의

장애수용태도는 장애라는 개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의 인지적·정서적 반응을 포괄하는 심리적 성향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외현적인 행동이나 반응을 넘어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사회 속에서 받아들이는지를 반영하는 개념이다. 즉, 장애수용태도는 장애인을 평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사회 내 차이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포함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장애수용태도를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사회구성원으로 포용하는 태도로 정의해 왔다. 강영심·손성화·한민정(2020)은 장애수용태도를 비장애대학생이 장애대학생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태도로 보았다. 김민경·박재국(2018)은 장애에 대한 태도는 선천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획득되고 변화 가능한 성향임을 강조하였다.

이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장애수용을 포용과 평등이라는 사회 가치와 연결하여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나, 이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존재한다. 장애수용의 주체가 일관되게 비장애인으로 설정됨으로써, 장애인을 '수용되는 존재'로 대상화하고 장애인 중심의 위계적 구조가 무의식적으로 강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영미·진혜경(2021)은 수용이라는 개념이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비장애인이 권력을 가진 주체로 기능하며 장애인을 수동적 객체로 위치시킨 구조를 재생산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관점을 반영하여 이 연구에서는 장애수용태도를 단순히 '긍정적 인식'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그 안에 내재된 사회구조적 권력관계와 비장애 중심주의를 성찰하려는 방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인지·정서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측정하되, 그 속에 작동하는 비장애 중심성, 수직적 관계성, 권력 비대칭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장애수용태도를 비장애대학생이 장애인을 일상적·사회적 관계에서 타인과 동등하게 받아들이고, 장애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정서적 반응과 장애인의 권리와 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인지적 태도의 수준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과의 교류에 대한 개방성, 장애인의 능력에 대한 신뢰,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권리 인정, 정서적 거리감이라는 수준을 포함하여 다른 변수들과 어떠한 관

계를 형성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최근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소수집단에 대한 이미지와 그로 인한 인식은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이예나, 2024). 기존 연구들은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이미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Turner(2007)는 SNS에서의 장애인 표상이 사용자의 주관적 인식과 행동양식을 결정짓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간접접촉을 정보접촉의 빈도와 정보가 전달하는 표상의 성격에 따라 정의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SNS를 통한 장애인에 대한 간접접촉을 'SNS에서 나타나는 장애인의 표상에 대한 비장애인의 주관적 인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SNS상에서 접하게 되는 장애인 관련 콘텐츠의 노출빈도와 긍정적·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장애수용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사회적 거리감은 특정 대상 집단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정서적 거리를 의미하며(Bogardus, 1933), 타자에 대한 주관적 친밀감, 정서적 반응, 행동적 태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Huskin, Reiser-Robbins, & Kwon, 2018). Bogardus(1933)는 사회적 거리감을 개인이 타 집단을 얼마나 가까운 사회적 관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로 제시하였고, 이후 낙인집단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데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었다. 사회적 거리감은 일반적으로 인지적·정서적·행동적 거리감으로 구성된다. 인지적 거리감은 고정관념이나 편견과 같은 인식적 반응, 정서적 거리감은 불편감·두려움·혐오 등의 감정 반응, 행동적 거리감은 접촉 회피나 관계형성에 대한 거부 행동을 의미한다(김혜숙, 2007; 김민경·임용재, 2022). 사회적 거리감의 하위 구성요인은 서로 독립적이거나 상호작용하면서 대상 집단과의 거리감을 형성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감은 차별, 낙인, 배제의 정서적 기반으로 작용하며, 소수 집단에 대한 수용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최원규·박현정, 2009).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역시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수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확인되어 왔다(Wilson & Scior, 2015). 사회적 거리감이 낮을수록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자신과 유사하거나 수용 가능한 존재로 인식하며, 이는 포용적 태도와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이어진다(한상미·김유리, 2019). 반대로 사회적 거리감이 높을수록 장애인은 '타자'로 인식되어, 심리적 배제와 부정적 수용 태도가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적 거리감을 비장애대학생이 장애인을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차원에서 얼마나

가까운 존재로 인식하는지 나타내는 총합적 심리개념으로 정의하며, 이는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가정하고자 한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장애수용태도는 SNS 간접접촉과 사회적 거리감 외에도 성별, 학년, 생활수준, 건강수준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먼저, 성별의 경우 김종운 외(2018)는 여성의 장애인 자원봉사 경험 빈도가 남성보다 높았으며, 이에 따라 여성이 장애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장애수용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응규 외(2013)도 여성이 남성보다 장애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지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장애수용태도는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강영심 외(2020)와 김민경 외(2018)는 1학년 학생이 다른 학년의 학생보다 장애 수용태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생활수준 역시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예순 외(2015)는 혼자 거주하는 대학생이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을 낮게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더 우호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건강수준은 신체적 활동성과 정신건강 측면 모두에서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Reina(2019)는 비장애인의 신체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형성된다고 보고하였고, 장대연 외(2024)는 자신의 정신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대학생일수록 장애수용태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건강수준의 향상이 자기효능감, 정서적 안정감 등을 높여 타인에 대한 수용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라 SNS 간접접촉으로 인한 장애인 인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장애인 수용태도는 평균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라 SNS 간접접촉으로 인한 장애인 인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장애인 수용태도 간의 관계는 차이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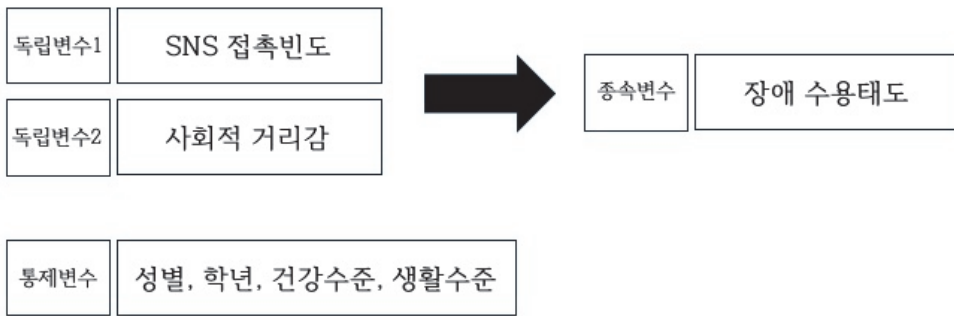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 형성에는 직접적 접촉뿐만 아니라 SNS와 같은 간접경험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접촉의 빈도와 방식은 사회적 거

리감과 수용태도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현재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비장애대학생 3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접촉 수준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장애인 접촉 수준에 대한 질문은 ‘귀하는 일주일에 장애인을 어느 정도 만나십니까?’이었으며 ‘1=매일 만난다, 2=자주 만난다, 3=가끔 만난다, 4=전혀 만나지 않는다’로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Allport(1954)의 접촉이론에 따르면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상호작용은 차별적 태도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반면, 간헐적이거나 비정기적인 접촉(예: 가끔 만난다)은 차별적 태도를 완화하는 데 제한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매일 만난다’와 ‘자주 만난다’를 직접접촉 수준이 높은 집단, ‘가끔 만난다’와 ‘전혀 만나지 않는다’는 직접접촉 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Luna, et al(2020)의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 그룹으로 구분한 것을 참고하여 ‘매일 만난다’와 ‘자주 만난다’를 직접접촉 수준이 높은 집단, ‘가끔 만난다’와 ‘전혀 만나지 않는다’는 직접접촉 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대상의 직접접촉 수준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비장애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38)

변수	집단	하위변수	빈도	퍼센트		
성별	직접접촉 수준이 낮음	남성	88	37.8		
		여성	145	62.2		
	직접접촉 수준이 높음	남성	27	25.7		
		여성	78	74.3		
학년	직접접촉 수준이 낮음	1학년	76	32.7		
		2학년	55	23.6		
		3학년	39	16.7		
		4학년 이상	63	27.0		
	직접접촉 수준이 높음	1학년	63	59.9		
		2학년	9	8.6		
		3학년	11	10.5		
		4학년 이상	22	21.0		
생활수준	직접접촉 수준이 낮음	매우 낮음	3	1.3		
		낮음	27	11.6		
		보통	75	32.2		
		높음	98	42.0		
	직접접촉 수준이 높음	매우 높음	30	12.9		
		매우 낮음	1	1.0		
		낮음	13	12.4		
		보통	37	35.2		
		높음	44	41.9		
		매우 높음	10	9.5		
		건강수준	직접접촉 수준이 낮음	매우 건강하지 않음	4	1.7
				건강하지 않음	31	13.3
보통	69			29.6		
건강함	91			39.1		
매우 건강함	38			16.3		
직접접촉 수준이 높음	매우 건강하지 않음		2	1.9		
	건강하지 않음		10	9.5		
	보통		31	29.5		
	건강함		49	46.7		
	매우 건강함		13	12.4		

비장애대학생의 성별에서는 여학생 223명(66.0%)이었으며 남학생은 115명(34.0%)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139명(41.1%), 4학년 이상이 85명(25.2%), 2학년이 64명(18.9%), 3학년이 50명(14.8%)이었다. 비장애학생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생활수준으로 높음이 142명(42.1%), 보통이 112명(33.1%), 낮음과 매우 높음이 각각 40명(11.8%), 매우 낮음이 4명(1.2%)이었다. 대상자가 인식하는 주관적인 건강수준으로 건강함이 140명(41.4%), 보통이 100명(29.6%), 매우 건강함이 51명(15.1%), 건강하지 않음이 41명(12.1%), 매우 건강하지 않음이 6명(1.8%)이었다.

2) 연구절차

2025년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NAVER Form)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스마트 LMS에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공유한 후 비장애대학생이 자발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응답으로 인하여 개별적으로 불이익이 없음에 대해 안내하였다. 또한,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의 지인을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설문참여를 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중 참여 가능성을 낮추고자 지역과 대학교를 고려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368명이 참여하였으나 이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거나 비장애대학생이 아닌 경우,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 아닌 30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38명의 응답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주요변수

1) 종속변수: 장애수용태도

종속변수인 장애수용태도는 비장애대학생이 장애라는 현상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뜻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장애수용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iller와 그의 동료들(1969)이 개발하고 이종남(1994)이 번역한 ‘장애태도 요인분석 척도(Disability Factor Scale: DFS)’를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장애인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동일시, 추론된 정서장애’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장애수용태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써 ‘1=전혀 그렇지 않다, 2=거의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조금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장애인들은 특정 지역에 그들끼리 모여 살아야 한다.’와 ‘나는 편견없이 장애인과 데이트를 할 수 있다.’ 문항은 역문항 처리하였다. 장애수용태도는 평균을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수용태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장애수용태도의 Cronbach's α 값은

0.85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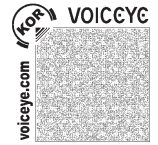
2) 독립변수 1: SNS 간접접촉

SNS 간접접촉은 접촉 빈도와 표상에 대한 묘사와 평가로 측정될 수 있다(Tan, Fujioka, & Lucht, 1997). 이에 이 연구는 SNS 간접접촉을 측정하기 위하여 안순태·강하나(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소셜미디어를 통한 장애인에 대한 간접접촉'을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유튜브와 에브리타임에서 접한 장애인 관련 콘텐츠의 비중과 이미지에 대해 응답자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¹⁾. SNS 간접접촉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써 '1=전혀 그렇지 않다, 2=거의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조금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SNS 간접접촉은 평균을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SNS 간접접촉으로 인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의미한다. SNS 간접접촉의 Cronbach's α 값은 0.745이다.

3) 독립변수 2: 사회적 거리감

사회적 거리감은 특정 대상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심리적으로 멀거나 혹은 가까움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이 연구는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해 정혜영과 서보순(2012)이 사용한 사회적 거리감 척도 문항을 고은과 목홍순(2013)이 일부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5점 리커트 척도로써 '1=전혀 그렇지 않다, 2=거의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조금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거리감은 평균 점수를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거리감의 Cronbach's α 값은 0.936이다.

1) 이 연구에서 SNS를 유튜브와 에브리타임으로 한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언론진흥재단(2024)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 한국」과 김청희·김남두(2021)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특히 20대는 유튜브를 통한 정보 이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종임·박진우·이선민(2021)은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부분의 강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면서 <에브리타임>이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정보 수집 및 교류의 창구가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2024년 기준 에브리타임의 누적 가입자는 732만명이며, 월평균 251만 명의 학생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 대학생활을 공유한다(Platum, 202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튜브와 에브리타임에서 이루어지는 SNS 간접접촉 경험을 측정하였다.



4) 통제변수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성별은 '0=남성, 1=여성'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학년은 '1=1학년, 2=2학년, 3=3학년, 4=4학년, 5=5학년'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중 5학년의 빈도가 낮아 '1=1학년, 2=2학년, 3=3학년, 4=4학년 이상'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생활수준은 5점 리커트 척도로 '1=매우 높음, 2=높음, 3=보통, 4=낮음, 5=매우 낮음'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강수준은 5점 리커트 척도로 '1=매우 건강함, 2=건강함, 3=보통, 4=건강하지 않음, 5=매우 건강하지 않음'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결과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생활수준과 건강수준을 역문항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4. 분석방법

이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30.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장애수용태도, SNS 간접접촉, 사회적 거리감의 평균 차이 검증을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장애수용태도, SNS 간접접촉, 사회적 거리감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수용태도, SNS 간접접촉,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다변량 정규성 가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n=338)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통계량	S.E.	통계량	S.E.
장애수용태도	2.418	0.496	1.167	4.167	0.170	.133	0.672	.265
SNS 간접접촉	2.636	0.739	1.000	5.000	0.179	.133	-0.005	.265
사회적 거리감	2.052	0.667	1.000	4.150	0.449	.133	-0.403	.265

이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왜도 범위는 절대값 기준 0.170~0.449이었으며, 첨도 범위는 절대값 기준 0.005~0.672인 것으로 나타나 다변량 정규성 가정 조건인 왜도의 절대값 기준 3미만, 첨도 절대값 기준 10미만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05). 장애수용태도는 평균 2.418(SD=0.496), SNS 간접접촉의 평균 2.636(SD=0.739), 사회적 거리감의 평균 2.052(SD=0.667)로 나타나 주요 변수 중에서 비장애대학생의 SNS 간접접촉으로 인한 장애인식이 가장 낮았으며, 사회적 거리감은 다른 변수에 비하여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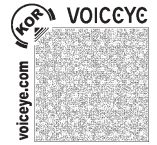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검증

(n=338)

주요변수	집단	n	M	SD	df	t	p
장애수용태도	직접접촉 수준이 낮음	233	2.438	0.517	336	1.097	.273
	직접접촉 수준이 높음	105	2.374	0.444			
SNS 간접접촉	직접접촉 수준이 낮음	233	2.686	0.759	336	1.873	.062
	직접접촉 수준이 높음	105	2.524	0.685			
사회적 거리감	직접접촉 수준이 낮음	233	2.139	0.689	336	3.638	.000
	직접접촉 수준이 높음	105	1.859	0.572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3.638$, $p<.001$). 구체적으로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이 낮은 집단($M=2.139$, $SD=0.689$)이 높은 집단($M=1.859$, $SD=0.572$)보다 사회적 거리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수용태도와 SNS 간접접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분석

비장애대학생의 통제변수와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상관관계분석

(n=338)

	(1)	(2)	(3)	(4)	(5)	(6)	(7)
(1)	1						
(2)	.120*	1					
(3)	-.034	-.010	1				
(4)	-.064	-.047	.609***	1			
(5)	-.091	.006	-.124*	-.074	1		
(6)	-.052	.000	-.066	-.068	.666***	1	
(7)	-.091	.210***	-.100	-.001	.342***	.263***	1

주 : (1) 성별 (2) 학년 (3) 생활수준 (4) 건강수준 (5) 장애수용태도 (6) 사회적 거리감 (7) SNS 간접접촉
*p<.05, **p<.01, ***p<.001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장애수용태도와 사회적 거리감이($r=.666, p<.001$)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수용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간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생활수준과 건강수준($r=.609, p<.001$)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수용태도와 SNS간접접촉($r=.342, p<.001$), 사회적 거리감과 SNS 간접접촉($r=.263, p<.001$), 학년과 SNS 간접접촉($r=.210, p<.001$), 생활수준과 장애수용태도($r=-.124, p<.05$), 성별과 학년($r=.120, p<.05$)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거리감이 낮을수록 장애인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김종운·고영희, 2018)와 일치한다.

4.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른 주요 변수가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른 SNS 간접접촉과 사회적 거리감이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른 주요 변수가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n=338)

종속변수 (장애수용태도)		전체(n=338)			직접접촉 수준이 낮은 집단(n=233)			직접접촉 수준이 높은 집단(n=105)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B	S.E.		B	S.E.		B	S.E.	
상수		1.349	.133		1.133	.155		1.855	.264	
통제 변수	성별	-.044	.042	-.042	-.013	.049	-.012	-.175	.082	-.174*
	학년	-.009	.016	-.023	-.004	.020	-.009	-.002	.030	-.006
	생활수준	-.041	.028	-.073	-.026	.034	-.046	-.071	.051	-.139
	건강수준	.005	.026	.009	-.002	.031	-.004	.016	.049	.032
독립 변수	SNS 간접접촉	.117	.029	.174***	.153	.034	.225***	.020	.054	.031
	사회적 거리감	.457	.031	.614***	.472	.036	.629***	.426	.063	.549***
R ²		.481			.539			.374		
adjR ²		.471			.526			.335		
F		51.076***			43.953***			9.744***		
Durbin Watson		1.943			1.941			2.051		

*p<.05, **p<.01, ***p<.001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VOL, VIF를 확인한 결과 전체 집단의 VOL은 0.618~0.969, VIF는 1.032~1.619,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VOL은 0.591~0.963, VIF는 1.039~1.693,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이 높은 집단의 VOL은 0.642~0.965, VIF는 1.037~1.558의 범위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확

인하였다. 또한, 각 집단별로 Durbin-Watson을 살펴본 결과 1.941~2.051의 범위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각 집단별로 SNS 간접접촉과 사회적 거리감이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집단의 회귀식 설명력은 47.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F=51.076$, $p<.001$). 이 연구의 독립변수인 SNS 간접접촉과 사회적 거리감은 장애수용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감($\beta=.614$, $p<.001$)은 SNS 간접접촉($\beta=.174$, $p<.001$)보다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높을수록 장애수용태도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이 낮은 집단의 회귀식 설명력은 52.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43.953$, $p<.001$).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SNS 간접접촉과 사회적 거리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감($\beta=.629$, $p<.001$)은 SNS 간접접촉($\beta=.225$, $p<.001$)보다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감과 SNS 간접접촉은 장애수용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이 높은 집단의 회귀식 설명력은 33.5%이었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9.744$, $p<.001$).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독립변수에서는 사회적 거리감($\beta=.549$, $p<.001$)이었으며,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beta=-.174$, $p<.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높을수록 장애수용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남성일수록 장애수용태도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낮은 집단과 다르게 SNS 간접접촉으로 인한 장애인식이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함의

이 연구는 Allport(1954)의 접촉이론을 바탕으로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라 SNS 간접접촉, 사회적 거리감, 장애수용태도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봄으로써 대학교 내 장애 친화 환경 조성의 실질적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비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연구의 논의 및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라 사회적 거리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접접촉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사회적 거리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llport(1954)의 접촉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른 집단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편견과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임을 지지한다. 또한 송수지·김정민(2008), 김중운·고영희(2018)의 연구와 같이 직접접촉의 경험이 장애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과 밀접하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며, 이는 직접접촉의 수준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조절하는 핵심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구성물로 보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장애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과 구조적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라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SNS 간접접촉과 사회적 거리감이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사회적 거리감만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SNS 간접접촉만을 경험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유숙(2019), 나대웅(2023)의 연구와 일치하며, SNS로 인한 왜곡된 장애 이미지가 사회적 거리감과 부정적 인식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 간의 직접적인 접촉은 SNS 간접접촉으로 인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충하는 심리적 완충지대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Pettigrew & Tropp, 2006). 즉, 비장애대학생과 장애학생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SNS를 통해 형성된 고정관념을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SNS가 단순히 부정적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도구만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기표현과 커뮤니티 형성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많은 장애인 당사자가 SNS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비장애 중심적 사회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윤형·조은총, 2020). 따라서 SNS 간접접촉의 영향력을 단일하게 해석하기보다는, 그 양면성과 복잡성을 인정하

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과 구조적 환경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향후 실천 방안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직접접촉 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장애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는, 대학 내 장애인과의 실질적 접촉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Allport(1954)의 접촉이론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질 높은 상호작용이 편견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이론적 근거와도 부합한다.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일회성 캠페인보다는 공동 프로젝트, 협력 활동, 동아리 활동 등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이 가능하도록 구조화된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대학 내에서는 교과 및 비교과 영역 모두에서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야 하며, 장애 학생이 '배려'의 대상이 아닌 상호작용의 주체로 인식될 수 있도록 대학 내 문화와 환경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학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적 기반 조성과 동시에, 다양한 접촉 경험을 늘릴 수 있는 변화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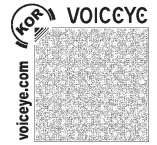
둘째, 단순히 SNS 기반의 장애 관련 콘텐츠 제공만으로는 비장애대학생의 태도 변화에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왜곡된 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다. SNS 간접접촉이 갖는 영향력은 이중적이며, 특히 직접접촉이 결여된 환경에서는 부정적 고정관념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비판적 미디어 수용 능력 향상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반면, 직접접촉이 이루어진 집단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심리적 현실감에 의해 해소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실제 접촉 경험이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심리적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는 Pettigrew & Tropp(2006)의 연구와도 연결된다. 또한, SNS는 장애 당사자에게 자기표현과 정보 공유, 연대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SNS 간접접촉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 장애 당사자 주도의 디지털 콘텐츠 생산 지원, 비장애인 대상의 비판적 미디어 수용 교육이 병행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수용태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이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기는 위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자연스러운 협력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수 지도 아래 수업 시간 내 토론참여, PBL 프로젝트 수행,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비장애대학생과 장애대학생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대학교 교양과정에서 장애 이해 및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장애학

(Disability Studies) 관련 교과목을 확대하여, 장애에 대한 의료적 모델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에서 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SNS상 장애 관련 콘텐츠의 비판적 수용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올바른’ 장애 이미지를 구분하는 능력을 넘어, 미디어에 재현된 장애가 어떤 권력 관계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주도형 콘텐츠와 상호작용 기회의 확대를 위한 캠퍼스 차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당사자 중심(nothing about us without us)’ 원칙에 입각하여, 장애대학생이 대학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장애 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에 있어 장애 학생들의 주도적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장애와 다른 정체성(젠더, 인종, 사회경제적 배경 등)이 교차하는 지점을 고려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맥락에서 장애 경험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점차 중요해지는 ‘SNS 간접접촉’의 효과가 개인의 직접접촉 경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들이 직접접촉 또는 간접접촉의 개별적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이 연구는 두 접촉유형 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았다. 또한 대학생이라는 성인 초기 단계의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장애 수용태도의 형성 과정이 사회적 접촉 경험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교 내 장애 친화 환경 조성의 실질적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 연구는 장애를 단순히 ‘수용’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성의 일부로 재해석하는 패러다임적 전환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는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인간 경험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대학 문화 조성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비확률표집방법 중 편의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자료 수집하였기에,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확률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연구의 외적타당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측정된 SNS 간접접촉 경험은 SNS 공간에서 논의되는 장애인에 대한 주관적 인식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콘텐츠의 정서적 속성(긍정적/부정적), 노출의 지속성, 감정적 반응 등의 세부 차원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SNS 간접접촉 경험을 다차원적 구성개념으로 정교화하여 장애수용태도 및 사회적 거리감 형성의 차별적 영향을 비교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는 비장애대학생의 인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접근하였으며, 장애 대학생 당사자의 관점에서 비장애대학생과의 상호작용 경험이나 수용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통하여 이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영심, 손성화, 한민정. (2020). 비장애대학생의 장애대학생 수용태도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통합교육연구*, 15(2), 1-19.
- 고경은. (2013). 다문화환경 초등학교에서의 접촉이론 적용가능성. *학교사회복지*, 25, 255-274.
- 고용규, 박보람. (2013).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한 비장애청소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변화. *장애인복지연구*, 4(1), 117-140.
- 고은, 목홍순. (2013).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사회적 거리감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2(4), 127-151.
- 김민경, 박재국. (2018). 비장애대학생의 장애대학생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통합교육연구*, 13(2), 49-70.
- 김민경, 임용재. (2022). 청년층의 사회적 거리감과 장애 수용 태도 간의 관계 분석. *교육사회연구*, 32(3), 99-120.
- 김영미, 진혜경. (2021). 초등학생의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1(2), 185-194.
- 김예순, 백형원, 남영희, 김선용, 김명. (2015). 보건학 전공 대학생의 장애인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8(2), 185-201.
- 김중운, 고영희. (2018). 대학생의 장애인 자원봉사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장애수용태도, 공감능력의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9), 919-939.
- 김청희, 김남두. (2021). [초점] 성별·연령대별 유튜브 및 넷플릭스 콘텐츠 이용행태 분석. *KISDI Perspectives*, (3), 1-21.
- 김혜숙. (2007). 사회적 거리감과 편견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23(2), 87-108.
- 나대웅. (2023). 영상 미디어에서의 장애에 대한 상품화와 인권문제: 영웅적 장애인 재현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연구*, 14(2), 98-123.
- 손성화, 강영심. (2019). 비장애대학생의 공동체의식 유형에 따른 장애대학생에 대한 태도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2), 1287-1304.
- 송수지, 김정민. (2008). 대학생의 장애인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1), 83-99.
- 안순태, 강하나. (2018). 소셜미디어를 통한 노인에 대한 간접 접촉이 노인 차별에 미치는 영향: 노인 낙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광고PR실학회*, 11(3), 7-29.
- 윤인진, 송영호. (2018).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사회정의와 인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한국사회*, 19(1), 95-131.
- 윤형, 조은총. (2020). 장애인 유튜버의 미디어 생산 경험에 관한 연구. *장애의 재해석*, 1(1), 3-51.

- 이소영, 이경희. (2016).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태도. *정신간호학회지*, 25(4), 384-392.
- 이종남. (1994).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 최보라, 조미형, 이인선, 신형익. (2020).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태도 장벽. *보건사회연구*, 40(2), 151-192.
- 이에나. (2024). 미디어를 통한 이주민 간접접촉 경험이 청소년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53, 95-122.
- 이현우, 박영흠, 김선호. (2024).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 한국. 한국언론진흥재단.
- 장대연, 이성민. (2024). 장애인 가족 내 비장애 형제자매의 가족 건강성과 우울의 관계: 인지된 장애 수용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웰니스학회지*, 19(3), 337-344.
- 정혜영, 서보순. (2012). 예비유아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4(1), 117-145.
- 최원규, 박현정. (2009). 성격유형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와 행동의도 예측력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63-82.
- 최유숙. (2019). 대학생 커뮤니티의 혐오표현 양상: C대학 에브리타임 핫게시물을 중심으로. *교양학 연구*, 10(2), 67-89.
- 한상미, 김유리. (2019).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수용 태도 간의 관계. *장애와 고용*, 29(3), 97-117.
- 황현진, 김동욱, 홍상우, 문상호. (2024). 외국 이주민에 관한 직·간접 접촉이 지각된 위협인식에 미치는 영향: 팬데믹 시기 배타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4(3), 133-166.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Addison-Wesley.
- Bennett, C. I. (2007).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6/E. Pearson Education.
- Bogardus, E. S. (1933). A social distance scale.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17, 265-271.
- Huskin, P. R., Reiser-Robbins, C., & Kwon, P. (2018). Emotional intelligence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distance and attitudes towar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1, 79-83. <https://doi.org/10.1016/j.paid.2018.04.021>.
- Kline, T. J. (2005). *Psychological testing: A practical approach to design and evaluation*. Calif: Sage Publications.
- Luna, E., Ruiz, M., Malyutina, S., Titarenko, A., Kozela, M., Rajak, A., Kubinova, R., Bobak, M. (2020). The prospective association between frequency of contact with friends and relatives and quality of life in older adults from central and

- Eastern Europe. *Soc Psychiatry Psychiatr Epidemiol.* 55(8), 1001-1010. doi: 10.1007/s00127-020-01834-8
- Pettigrew, T. F. (1998). Intergroup Contact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9, 65-85.
- Pettigrew, T. F., & Tropp, L. R. (2006). A meta-analytic test of the contact hypothesis. *Psychological Science*, 17(4), 319-324.
- Reina, R., Hutzler, Y., Iniguez-Santiago, M. C., & Moreno-Murcia, J. A. (2019). Physical activity and attitudes towar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 systematic review.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43, 83-93.
- Platum. (2024.12.31.). 에브리타임, 2024년 대학생 소통 83억 회 기록. <https://platum.kr/archives/249039>.
- Schiappa, E., Gregg, P. B., & Hewes, D. E. (2005). The parasocial contact hypothesis. *Communication Monographs*, 72(1), 92-115.
- Tan, A., Fujioka, U., & Lucht, N. (1997). Native American stereotypes, TV portrayals, and personal contact.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4(2), 265-284.
- Turner, R. N., Hewstone, M., Voci, A., & Paolini, S. (2007). Reducing prejudice through direct and indirect contact: The mediating role of self-disclosur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12), 1635-1646.
- Wilson, M. C., & Scior, K. (2015). Attitudes towards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s measured by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A literature review.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47, 79-85. <https://doi.org/10.1016/j.ridd.2015.08.006>.

Abstract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Disability Acceptance Among Non-Disability University Students

: A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the Level of
Direct Contact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Kyoll Lee^{*}, JiOn Kim^{**}, EunHo Ha^{***}, EunBean Kim^{****}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how non-disabled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acceptan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PWD) are influenced by SNS-based indirect contact and social distance, depending on their level of direct contact. Based on Allport's(1954) contact theory, this research explores the interaction between direct and indirect contact experiences in shaping disability acceptance attitudes. A online-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20 to March 28, 2025, with non-disabled students enrolled in four year universities in South Korea. Data form 338 participants were analyzed to produce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students with a high level of direct contact with PWD reported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social distance compared to those with a low level of direct contact. Second, in the low-contact group, both SNS-based indirect contact and social distanc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disability acceptance attitudes. In contrast, for the high-contact group, only social distance had a significant effect, while SNS-based indirect contact was not

* Assistant Professor, Lifelong Education & Senior Welfare, Daegu University

** Undergraduate student, Social Welfare, Daegu University

*** Undergraduate student, Social Studies Education, Daegu University

**** Undergraduate student, Social Welfare, Daegu University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amines the group-level differences in the factors affecting disability acceptance by analyzing the interaction between direct and indirect contact based on contact theory. Lastly, it suggests practical strategies for enhancing social interaction between non-disabled university student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along with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 disability acceptance, contact theory, direct contact, indirect contact, social distance, non-disabled university student, SNS

논문 투고 : 2025.04.15.	논문 심사 : 2025.05.29.	게재 확정 : 2025.06.16.
---------------------	---------------------	---------------------



장애의재해석 제6권 제1호

2025 Vol. 6, No. 1, 163 - 184

잠재계층성장모형을 활용한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 변화궤적 분석

신민철*, 전동일**

본 연구는 장애인 직업적 능력의 변화유형을 살펴보고 각 유형을 설명하는 요인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잠재계층성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을 실시하여 변화유형에 따른 잠재계층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잠재집단의 설명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연구결과,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 변화유형은 중능력유지형, 저능력유지형, 저능력감소형, 고능력유지형으로 총 4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직업적 능력의 변화유형은 연령, 학력,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취업 여부, 직업적 훈련 경험 유무, 자기효능감에 따라 다르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 적용과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또한, 직업적 능력의 수준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에 적은 나이에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 잠재계층성장분석, 직업적 능력, 직업적 장애,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기효능감

*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 교신저자,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iloveu@kangwon.ac.kr

I. 서론

직업적 능력(vocational ability)은 직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직무 수행능력을 말하며 (Bolton, 2001), 직무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질과 능력(최진, 2002)을 의미한다. 한편, 직업능력(occupational competency)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능력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발 가능한 역량이다(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21). 두 개념의 차이점은 ‘선천적 요소’포함 여부이다. 직업적 능력의 정의는 이미 갖추고 있는 소질과 능력까지 포함하지만, 직업능력의 정의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즉, 직업능력은 직업적 능력의 하위 개념이다. 한편, 직업적 능력은 장애인 분야에서 직업능력 개념과 혼용해서 사용되는 경향(예, 임예직, 문영민, 2021)이 있다. 비장애인의 직업능력은 직업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으로 지식, 기술, 능력으로 구분한다. 반면, 장애인 직업재활 영역은 직업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을 세분화하면서, 비직무적 요소를 포함하여 왔다. 일부 연구자(Alavinia, et al., 2009)는 비직무적 요소를 근로능력(work ability)이라고 구분하여 직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신체, 정신적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직업능력이 직업적 능력의 하위 개념임에도 장애인 분야에서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기에 ‘직업적 능력’에 집중하였다.

장애등급제의 폐지는 장애인 고용정책에서 ‘직업적 장애 기준’을 도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기준은 곧 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 2018). 장애인 고용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 주체성과 비장애인과의 동등한 권리 및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 국가의 인적자원으로 경제 총생산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박경수, 윤재영, 박정현, 2013). 여기에 장애인이 갖는 다양한 환경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이란 개념까지 더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기존보다 더 큰 효과성을 기대하게 한다. 이러한 맞춤형 고용정책에서 직업적 능력은 중요한 도구로 자리를 잡았다(임예직, 문영민, 2021). 또한 직업적 능력의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은 취업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연구(김필호, 정규형, 2020), 직업적 능력이 일자리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쳤다는 연구(이채식, 김명식, 2018)가 진행되는 등 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정책적 변화와 직업적 능력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연구가 제시됨에 따라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은 과거에 비해 현재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업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 개발(구인순, 권미화, 2025)이 진행되었다. 이는 직업적 능력이 고용성과 향상뿐 아니라, 정책 기획 및 실천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과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제시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외생변수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김필호, 정규형, 2020; 변수민, 김희은, 2021; 이채식, 김명식, 2018; 이형렬, 2008). 즉, 직업적 능력은 직무만족이나 고용안정 등 고용상태를 유지하거나 고용 성과 및 질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다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윤예숙, 2022).

본 연구는 직업적 능력이 시간에 따라 기술 축적, 노화 등의 요인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종단적 변화를 분석하려는 탐색적 연구이다. 특히,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의 변화 궤적을 유형화하여 종단적인 관점으로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과 잠재 집단을 분석하고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 변화 유형을 파악하고, 각 유형별 특성과 차이를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직업적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의 변화유형은 어떠한가’이다. 이는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이 시간에 따라 어떤 경로를 따라 변화하는지를 탐색함으로써, 변화의 패턴과 유형을 분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직업적 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둘째,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 변화궤적에 따른 유형 간 특성은 어떠한가’이다. 각 변화 유형에 속한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심리적, 환경적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집단별 특성에 기반한 개입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 변화궤적을 설명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이다. 변화 유형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환경적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직업적 능력 향상을 위한 핵심 개입 요인을 밝히고, 정책적 실천 방안 도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Fleishman과 Mumford(1991)는 직업 종류와 상관없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직업과 관련된 기본 역량을 5가지 요인으로 명시했다. 이는 신체적(physical) 기능, 정신운동성(psychomotor), 감각성(sensory), 인지(cognitive)기능, 사회·심리적(psychosocial) 능력이다. Bolton(2001)은 직업적 능력을 직업에서 표준적 수준에 맞는 직무수행이 가능할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정철영, 서우석, 나승일, 송병국과 이종성(1999)에 의하면 성공적 직업생활 영위를 위한 개인이 갖는 직무완수 능력을 직업적 능력이라 정의하였고, 최진(2002)은 직업적 능력을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능력과 직업에서 요구되는 공통적 기능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능력을 구성하는 개

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있다고 하였다. 정리하자면, 직업적 능력은 신체적, 작업 기술, 대인관계 능력과 같이 직장에서 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능력과 더불어 직장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에 초점을 두어 직업적 능력을 살펴보면, 그들이 갖는 개인적 특성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직업적 능력에 관한 연구는 고용유지, 직무만족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연구대상자도 장애인 당사자 중심이 아닌 부모나 고용주 중심인 직권주의적인 연구가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직권주의적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적용하기엔 객관적인 문제가 있다. 즉,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이들의 직업적 능력에 대한 타당하고 신뢰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고려할 점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이 미흡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양적연구에서 직권주의적 연구가 빈번했다(윤예숙, 2022). 따라서 당사자 개인적 특성을 바탕으로 직업적 능력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장애인 직업적 능력 도구에 관한 연구는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 전부터 이루어졌다. 변경희 외(2005)는 법적인 장애 기준이 의무고용제를 집행하기 위한 기준이기에 고용주가 요구하는 능력과 당사자가 개발해야 할 능력의 범주와는 부합하지 않아 이를 판정할 직업 능력 지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장애인 연금 수혜자 확정을 위해 활용하는 RFC(Residual Functional Capabilities)와 미국 직업재활사의 서비스 수혜자 적격성을 판정하는 FAI(Functional Assessment Inventory), PDQ(Preliminary Diagnostic Questionnaire)를 바탕으로 직업적 능력을 세 가지 영역(사회성, 인지성, 신체적 능력)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근로능력평가 도구(김성희 외, 2014)와 ICF 방식 평가도구(변경희 외, 2012)가 개발되는 등 장애인 직업적 능력 도구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평가도구는 기능 중심으로 직업적 능력을 구분한다는 한계가 있다(임예직, 문영민, 2021). 그리고 이 한계점은 2022년에 새로 도입될 직업적 장애 기준에 개인 요인, 직무 요인을 포함하지는 지적(이선우, 오욱찬, 2020)으로 이어졌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을 탐구하였다.

정리하면, 직업적 능력은 직무에 있어 개인과 사회에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을 의미한다. 직업적 능력은 장애인이 직업생활 유지에 필요한 직무능력 이외에 신체적 능력, 학습 능력,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상황대처 능력을 말한다. 직업적 능력에 대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장애인 대상 직업적 능력 연구들(임예직, 문영민, 2021; 이채식, 김명식, 2018)에서 사용한 정의를 본 연구에서도 적용하였다.

직업적 능력 또는 직업능력 관련 연구는 비장애 성인 대상 연구, 청소년기 대상 연구,

장애인 대상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비장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한다(임언, 2006; 김안국, 2007; 박연진, 2019). 임언(2006)은 직업기초능력을 형성하는 데 작용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OECD ALL에 참여한 한국 성인 5,606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델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고학력일수록, 지식집약적인 직업에 종사할수록, 직장 내에서도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기초능력을 많이 사용할수록 직업기초능력이 높았다. 김안국(2007)도 OECD ALL에 참여한 한국 성인 5,606명을 대상으로 직업기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OLS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때 직업기초능력을 2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경제적인 성과 또한 함께 다루었다. 분석 결과, 직업기초능력과 경제적 성과 모두에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학업연수, 아버지 학력이었다. 박연진(2019)은 사회적 기업 근로자 210명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최종학력, 급여수준, 사회기능이 정적으로 유의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등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윤지영, 김민선, 2018a; 윤지영, 김하나, 박수정, 2018b; 이재한 외, 2017)은 비교적 최근에 발간되고 있다. 윤지영 외(2018a)는 구조방정식 모델을 활용하여 2016년 직업기초능력평가 응시자 중 특성화고 재학생 82,900명을 대상으로 업무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인지능력과 관계적응 요인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윤지영 외(2018b)는 2016년 직업기초능력평가 응시자 101,479명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직업기초능력 영향요인을 다층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 학교 평가를 위한 소요 시간, 취업,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일반고, 사립 요인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읍면, 상업정보 전공, 농생명 전공, 학교평균에 대한 평가 노력 요인이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성의 경우 목적인식, 평가소요시간, 마이스터고, 일반고, 사립, 취업률 요인이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평가를 위한 개인적 학습노력, 중소도시, 읍면, 학교평균에 대한 평가 노력이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재한, 임상호(2017)는 20대 대학생 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대인관계능력이 직업기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능력은 직업기초능력에 정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적 능력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있다(윤예숙, 2022; 정소영, 2018; 김용섭 외, 2010, 김진호 외, 2009). 김진호, 김영준, 차재경(2009)은 지적장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례연구한 결과, 지역사회훈련이 직업기초기술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훈련프로그램 교수전략을 제시해 준다. 정소영(2018)은 경기도 전문대학 장애 대학생 132명을 대상으로 직업기초능력 영향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장애유형과 장애정도가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

다. 즉,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순으로, 장애 정도가 증증일수록 직업기초능력이 낮았다. 윤예숙(2022)은 2021 발달장애인 일과 삶의 실태조사(423명)를 통해 직업적 능력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낮은 도전적 행동 빈도, 취업 만족도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김용섭, 강대혁, 박소연(2010)은 정신분열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 분석 결과, 자기효능감, 지남력, 습관, 사고조작능력이 정적영향을, 일상생활 및 역할기능과 대인관계는 부적 영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직업적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변수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연령은 생애주기상 경험의 축적과 신체·인지 기능의 변화와 관련되며, 직무 수행 역량의 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된다(박연진, 2019). 학력은 직업기초능력 및 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바 있으며(김안국, 2007; 임인, 2006), 이는 지식 기반의 직무수행에 있어 학습된 역량이 중요한 기반이 됨을 시사한다. 장애 정도는 신체적·인지적 제약 수준을 반영하며, 장애가 증증일수록 직업적 능력이 낮은 경향이 보고되었다(정소영, 2018). 장애 유형 또한 수행 가능한 직무의 범위 및 직업 적응 수준에 차이를 보일 수 있어 중요한 조절 요인으로 간주된다(윤예숙, 2022; 정소영, 2018). 직업교육훈련 경험은 기능 습득과 직무 적응력 향상에 기여하며, 실제 직업수행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호 외, 2009). 취업 여부는 실제 직무 환경에의 노출 여부를 반영하며, 직업적 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험 변수로 기능할 수 있다(윤지영 외, 2018b).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은 과제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부 요인으로,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결정적인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보고된다(김용섭 외, 2010).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 변화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제2차 웨이브 5~7차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제2차 웨이브는 우리나라 15세 이상 65세 이하 등록장애인 4,577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 관련 요인을 종단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표성 있는

자료이다. 특히 5~7차 조사는 동일 문항 체계를 바탕으로 직업적 능력 관련 문항이 3년 연속 포함되어 있어, 변화궤적을 분석하는 데 적합하며, 패널 유지율 또한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종단 분석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5~7차 조사에서 직업적 능력 문항에 연속으로 응답한 3,655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분석 도구

1) 직업적 능력

본 연구에서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은 취업관련 업무능력을 의미하며 총 1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항목들은 신체능력(① 힘, 체력, ② 이동, 빠름, ③ 서있기, 불편자세유지, ④ 미세손동작), ⑤ 컴퓨터활용능력, ⑥ 정보능력, ⑦ 의사소통능력, ⑧ 관리능력, ⑨ 실용기술, 자격, ⑩ 기계, 장비다루기, ⑪ 수리계산능력, ⑫ 외국어능력, ⑬ 시간관리능력, ⑭ 주의집중력, ⑮ 상황적능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낮다.”(1점)부터 “낮은 편이다.”(2점), “평균 수준이다.”(3점), “높은 편이다.”(4점), “매우 높다.”(5점)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적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5차년도 .93, 6차년도 .94, 7차년도 .94로 나타났다.

2) 자기효능감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Jerusalem와 Schwarzer(1992)가 개발하고, Young-Min Lee, Schwarzer와 Jerusalem(1994)에 의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5차년도 .95, 6차년도 .96, 7차년도 .94로 나타났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장애 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장애 관련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7차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령, 학력, 장애 수준, 장애 유형,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가 해당한다. 연령은 연속형 변수를 사용하였다. 학력은 교육연수(년)를 기준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무학(0), 초졸(6), 중졸(9), 고졸(12), 대졸(16), 대학원졸(18)로 코딩하였다. 장애 수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0)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1)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장애 유형은 정신적 장애(0)와 신체적 장애(1)로 구분하였다.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는 지난 5년간 한 번이라도 훈련 경험 유(1), 무(0)로 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취업 여부는 미취업자(0)와 취업자(1)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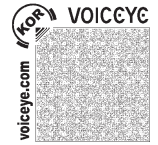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Mplus 6.11을 활용한 잠재계층성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 변화유형을 살펴보았다. 잠재계층성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각 개인의 변화패턴을 묶어 동일집단을 형성하고, 타 집단과의 이질성을 바탕으로 종단적으로 다른 성장곡선을 보이는 k개의 집단을 도출하는 분석 방법이다(Muthen, & Muthen, 2000). 이때 최적의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한 준거틀로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SABIC(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를 사용하였다. 적합도는 이들의 지수가 낮을수록 양호하다고 판단한다(Feldman, Masyn, Conger, 2009). 그리고 계층 분류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해 Entropy 지수를 사용하였다. 이는 0부터 1까지의 범위 안에서 1에 근접할수록 계층 분류가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Clark, & Muthen, 2009). 다음으로 대립가설(잠재계층 K개), 영가설(잠재계층 K-1개)의 통계적 검증을 살피기 위해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LMR-LRT(Lo-Mendel-Rubin Likelihood Ratio Test)를 사용하였다. 이때 P값이 유의하게 나온다면, 대립가설을 채택한다(Asparouhov, & Muthen, 2012). 다음으로 유형화된 잠재계층에 따른 특성과 설명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SPSS를 활용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ANOVA,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IV. 분석결과

1. 잠재계층의 수 결정

초기 장애인 직업적 능력 변화궤적의 잠재계층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계층성장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잠재계층 분류 기준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잠재계층의 수를 1개씩 늘리며



적합도 지수들을 비교하였다.

〈표 1〉 잠재계층 분류 기준

분류 기준		잠재계층 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정보 지수	AIC	88,482	83,599	81,910	81,135	80,534	80,532	80,318
	BIC	88,593	83,773	82,146	81,433	80,893	80,954	80,801
	ssaBIC	88,536	83,684	82,025	81,280	80,709	80,738	80,553
x2의 p값	LMR-LRT	n.a.	.000	.000	.000	.000	.002	.268
	aLMR-LRT	n.a.	.000	.000	.000	.000	.003	.274
	BLRT	n.a.	.000	.000	.000	.000	.000	.000
분류질	Entropy	n.a.	.832	.824	.837	.825	.846	.836
분류율 : 명(%)	1집단	3,655 (100)	2,371 (64.9)	660 (18.1)	1,036 (28.3)	443 (12.1)	988 (27.0)	936 (25.6)
	2집단		1,284 (35.1)	1,048 (28.7)	216 (5.9)	437 (12.0)	8 (.2)	6 (.2)
	3집단			1,946 (53.3)	640 (17.5)	213 (5.8)	219 (6.0)	362 (10.0)
	4집단				1,763 (48.2)	1,002 (27.4)	1,572 (43.0)	1,491 (40.8)
	5집단					1,559 (42.7)	410 (11.2)	217 (6.0)
	6집단						457 (12.5)	374 (10.2)
	7집단							269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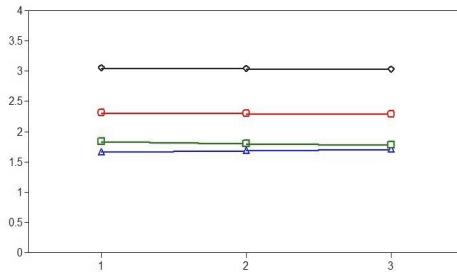
주) n.a. : 산출불가

그 결과, 정보지수인 AIC, BIC, saBIC 모두 잠재계층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정보지수로 판단하기 어려워졌기에 다른 지수를 보며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했다. LMR-LRT, aLMR-LRT, BLRT로 살펴보았을 때, 잠재계층을 6개까지 증가시켜도 계속하여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7개 계층 모델에서 LMR-LRT, aLMR-LRT의 p값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잠재계층의 수는 2개부터 6개로 좁혀졌다. 이 중 잠재계층이 6개일 경우는 1번 집단에 8명만 분류되었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보지수가 가장 낮은 경우인 잠재계층의 수가 5개인 경우를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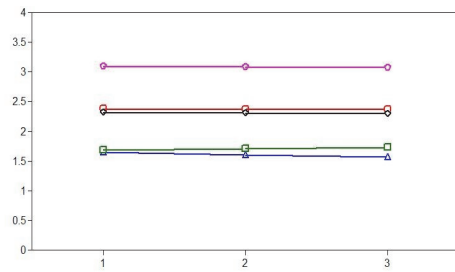
잠재계층이 5개인 경우의 도표를 살펴본 결과, 잠재계층 5개인 경우에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2개의 집단이 확인됐다(그림 2). 이에 잠재계층이 4개 유형을 살펴본 결과, [그림

1]과 같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궤적의 유사성과 Entropy값을 고려했을 때, 잠재계층을 4개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1] 잠재계층 4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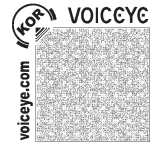
[그림 2] 잠재계층 5개 유형



2. 직업적 능력 변화유형 기술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 변화유형의 특징은 <표 2> 장애인 직업적 능력 변화유형 계층별 초기값과 변화율에 제시하였다.

계층1은 28.6%(1,046명)가 속한 집단으로 직업적 능력 초기값이 2.307로 유의하였다. 이는 중간 정도의 직업적 능력을 나타내며 변화율이 $-.009$ 로 시간이 지날수록 직업적 능력이 감소하는 궤적을 보였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이 계층의 초기값은 다른 계층의 초기값과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에 위치하였다. 한편, 변화율은 유의하지 않았기에 계층1을 ‘중능력유지형’으로 명명하였다. 계층2는 6.0%(219명)이 속한 집단으로 직업적 능력 초기값이 1.658로 유의하였다. 이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직업적 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변화율이 $.021$ 로 시간이 지날수록 직업적 능력이 증가하는 궤적을 보였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계층2를 ‘저능력유지형’으로 명명하였다. 계층3은 17.6%(642명)이 속한 집단으로 직업적 능력 초기값이 1.831로 유의하였다. 이는 낮은 수준의 직업적 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변화율이 $-.030$ 로 유의하였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직업적 능력이 감소하는 궤적을 보였다. 따라서 계층3을 ‘저능력감소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층4는 47.8%(1,748명)이 속한 집단으로 직업적 능력 초기값이 3.044로 유의하였다. 이는 높은 정도의 직업적 능력을 나타내며 변화율이 $-.006$ 로 시간이 지날수록 직업적 능력이 감소하는 궤적을 보였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계층4를 ‘고능력유지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2〉 장애인 직업적 능력 변화유형 계층별 초기값과 변화율

구분	초기값	변화율	명칭
계층1	2.307***	-.009	중능력유지형
계층2	1.658***	.021	저능력유지형
계층3	1.831***	-.030**	저능력감소형
계층4	3.044***	-.006	고능력유지형

*p < .05, **p < .01, ***p < .001

3. 직업적 능력 변화유형 특성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 변화유형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ANOVA 분석과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변수별 잠재계층별 특성(ANOVA)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첫째, 직업적 능력이 중간 수준에 위치하는 중능력유지형이다. 이 집단의 경우 평균 연령은 약 59세이며 학력은 약 10년, 자기효능감은 4점 만점 중 2.72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 집단 내에서 신체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8.8%로, 다른 유형에 비해 신체장애인의 비중이 가장 컸다.

둘째, 직업적 능력이 가장 낮은 수준에 위치하는 저능력유지형이다. 이 집단의 경우 평균 연령은 약 60.4세이며 학력은 약 2.3년, 자기효능감은 2.1로 보통 수준을 나타냈다. 이 집단 내에서 미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5.6%로 다른 유형에 비해 미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직업교육훈련을 경험한 장애인이 없었다.

셋째, 직업적 능력이 낮은 수준에 위치하는 저능력감소형이다. 이 집단의 경우 평균 연령은 약 39.2세이며 다른 유형 중 가장 낮았다. 학력은 약 12년, 자기효능감은 1.92로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 집단 내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3.0%로 다른 유형에 비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비중이 가장 컸다. 또한, 정신적 장애인이 집단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5%로, 다른 유형에 비해 정신적 장애인의 비중이 가장 컸다.

넷째, 직업적 능력이 가장 높은 수준에 위치하는 고능력유지형이다. 이 집단의 경우 평균 연령은 약 44.5세이며 학력은 약 14년, 자기효능감은 3.05로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 집단 내에서 취업자의 비중은 82.7%,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장애인의 비중은 11.8%,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비중은 77.8%로 각각 다른 유형에 비해 비중이 큰 집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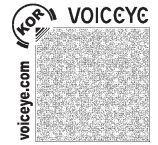
〈표 3〉 직업적 능력 잠재계층별 특성(교차분석)

(단위: 명(%))

구분		중능력 유지형(A)	저능력 유지형(B)	저능력 감소형(C)	고능력 유지형(D)	계	Scheffe	F/x2
연령(세)		59.3	60.4	39.2	44.5	48.7	C<D<A,B	816.30***
학력(년)		10.0	2.3	11.8	13.9	11.7	B<A<C<D	1,651.55***
자기효능감(1-4)		2.7	2.1	1.9	3.1	2.7	C<B<A<D	1,097.56***
취업 여부	취업자	312 (30.1)	31 (14.4)	120 (18.8)	1,458 (82.7)	1,921 (52.6)	B<C<A<D	1,271.46***
	미취업자	724 (69.9)	185 (85.6)	520 (81.3)	305 (17.3)	1,734 (47.4)		
직업교육훈련 경험	있음	18 (1.7)	0 (.0)	39 (6.1)	208 (11.8)	265 (7.3)	B<A<C<D	119.20***
	없음	1018 (98.3)	216 (100.0)	601 (93.9)	1555 (88.2)	3,390 (92.7)		
장애유형	신체적 장애	1,024 (98.8)	168 (77.8)	253 (39.5)	1,727 (98.0)	3,172 (86.8)	C<B<D,A	1,584.58***
	정신적 장애	12 (1.2)	48 (22.2)	387 (60.5)	36 (2.0)	483 (13.2)		
장애정도	중증	290 (28.0)	133 (61.6)	595 (93.0)	391 (22.2)	1,409 (38.5)	D<A<B<C	1,096.64***
	경증	746 (72.0)	83 (38.4)	45 (7.0)	1372 (77.8)	2,246 (61.5)		
계		1,036 (100.0)	216 (100.0)	640 (100.0)	1,763 (100.0)	3,655 (100.0)		

*p < .05, **p < .01, ***p < .001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직업적 능력 변화유형의 특성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하였다.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대상자(김진호, 김영준, 차재경, 2009)는 직업적 능력의 수준이 높은 유형에 다수 속해있었으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정소영, 2018) 직업적 능력 유형 분포에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취업 경험이 있고(윤지영 외, 2018b),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 경우(김용섭 외, 2010) 직업적 수준이 높은 유형에 다수 속하였다.



4. 직업적 능력 변화유형 설명요인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에 대한 4개의 잠재계층 유형에 대해 제1집단(중능력유지형)을 기준으로 설명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연령, 학력, 자기효능감,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 취업 여부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직업적 능력 잠재계층별 설명요인(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

구분	제 I 모형 2집단 vs 1집단		제 II 모형 3집단 vs 1집단		제 III 모형 4집단 vs 1집단	
	B(p)	Exp	B(p)	Exp	B(p)	Exp
연령	.100**	1.106	-.239***	.787	-.195***	.823
학력	-1.689***	.135	.289***	1.335	.803***	2.233
자기효능감	-6.221***	.001	-5.502***	.004	2.566***	13.008
장애 유형	-3.579***	.007	-6.083***	.002	-.605	.546
장애 정도	2.352***	3.944	3.829***	46.028	-.624**	.536
직업교육훈련 경험	-26.144	4.422E-12	.186	1.204	2.310***	10.079
취업 여부	-2.435***	.088	-.497	.608	3.822***	45.715
-2LL	1490.351					
x2	6906.534***					
Cox and Snell	.852					
Nagelkerke	.942					
McFadden	.813					

주) 1집단: 중능력유지형(기준), 2집단: 저능력유지형, 3집단: 저능력감소형, 4집단: 고능력유지형
*p < .05, **p < .01, *** p < .001

첫째, 제 I 모형에서 나이가 많을수록(B=.100, OR=1.106), 학력이 낮을수록(B=-1.689, OR=.135),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B=-6.221, OR=.001), 정신적 장애인일수록(B=-3.579, OR=.007),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B=2.352, OR=3.944), 미취업자일수록(B=-2.435, OR=.088) 제1집단(중능력유지형)보다 제2집단(저능력유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제 II 모형에서 나이가 적을수록(B=-.239, OR=.787), 학력이 높을수록(B=.289, OR=1.335),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B=-5.502, OR=.004), 정신적 장애인 경우(B=-6.083, OR=.002), 중증장애인일 경우(B=3.829, OR=46.028) 제1집단(중능력유지형)보다 제3집단

(저능력감소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Ⅲ모형에서 나이가 적을수록($B=-.195$, $OR=.823$), 학력이 높을수록($B=.803$, $OR=2.233$),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B=2.566$, $OR=13.008$), 경증장애인이($B=-.624$, $OR=.536$),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B=2.310$, $OR=10.079$), 취업자인 경우($B=3.822$, $OR=45.715$) 제1집단(중능력유지형)보다 제4집단(고능력유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 2차 웨이브 5차(2020년)-7차(2022년)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의 변화유형을 확인하고, 직업적 능력 변화유형별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잠재성장계층분석을 실시하여 장애인 직업적 능력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 변화유형을 살펴본 결과, 4개의 유형이 나타났다.

변화의 유형은 직업적 능력 수준이 중간에 위치한 중능력유지형, 직업적 능력이 가장 낮은 수준인 저능력유지형, 낮은 수준의 직업적 능력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저능력감소형, 직업적 능력 수준이 높은 고능력유지형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4개의 변화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취업 여부 요인으로 살펴보면 취업자 대부분이 고능력유지형(76%)에 속하였다. 다음으로 중능력유지형(16%), 저능력감소형(6%), 저능력유지형(2%) 순이었다. 저능력유지형의 직업적 능력 초기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직업적 능력이 높을수록 취업자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 요인으로 살펴보면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장애인 265명 중 대부분이 고능력유지형에 속하였다(78%). 반면, 저능력유지형은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장애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 요인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장애인이 가장 많이 속한 집단은 고능력유지형이었고, 정신적 장애인이 가장 많이 속한 집단은 저능력감소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적 장애인일수록 직업적 능력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애 정도 요인으로 살펴보면 저능력감소형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409명 중 595명(42%)이 속하였다. 반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대부분 고능력유지형에 속하였다. 연령이 많은 유형은 저능력유지형, 중

능력유지형, 고능력유지형, 저능력감소형 순이었다. 학력 수준이 높은 유형은 고능력유지형, 저능력감소형, 중능력유지형, 저능력유지형 순이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유형은 고능력유지형, 중능력유지형, 저능력유지형, 저능력감소형 순이었다.

셋째, 4개의 변화유형에 대한 설명요인을 살펴보았다.

제1집단(중능력유지형)을 기준으로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에서만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제2집단(저능력유지형)에 대해 학력과 자기효능감의 향상과 취업 경험이 직업적 능력을 중간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예측요인이었다. 다음으로 제3집단(저능력감소형)의 경우 제2집단(저능력유지형)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집단(중능력유지형)과의 차이는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와 취업 여부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나이가 오르고 자기효능감의 향상, 장애 정도의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직업적 능력이 중간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4집단(고능력유지형)의 경우 장애 유형에서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제1집단(중능력유지형)보다 나이가 적고, 학력과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장애의 정도 완화되고,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으며 취업자일 경우 제4집단(고능력유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직업적 능력 변화유형에 대한 합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 변화 유형이 구분된다는 사실은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변화 유형에 따라 개별화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저능력감소형과 저능력유지형은 중능력유지형과 비교할 때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고, 정신적 장애와 같은 중증 장애의 비율이 높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고,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할수록 직업적 능력 수준이 중간 이상으로 유지 또는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정신적 장애인을 포함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인지행동기반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직업적 성공 경험 제공을 통한 강화훈련,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애인의 직무에 대한 기대감과 도전 의식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개입은 장애인의 주관적 역량 인식을 높여 실제 직업적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변화 유형 간 차이의 주요 설명 요인으로도 확인되었다.

둘째, 중능력유지형과 고능력유지형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직업교육훈련 경험의 유무였다. 이는 장애인에게 직업교육훈련이 제공될 경우, 직업적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유완식과 이정주(2006)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특히 중증장애인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보호고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성규(2004)의 연구에서는 직업훈련시설

의 유형, 훈련직종, 훈련기간 등이 자격증 취득과 자아효능감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훈련시설의 취업알선 역량이 훈련생의 취업 가능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직업교육훈련이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뒷받침하며, 특히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직업교육 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훈련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의 변화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잠재성장계층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을 적용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장애 유형에 구분 없이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을 내생변수로 활용하고 이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유형을 나타내는 연구가 활발하지 않기에, 이러한 사례를 탐색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가 하나의 사례로 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제언과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이 고학력일수록 직업적 능력이 높다는 것과 자기효능감은 지속하여 향상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학업을 수행하며 얻는 자기효능감의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신장애인이거나 발달장애인에게 자기효능감 프로그램이 고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신적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들에 부합하는 평가도구와 더불어 프로그램 등이 설계, 보완되어야 한다. 정신적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에 대한 개념, 도구, 프로그램 등은 후속연구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이 전반적으로 유지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능력유지형에 속한 장애인의 평균 연령은 약 45세, 반면 저능력감소형에 속한 집단의 평균 연령은 약 39세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이 40대에 진입하기 전에 직업적 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직업적 능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회복이나 향상보다는 유지 또는 감소의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연령대별 맞춤형 개입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개입 전략을 시사한다. 먼저 20대 장애인의 경우, 직업적 정체성 형성과 초기 경력개발에 초점을 맞춘 자기효능감 강화 프로그램과 진로 지도 중심의 직업탐색교육을 이수한다. 이로써 실습 중심의 직업체험, 직무기술 습득, 멘토링 제도를 통해 초기 직업역량을 다질 수 있다. 다음으로 30대 장애인의 경우 직장 내 안정적 근속과 재취업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직업능력 평가를 기반으로 한 재교육, 직무 전환 훈련 및 심화 자기효능감 훈련을 병행한다. 즉, 직무전환 훈련 및 직무유지 능력 강화가 핵심이다. 40대 이상 장애인은 직업적 능력 유지와 재사회화를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 직무적응력 유지 및 건강관리와 병행한 작업환경 조정, 그리고 사회적 지지망

강화를 통한 자기효능감 보존이 핵심이며, 지역사회 기반 직업재활 프로그램이나 보조기술 활용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처럼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과 직업교육훈련은 가능한 한 조기에 시작되어야 하며, 연령대별로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직업적 능력 유지와 향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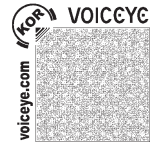
셋째, 연구 결과에서 취업 경험이 직업적 능력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실제 고용경험이 장애인의 직무수행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과 병행한 취업 기회 제공, 또는 단기 인턴십, 보호고용, 근로지원인 제도를 활용한 실질적 근로 경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 대상이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직업적 능력으로 사용한 15개 항목들을 정신장애인이거나 발달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항목인지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이 필요하다. 정신적 장애인은 직업적 능력에 자기관리나 신변처리역량 등을 고려해야 하나, 2차 자료의 사례수의 제약으로 해석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의 변화유형은 대부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시점을 최소단위인 3개로 설정하였기에 발생하는 한계점일 수 있다. 따라서 시점을 확장하고 장애인의 개인적 요인을 예측요인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8).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2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개선 매뉴얼 (2020). ISBN: 9791129022394.
- 구인순, 권미화. (2025). 작업능력평가 역량지표를 활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능력 분석 연구. 장애와 고용, 35(1), 283-302.
- 김규상, 홍창우, 김민기. (2009). 제조업 종사 근로자의 동작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 직업환경의학회지, 21(2), 115-130.
- 김성희, 변경희, 이경석, 고영진, 이승기, 황주희, 이미정, 이지은, 김동선, 이민경, 김가희, 김희선. (2014). 장애종합판정체계 도입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안국. (2007). 한국사회의 직업기초능력의 결정 요인 및 경제적 성과. 노동경제논집, 30(1), 85-108.
- 김용섭, 강대혁, 박소연. (2010). 정신분열병 환자의 직무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8(2), 107-120.
- 김진호, 김영준, 차재경. (2009). 지역사회훈련이 지적장애학생의 이동 및 직업기초기술 수행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44(2), 261-285.
- 김필호, 정규형. (2020). 장애인의 직업능력 유형화 및 취업 간의 관계. 장애와 고용, 30(3), 109-130.
- 김호진, 구연진, 고재훈, 민준영, 강혜승, 유완식, 김언아. (2017). (2차웨이브) 2016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2차웨이브 1차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박경수, 윤재영, 박정현. (2013). 장애인 고용정책 의제도출 연구. 장애와 고용, 23(3), 5-33.
- 박연진. (2019). 사회지능이 사회적기업 근무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시민사회와 NGO, 17(2), 3-41.
- 변경희, 김동범, 박경순, 박재희, 전동일, 정현주, 황현주. (2005). 장애인 직업능력 분석방법 개발연구.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변경희, 이경석, 강휘원, 원종욱, 황선철, 정두신, 김여주, 정양국, 최경식, 선우재덕, 권문일, 권선진, 이선우, 남찬우, 정봉근. (2012). 근로능력평가 중심의 장애연금 장애판정기준 개선 및 판정도구의 개발. 국민연금공단,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 변수민, 김희은. (2021). 발달장애인 고용안정 지원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유완식, 이정주. (2006).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훈련 효과분석 연구. 직업교육연구, 25(3), 111-133.
- 윤예숙. (2022). 발달장애인의 개인적 특성과 취업만족도가 직업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발달장애연구, 26(4), 139-158.



- 윤지영, 김민선. (2018a). 특성화고 학생의 인지능력이 업무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6), 77-97.
- 윤지영, 김하나, 박수정. (2018b). 직업계고 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영향요인 연구. *교육문화연구*, 24(2), 439-458.
- 이선우, 오욱찬. (2020). 장애등급제 폐지와 근로능력 평가 도입 방안. *사회보장연구*, 36(4), 57-83.
- 이성규. (2004). 장애인 직업훈련사업의 효과성과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1), 155-179.
- 이재한, 임상호. (2017).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이 직업기초능력에 미치는 영향. *산업진흥연구*, 2(1), 51-56.
- 이채식, 김명식. (2018). 임금근로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이 일자리만족에 미치는 영향. *GRI 연구논총*, 20(1), 179-200.
- 이형렬. (2008). 여성 청각장애 특수학교 졸업 근로자의 개인적, 특성, 취업경로, 직업훈련, 직업만족이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4), 145-170.
- 임언. (2006). 한국 성인의 직업기초능력 실태와 형성 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9(1), 1-24.
- 임예직, 문영민. (2021).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 유형이 노동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장애인복지학*, 53, 213-240.
- 정소영. (2018). 장애전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필요도 차이 및 영향 요인. *진로교육연구*, 31(2), 113-129.
- 정철영, 서우석, 나승일, 송병국, 이종성. (1999). 직업기초능력과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연계 실태 분석. *직업교육연구*, 18(1), 21-37.
- 최진. (2002). 근로능력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판정기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7, 8-119.
- Alavinia, S. M., Boer, A. G. E. M., Duivenbooden, J. C., Frings-Dresen, M., & Burdorf, A. (2009). Determinants of work ability and its predictive value for disability. *Occupational medicine*, 59(1), 32-7.
- Asparouhov, T., & Muthén, B. (2012). Using Mplus tech11 and tech14 to test the number of latent classes. *Mplus web notes*, 14, 1-19.
- Bolton, B. (2001). Measuring rehabilitation outcomes.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44(2): 67-75.
- Clark, S., & Muthén, B. (2009). *Relating latent class analysis results to variables not included in the analysis*. <https://www.statmodel.com/download/relatinglca.pdf>.
- Feldman, B., Masyn, K. E., & Conger, R. (2009). New approaches to studying problem behaviors: A comparison of methods for modeling longitudinal, categorical adolescent drinking data. *Developmental psychology*, 45(3), 652-676.

- Fleishman, E. A., & Mumford, M. D. (1991). Evaluating classifications of job behavior: A construct validation of the ability requirement scale. *Personnel psychology*, 44, 523-575.
- Jerusalem, M., & Schwarzer, R. (1992). *Self-efficacy as a resource factor in stress appraisal processes*. In R. Schwarzer (Ed.), *Self-efficacy: Thought control of action* (pp. 195-213). Washington DC: Hemisphere.
- Muthén, B. O., &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 Young-Min Lee., Schwarzer R., & Jerusalem, M. (1994). *Korean adaptation of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http://userpage.fu-berlin.de/~health/korean.htm>.

Abstract

Analysis of change trajectories of occupational abilities of disabled people using latent class growth model

MinCheol Shin*, Dongll Ch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ypes of changes in the occupational abilit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derive factors that explain each type.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was performed to derive latent classes according to the type of chang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s performed to examine the explanatory factors of the derived latent group. As a result of the study, a total of four types of changes in the occupational abilities of the disabled were found: medium ability-maintained group, low ability-maintained group, low ability-decreased group, and high ability-maintained group. The type of change in vocational ability was found to be explained differently depending on age, education level, type of disability, disability, employment status, vocational training experience, and self-efficacy.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e need for application of self-efficacy improvement programs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s a way to improve the vocational abilities of the disabled. In addition, the level of occupational competency is often maintained, suggesting that intervention should occur at a younger age.

Keywords :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occupational ability, occupational disability,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self-efficacy

* Master's Degree in Social Welfa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Division of Social Welfa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논문 투고 : 2025.04.15.	논문 심사 : 2025.05.26.	게재 확정 : 2025.06.13.
---------------------	---------------------	---------------------

장애의재해석 제6권 제1호
2025 Vol. 6, No. 1, 185 - 210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네트워크 분석 : 부르노 라투르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이재욱*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문제를 단순한 제도나 물리적 접근성으로 보지 않고,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가 얽힌 사회기술적 네트워크로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부르노 라투르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을 분석틀로 삼고, 신길역 리프트 사고, 국회 토론회, 척수장애인의 보조기기 사용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동권 네트워크는 복잡적이고 유동적인 구조이며, '번역' 과정을 통해 구성되고 권력관계와 정치성을 내포하며, 에이블리즘에 저항하는 투쟁의 장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이동권을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함으로써, 제도 중심 분석의 한계를 넘는 새로운 분석 틀을 제시한다.

주제어 : 이동권,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 비인간 행위자, 번역, 에이블리즘

*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장애학과 박사과정

I. 서론

이동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삶을 영위하고, 교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문영임, 2022; 윤수정, 2023). 그러나 이러한 법적·제도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이 마주하는 이동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는 이동이 여전히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주고, 저상버스 도입률은 수년째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며, 특별교통수단은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박승원, 2018; 공마리아 외, 2022). 보도의 턱, 부적절한 경사로, 부족한 편의시설 등은 일상적인 이동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물리적 장벽으로 존재한다(양정빈, 최운영, 2022).

이러한 장벽들은 종종 비장애인 중심의 에이블리즘적 위상학(ableist topology)을 구현하는 인프라로 구축된다(Velho, 2021; Osman & Porkertová, 2023).¹⁾ 비장애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하여 보이지 않는 시설물들이 장애인에게는 이동을 가로막고 네트워크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하는 '사회적 돌멩이'로 작동하는 것이다(Osman & Porkertová, 2023).²⁾ 이처럼 법과 현실, 선언과 인프라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괴리는, 이동권 문제를 단순히 법률 제정이나 시설 확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동권은 인간의 몸, 휠체어, 버스, 리프트, 법률, 정책, 예산, 인식, 공간 등 다양한 인간적·비인간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상호작용하며 구성되는 '사회-기술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사회적인 것'이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 같은 이질적 관계망이 서로의 특성을 규정하며 얽히는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Latour, 2005: 1)

이러한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과 사물, 사회와 자연을 분리하려는 근대적 사고방식의 허상을 지적하며 현실 세계가 이질적인 요소들이 뒤섞인 하이브리드(hybrid)로 가득 차 있음을 역설한 부르노 라투르(Latour, 1993)의 통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동권 네트워크는 바로 이러한 하이브리드의 전형이다. 따라서 이 네트워크를 제대로 이해하

1) 위상학(topology)은 단순히 공간의 물리적 배치를 넘어, 공간·사물·신체·규범 등이 서로 관계 맺는 방식과 그에 따른 배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에이블리즘적 위상학'은 사회의 물리적·제도적 환경이 비장애인의 신체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장애인의 신체를 자연스럽게 배제하거나 '결함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는 관계적 지형을 뜻한다(Osman & Porkertová, 2023).

2) Osman과 Porkertová(2023)는 비장애인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장애인의 이동을 가로막는 문턱, 연석 등의 물리적 장벽을 '사회적 돌멩이'에 비유했다. 이는 특정 사회 구성원에게만 장애물로 작동하는 에이블리즘적 환경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이다.

기 위해서는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를 동등한 분석적 지위에 놓고 이들의 관계 맺음과 상호작용, 즉 번역(translation) 과정을 추적하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이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Latour, 2004; 최병두, 2015; 박은주, 2020).

더 나아가, 최근 장애학(Disability Studies)과 과학기술학(STS)의 논의는 ANT적 관점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인프라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Velho, 2021), 장애인도 이러한 인프라에 수동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천을 통해 네트워크에 개입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행위자이다. 신길역의 리프트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선 행위자가 되었고, 장애인들의 지하철 투쟁은 도시의 인프라와 정치적 담론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과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ANT를 핵심 분석틀로 삼고 한국 사회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네트워크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신길역 리프트 추락사고, 장애인 이동권 토론회, 척수장애인의 보조공학기기 사용 경험이라는 세 가지 질적 사례를 중심으로 다음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네트워크는 어떤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둘째, 이들 행위자는 ‘번역’ 과정을 통해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위상학(topology)을 변형시키는가? 셋째, 이 네트워크의 주요 특징과 갈등 지점,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된 권력 관계와 ‘정치적’ 역동성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복잡한 관계를 고려하는 보다 실효성 있고 정의로운 이동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인 이동권 : 권리, 현실, 그리고 네트워크의 필요성

이동권은 모든 인간이 사회의 물리적·정보적 환경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이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사회의 모든 영역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이자,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와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문영입, 2022; 윤수정, 2023). 특히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사회적 장벽

에 부딪혀 비장애인이 당연하게 누리는 이동의 자유를 제약받는 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로서 더욱 강조된다(허창덕, 신주영, 2011). 장애인의 이동 제약은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여가 등 삶의 전반에 걸친 기회 박탈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사회적 고립과 배제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이유신, 김한성, 2019; 김득연, 박종균, 2020).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이동권은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망 사고를 계기로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였으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끈질긴 투쟁을 통해 법적 권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윤수정, 2023). 그 결과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어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운행,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며(문영임, 202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저상버스 도입률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특별교통수단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며, 휠체어 리프트는 안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박승원, 2018; 공마리아 외, 2022). 보행 환경 역시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통행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양정빈, 최윤영, 2022). 이는 이동권 보장이 단순히 법률 조항이나 시설의 양적 확충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법·제도, 기술, 인프라, 예산, 정책 집행,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네트워크’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동권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과 이들의 관계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2.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 : 하이브리드 세계의 지도 그리기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은 미셸 칼롱(Michel Callon),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 존 로(John Law) 등을 중심으로 발전한 이론으로,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 인간 행위자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인 관점을 비판하며 등장했다. ANT의 핵심은 라투르(Latour, 1993)가 지적한 ‘근대적 협약’³⁾의 해체에 있다. 근대는 자연과 사회, 사물과 인간을 분리하는 ‘정화(Purification)’ 작업을 통해 발전해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

3) 라투르가 말하는 ‘근대적 협약’은 한편으로는 자연과 사회, 사물과 인간을 철저히 분리하는 ‘정화(Purification)’ 작업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끊임없이 뒤섞여 새로운 ‘하이브리드(Hybrid)’를 만들어 내는 ‘번역(Translation)’ 작업을 비공식적으로 수행해 온 근대성의 모순적 특징을 의미한다(Latour, 1993).

들을 끊임없이 섞어 ‘하이브리드(Hybrid)’를 만드는 ‘번역(Translation)’ 작업을 수행해왔다는 것이다. ANT는 바로 이 숨겨진 번역 작업과 하이브리드에 주목하며, 인간과 비인간(사물, 기술, 텍스트, 자연 등)이 어떻게 동등한 행위자(Actor/Actant)로서 관계를 맺고 이 질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세상을 구성하는지를 추적하고 기술한다(Latour, 2005; 최병두, 2015; 박은주, 2020).

이를 위해 ANT는 다음과 같은 핵심 개념들을 제시한다. 첫째, ‘행위자’는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존재를 의미하며, 인간과 비인간을 동일한 분석 대상으로 삼는 ‘대칭성의 원칙’⁴⁾을 따른다(Latour, 2005; 최병두, 2015; 김정호, 강주희, 2022). 이동권 네트워크에서 월체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용자의 신체와 결합하여 새로운 이동 능력을 부여하고, 때로는 고장 나거나 장벽에 부딪히며 이동을 방해하는 강력한 행위자이다. 월체어 리프트(박승원, 2018)나 도로의 돌맹이(Osman & Porkertová, 2023) 역시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의 흐름을 바꾸는 행위성을 지닌다.

둘째, ‘네트워크’는 이러한 이질적 행위자들이 맺는 관계들의 총체이며,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변형되는 과정 그 자체이다. ANT는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고 안정화되거나 혹은 해체되는지를 추적한다(Latour, 1993, 2004). 여기서 안정화란 ‘블랙박스화(black-boxing)’를 의미하는데, 이는 수많은 행위자들의 복잡한 협상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더 이상 그 내부가 문제되지 않고, 마치 하나의 단일하고 당연한 사실이나 기술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태를 뜻한다.

셋째, ‘번역’은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역할을 부여하며, 정체성을 규정하는 일련의 협상 과정이다. 이는 문제제기(problematization)를 통해 특정 행위자가 문제를 정의하고 다른 행위자들이 반드시 거쳐 가야 할 의무통과점(OPP)⁵⁾을 설정하는 과정, 설정된 문제에 다른 행위자들의 관심을 끄는(interressement) 과정, 이들을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역할을 부여하며 등록(enrolment)시키는 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들을 동원(mobilization)하여 네트워크의 힘을 확장하는 단계로 설명된다(김상태, 김남조, 2018; 곽은주, 김동미, 2022).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권력 관계와 ‘정치적’

4) 대칭성의 원칙은 인간과 비인간이 존재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 연구자가 인간의 의도나 사회 구조만을 특권적인 원인으로 미리 가정하지 않고, 비인간 행위자 역시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로 동등하게 추적해야 한다는 방법론적 원칙을 의미한다(Latour, 2005: 76).

5) 의무통과점(OPP)은 번역의 첫 단계인 ‘문제제기’ 과정에서 설정되는 핵심적인 전략이다. 이는 특정 주동자가 다른 행위자들의 문제와 정체성을 정의한 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들이 제안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 정책 등을 거쳐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해결책을 다른 모든 행위자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지점으로 만들으로써,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어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이다(Callon, 1986).

협상을 수반한다(Latour, 2004).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ANT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장애인, 활동가, 공무원 등)과 비인간(휠체어, 버스, 법률, 인프라 등)이 어떻게 서로를 번역하며 ‘접근 가능한 위상학’ 혹은 ‘에이블리즘적 위상학’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문제로 재해석될 수 있다(Osman & Porkertová, 2023). 또한 장애인들이 인프라와 상호작용하며 네트워크를 변화시키는 과정(Velho, 2021)을 포착하는 데 ANT는 강력한 분석 도구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ANT의 시각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네트워크의 복잡한 역동성을 기술하고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며,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네트워크가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특히, 현실 세계의 맥락 안에서 특정 현상이나 사건을 ‘어떻게(how)’ 그리고 ‘왜(why)’라는 질문을 통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데 강점을 지닌 질적 사례 연구(Qualitative Case Study) 방법을 핵심 연구 설계로 활용하였다(Yin, 2018).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이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고 ‘기술’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이동권 네트워크의 실제 작동 방식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질적 사례 연구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다.

1. 사례 선정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둘러싼 네트워크를 단일한 관점에서 이해하기보다, 거시적(사회 구조 및 갈등), 중시적(정책과 담론의 형성), 미시적(개인의 경험과 기술의 상호작용) 차원을 아우르는 다층적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 틀에 따라, 본 연구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식을 통해 각기 다른 층위와 맥락을 대표하는 세 가지 사례를 전략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이동권 보장이라는 복합적 현상을 보다 입체적이고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Yin, 2018).

첫 번째 사례는 2017년에 발생한 ‘신길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망 사고’로, 이는 장애인의 이동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기술적 실패, 정책적 무관심이 교차하는 대표적인 거시

적 사례이다. 본 사례는 이동권 네트워크의 참여한 충돌 지점을 보여주며, 당시의 언론 보도(박승원, 2018)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두 번째 사례는 2019년 국회에서 개최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이다. 이 사례는 정책 결정자, 전문가, 시민사회 주체들이 참여한 공론의 장으로서, 이동권 담론이 형성되고 정책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증시적 사례이다. 분석은 해당 토론회 자료집(국회의원 김철민 외, 2019)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세 번째 사례는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보조공학기기 사용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채수영, 안나연, 2012)이다. 이 사례는 보조기기라는 비인간 행위자와 장애 당사자의 일상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동권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보여주는 미시적 사례로, 인간과 기술의 결합이 갖는 의미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2.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이동권을 둘러싼 복합적인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해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을 분석 틀로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선정된 세 가지 사례에 대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각 사례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과 맥락 파악을 통해 사건의 전개 과정, 주요 쟁점, 그리고 등장하는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사례 자료(뉴스 기사, 토론회 자료집, 학술 논문)를 반복적으로 정독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사회적·정치적 배경과 맥락을 정리하고, 각 사례의 고유한 특성과 맥락적 조건을 서술하였다.

이후, ANT의 대칭성 원칙에 입각하여 사례별로 이동권 네트워크에 관여하는 모든 인간 행위자(예: 장애인 당사자, 정책결정자, 언론, 시민단체 등)와 비인간 행위자(예: 휠체어 리프트, 보조기기, 법률 문서 등)를 식별하고 이들을 목록화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기술적 장치와 제도적 장치도 주체적으로 작동하는 행위자로 간주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식별된 행위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지를 ANT의 핵심 개념인 ‘번역(translation)’의 네 가지 단계, 즉 문제제기(problematization), 관심끌기(interressement), 등록(enrolment), 동원(mobilization)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어떤 행위자가 문제를 정의하고, 다른 행위자들을 네트워크로 끌어들이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설득 또는 저항이 발생했는지를 면밀히 추적하였다. 이와 함께, 의무통과점(obligatory passage point, OPP)이나 블랙박스의 형성 및 해체와 같은 ANT의 확장 개념도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 사례별로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과 번역 구조를 시각적 또는

서술적 방식으로 ‘매핑(mapping)’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네트워크의 특성과 구조적 역학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사례를 비교·종합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네트워크가 가지는 공통적 특징과 제도적 한계, 그리고 ANT 이론이 제공하는 해석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3.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이라는 명확한 이론적 틀과 Yin(2018)이 제시하는 사례 연구의 절차를 분석 과정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하여 연구의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둘째, 사회적 갈등(뉴스 기사), 정책 담론(토론회 자료집), 개인의 기술 경험(학술 논문)이라는 각기 다른 성격의 문헌 자료를 활용하여, 단일 관점이 아닌 다각적 관점에서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데이터 삼각 측량(data triangulation)의 전략에 기반한다. 셋째, 분석 과정과 결과를 최대한 상세하고 투명하게 기술하여 독자가 연구의 진행 과정을 추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전략들은 구성 타당도(construct validity)와 신뢰성(reliability)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IV.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앞서 선정한 세 가지 사례인 신길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망 사고, 장애인 이동권 토론회, 척수장애인의 보조공학기기 사용 경험을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각 사례 분석은 먼저 사례의 내용을 요약하는 ‘사례 개요’를 제시하고, 이어 ANT의 핵심 개념인 행위자, 번역, 네트워크를 적용하여 ‘ANT 관점 분석’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1. 신길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 : ‘살인기계’와 죽음의 네트워크

1) 사례개요

2017년 10월 20일, 베트남 상이군인이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원팔이 마비된 한경덕

씨는 신길역 1·5호선 환승 계단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 호출 버튼을 누르려 했다. 오른팔만 사용할 수 있었던 그는 버튼에 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 전동휠체어를 조작하던 중, 충분치 않은 공간과 조작의 어려움으로 인해 계단 아래로 추락했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98일 만인 2018년 1월 25일 세상을 떠났다.

유가족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에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공사는 ‘기계에는 문제가 없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이에 유가족과 장추련은 2018년 3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호출 버튼의 위험한 위치(사고 이후에야 변경됨)와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자체의 근본적인 안전 결함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공사는 법적 규정을 모두 지켰으며 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01년 오이도역 참사 이후 잠잠해졌던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다시 점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인 단체들은 상복 시위, 지하철 연착 투쟁 등을 벌이며 서울시의 사과와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결국 2018년 9월, 공사 사장이 유가족에게 사과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 미비와 소송 미취하로 ‘반쪽짜리 사과’라는 비판을 받았다. 비극적이게도, 한경덕 씨 1주기 추모제가 열리던 날에도 신길역 리프트는 또다시 공중에서 멈추는 사고를 일으켰다(박승원, 2018).

2) ANT 관점 분석

신길역에서 발생한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둘러싼 네트워크가 얼마나 취약하며,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이 어떻게 얽혀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고, 이후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본 사례는 ANT의 분석 틀을 적용하여 행위자 식별, 번역 과정의 추적,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된다. 먼저, 이 사건에 개입된 행위자들은 매우 다양하다. 인간 행위자로는 피해자 고 한경덕 씨와 그 유가족,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장애인 단체(장추련) 활동가, 변호사 및 판사, 당시 서울시장, 지하철 이용 시민, 언론 보도 기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과 더불어, 전동휠체어와 마비된 신체 일부, 신길역 계단과 협소한 공간, 문제의 휠체어 리프트와 호출 버튼, 관련 법률과 지침, 손해배상 소송 절차, 시위 현장에서 사용된 상복과 관, 지하철 시스템 자체, 대안으로 제시된 엘리베이터, 서울시의 장애인 이동권 선언, 언론 보도 기사 등은 모두 비인간 행위자로 기능하며 네트워크 형성과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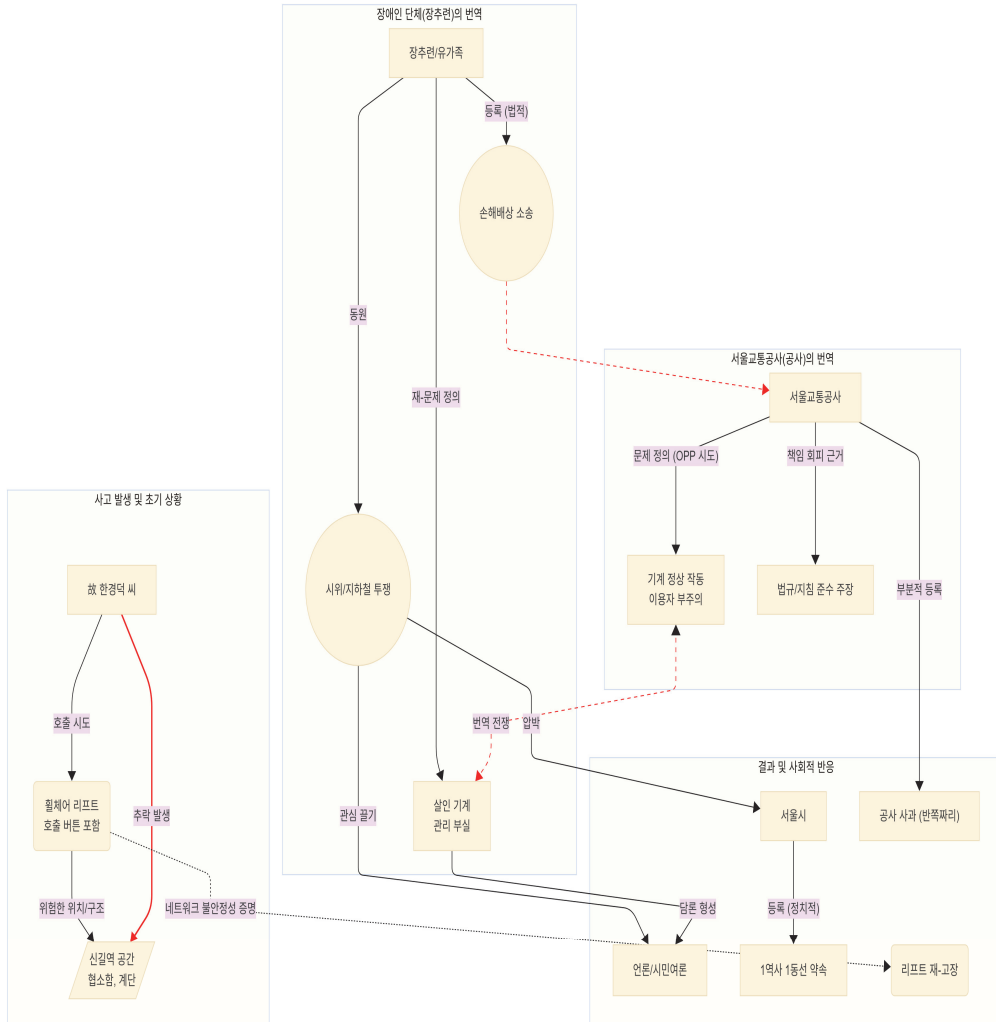
이 행위자들이 ‘번역’ 과정을 통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충돌했는지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신길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의 번역 과정 분석

번역단계	사례내용 분석	
문제제기	서울교통공사	· 사고 원인을 '이용자 부주의'와 '기기의 정상 작동'으로 정의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의무통과점(OPP)으로 설정하려 시도함
	장애인 단체	· 사고를 '위험한 리프트'와 '관리 부실'의 결과로 재규정하고, 휠체어 리프트를 '살인 기계'라는 강력한 은유로 번역하여 공공 안전의 문제로 전환하고자 함
관심끌기	서울교통공사	· '법적 규정 준수'를 내세워 법원과 여론의 관심을 책임론에서 벗어나게 하려 함
	장애인 단체	· 상복 시위, 지하철 연착 투쟁, 기자회견 등의 활동으로 시민사회와 언론의 주목을 이끌고, '살인 기계' 팻말로 휠체어 리프트를 공사 책임의 상징으로 만들
등록	장애인 단체	· 법원을 통해 공사의 법적 책임을, 언론을 통해 여론 형성 시도, 서울시에 '1역사 1동선' 약속을 등록하여 책임을 물음
	서울교통공사	· 법적 규정을 내세워 방어함. 행위자들은 서로를 피해자, 책임자, 투사 등으로 규정했으나, '반쪽짜리 사과'에서 보이듯 완전한 등록에는 실패함
동원	장애인 단체	· 지하철 투쟁으로 당사자와 시민의 참여를 동원했으며, 언론은 여론 형성의 중심 매개체로 작용함
	불완전한 동원	· 공사의 사과를 이끌어 냈으나, 리프트가 계속 운동되고 문제가 미해결 되면서 1주기 추모제 당일 리프트가 다시 멈춘 사고 등은 동원이 완결되지 못하고 네트워크가 여전히 불안정함을 보여줌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사례의 네트워크는 '취약성'과 '갈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무엇보다도 휠체어 리프트와 호출 버튼이라는 비인간 행위자가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보조기술을 넘어선 사회적 행위자의 위상을 지닌다. 또한 이 사건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번역 전쟁'이 어떻게 발생하며, 이에 대응한 투쟁이 새로운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결과적으로 신길역 리프트 사고는 이동권 보장이 단순히 물리적 접근성이나 기술적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이 얽힌 복잡한 사회-기술적 네트워크의 문제임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이상의 분석을 시각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신길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 사례의 행위자-네트워크 맵



2. '장애인 이동권 토론회' : 정책·담론 형성네트워크

1) 사례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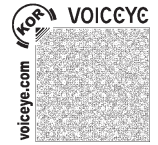
2019년 12월 20일, 국회의원 김철민,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는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과 과제를 진단하고, 특히 「교통약자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된 표준 조례안 등을 논의하며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장애인 단체 활동가, 자립생활센터 관계자, 공공교통 전문가 등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여 특별교통수단의 법적 정의와 운영 실태, 지역별 운영 격차, 이용 대상자 범위, 광역 이동 지원 시스템 부재, 이용 요금, 운전원 처우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참석자들은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요구와 함께,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공공성 강화 및 표준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토론회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정책적·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녔다(국회의원 김철민 외, 2019).

2) ANT 관점 분석

이 토론회는 이동권 네트워크가 정책적이고 담론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협상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의 틀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공론장은 특정 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다양한 행위자들을 동원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의도적인 '번역'의 장이 된다.

이 네트워크에는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이 개입하며 상호작용한다. 인간 행위자로는 국회의원 김철민과 같은 정치적 후원자, 전장연 및 자립생활센터 활동가와 같은 권리 주장자, 그리고 공공교통 전문가와 같은 지식 제공자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이동권을 '생존권'과 '일상 경험'의 문제로 제기하는 당사자의 논리와 '예산'과 '행정 효율성'을 우선하는 정책·행정의 논리를 충돌시키며 협상을 시도한다.

여기에 「교통약자법」이라는 법률,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기술-서비스 복합체, 휠체어와 같은 이용 기준 장치, 표준 조례안, 토론회 자료집, 통계 자료, 국회의원회관이라는 공간, 예산이라는 정책 자원, 지역 간 격차라는 구조적 문제 등이 비인간 행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통계나 사례 자료는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근거'로 기능하고, 기존의 「교통약자법」은 '논의의 대상'이 되며, 새롭게 제시된 '표준 조례안'은 모든 행위자가 반드시 거쳐야 할 핵심적인 '의무통과점(OPP)'으로 제시된다.



이 행위자들이 ‘번역’을 통해 어떻게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려 했는지는 아래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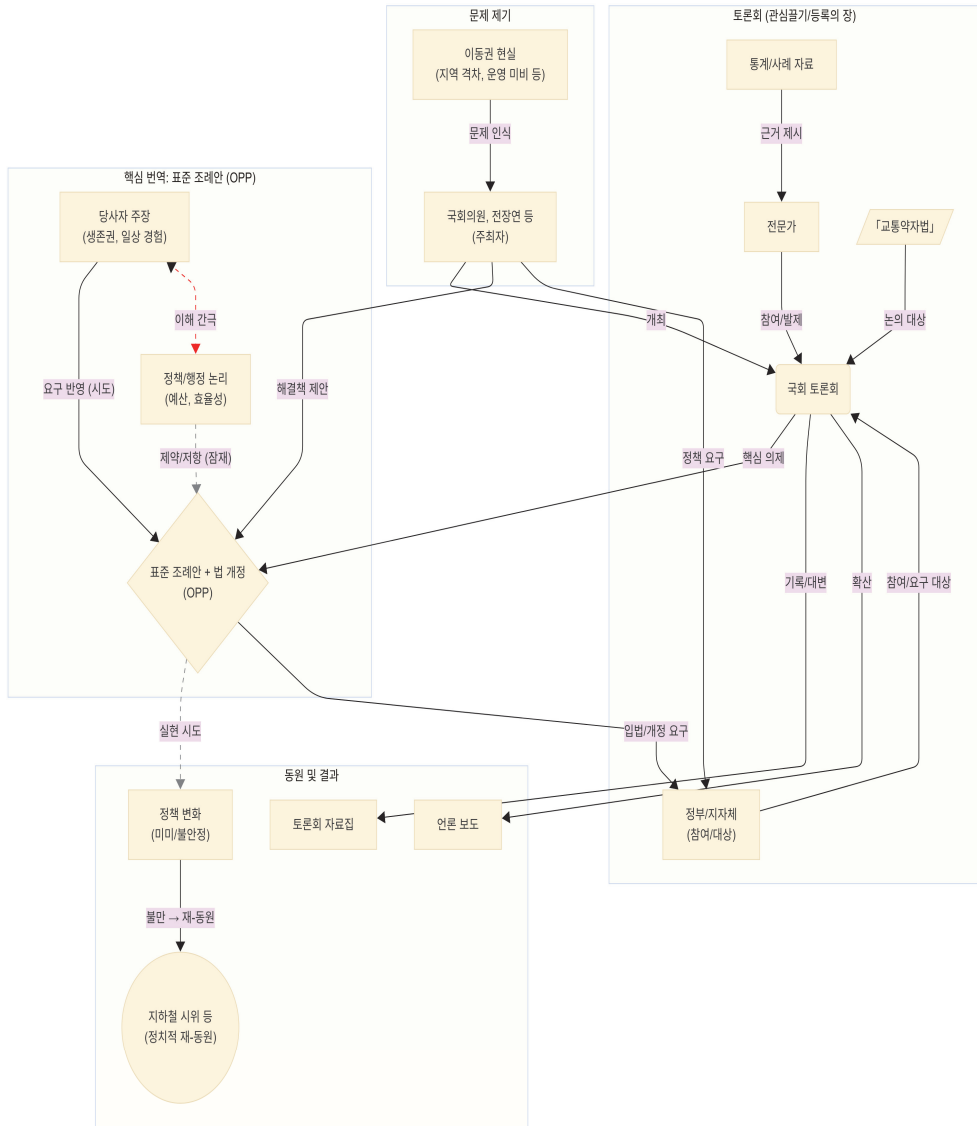
<표 2> 장애인 이동권 토론회의 번역 과정 분석

번역단계	사례내용 분석
문제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최측(국회의원, 장애인 단체 등)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문제점(지역 불균형, 규정 모호성 등)을 이동권 보장의 핵심 장애물로 규정함 · 의무통과점(OPP)설정 : ‘실질적 이동권 보장’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표준 조례안 제정’과 관련 ‘법 개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의무통과점으로 제안함
관심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자료, 실제 불편 사례, 법률 조항 분석 등을 통해 정책결정자와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킴 · ‘표준조례안’이라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단순 문제 제기를 넘어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관심을 집중시킴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회라는 장을 통해 각 참여자에게 역할을 부여함(장애인 단체=요구자, 전문가=조언자, 국회의원=정치적 지원자, 정부=책임주체) · 비인간 행위자인 ‘교통약자법’은 개선되어야 할 규범으로, ‘표준 조례안’은 바람직한 해결안’으로 등록시키려 시도함
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회 개최 자체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동원하려는 전략으로 가능함 · 토론회 자료집과 언론 보도를 ‘대변인’으로 삼아, 논의된 내용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제도 변화를 위한 지지 기반을 동원하고자 함 · 정책 결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음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토론회는 본질적으로 담론적이며 정치적인 네트워크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 드러난다. 행위자들은 물리적 힘보다 담론, 법률 문서, 통계, 정책언어, 정치적 연대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 중심에는 비인간 행위자인 법률, 조례안, 공간 등이 존재한다. 특히 ‘표준 조례안’은 토론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 작동하며, 행위자 간의 해석과 협상의 장을 매개한다.

이 사례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블랙박스로 안정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경쟁과 번역, 설득과 저항의 과정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며,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네트워크 구성의 복잡성을 드러낸다. 이상의 분석을 시각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장애인 이동권 토론회 사례의 행위자-네트워크 맵



3. 척수장애인의 보조공학기기 사용 경험 : 인간-기술 하이브리드

1) 사례개요

채수영과 안나연(2012)의 연구는 보조공학기기, 특히 휠체어 사용이 척수손상 장애인의 심리사회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다. 이 연구는 척수손상 장애인 59명을 대상으로 한국어판 PIADS(Psychosocial Impact of Assistive Devices Scale)를 사용하여 휠체어 사용 전후의 능력, 적응성,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측정했다. 연구 결과, 휠체어 사용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수동 휠체어 사용자보다 전동 휠체어 사용자에게서 심리사회적 영향 점수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휠체어 사용은 척수장애인의 '능력'과 '적응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는 보조공학기기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사용자의 심리사회적 상태와 삶의 질에 깊숙이 관여함을 시사한다(채수영, 안나연, 2012).

2) ANT 관점 분석

척수손상 장애인의 휠체어 사용 경험은 인간과 기술이 결합하여 새로운 행위 주체, 즉 '하이브리드(hybrid)'를 형성하고, 이 하이브리드가 주변 환경 및 사회와 상호작용하면서 이동권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앞선 거시적, 중시적 차원의 분석과 달리, 이 미시적 사례는 이동권이 한 개인의 삶 속에서 기술과 결합하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또 좌절되는지를 생생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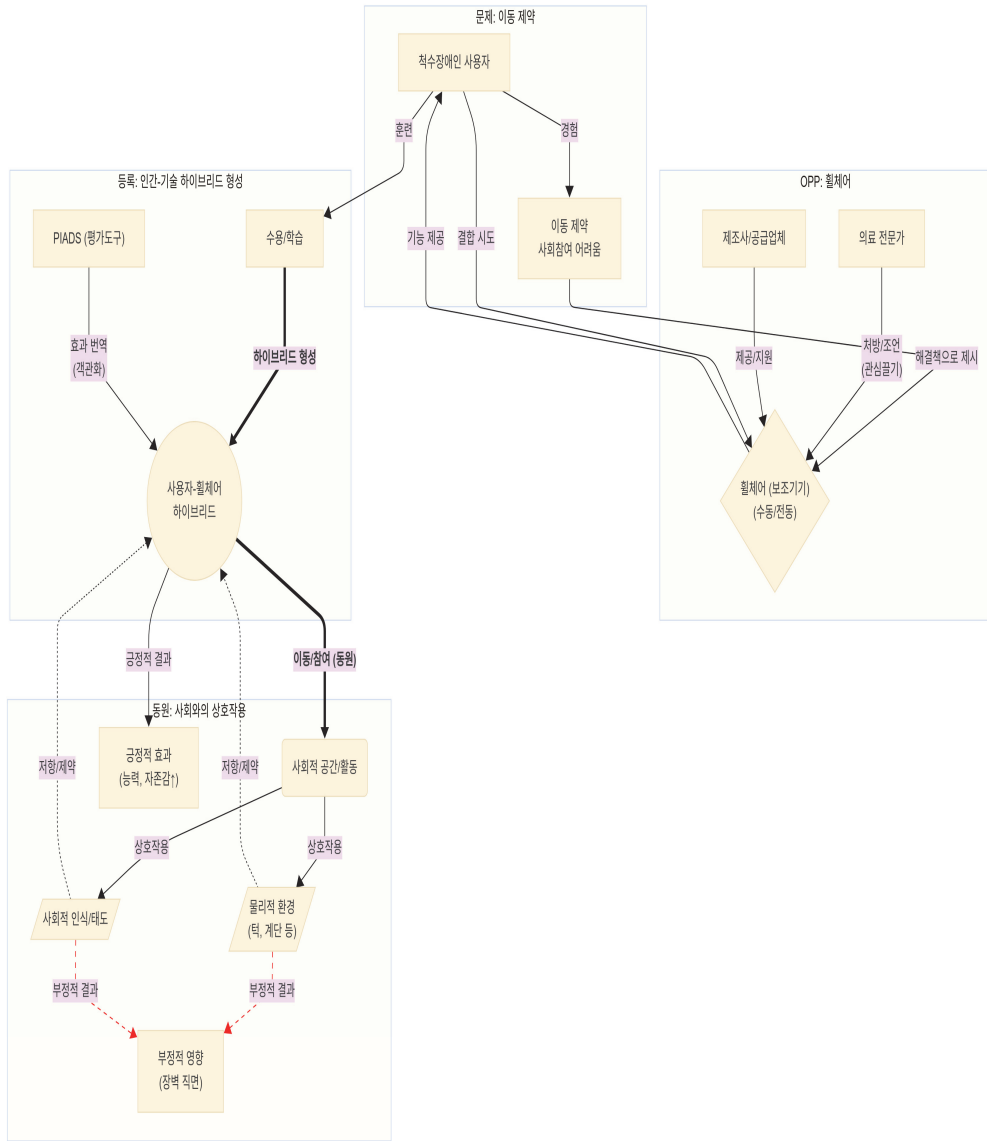
이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척수장애인 사용자와 그들의 신체(손상된 척수, 남아있는 기능), 그리고 수동 또는 전동 휠체어라는 핵심 비인간 행위자가 있다. 이들은 단순히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행위성을 구성하고 재구성하는 강력한 하이브리드를 형성한다. 이 '인간-기술 하이브리드'의 형성은 이동권이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기술의 결합을 통해 능동적으로 '수행'되는 권리임을 보여준다. 또한 이 네트워크에는 휠체어를 처방하고 훈련시키는 의료 전문가, 휠체어를 제조·공급하는 기업, 휠체어 사용 효과를 평가하는 PIADS와 같은 도구, 휠체어가 통과해야 할 집과 거리, 대중교통 등 물리적 환경, 그리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 사용자의 자아존중감·우울감 등 심리사회적 요인도 주요 행위자로 포함된다. 이 다양한 행위자들은 하이브리드 주체의 이동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리적,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며 그 행위성을 제약하기도 한다. 이 행위자들이 '번역'을 통해 어떻게 인간-기술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가는지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척수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사용 경험 번역 과정 분석

번역단계	사례내용 분석
문제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점 : 척수손상으로 인한 '이동의 제약'과 '사회 참여의 어려움'이 문제로 제기됨 · 의무통과점(OPP) 설정 :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독립적 이동'과 '사회 복귀'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휠체어'가 의무통과점으로 설정됨
관심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의 다양한 기능(전동 기능, 맞춤 설정 등)이 더 나은 이동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심어주며 사용자의 관심을 끄 · 의료 전문가는 휠체어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며 사용자의 관심을 휠체어로 집중시키는 역할을 함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는 휠체어를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조작법을 익히며, '휠체어 사용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네트워크에 등록됨 · PIADS와 같은 평가 도구는 휠체어 사용의 긍정적 효과를 '객관적 데이터'로 번역하여, 이 관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네트워크를 안정화시킴
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적으로 번역된 '사용자-휠체어 하이브리드'는 이전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사회 공간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함(동원) · 그러나 이 동원 과정은 물리적 환경(턱, 계단)이나 사회적 편견과 같은 다른 행위자들의 저항에 부딪히기도 함

이와 같은 분석은 휠체어 사용 경험을 인간과 기술의 결합체인 하이브리드로 이해할 때, 이동권 네트워크가 단순히 기계 장치의 문제를 넘어서 심리사회적·문화적 요소와 밀접하게 얽힌 사회기술적 시스템임을 보여준다. 휠체어는 단순한 보조 도구가 아니라, 사용자의 정체성과 이동성을 동시에 형성하는 존재이며, 그 행위성은 주변 행위자들에 따라 끊임없이 협상되고 재구성된다. 특히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이 하이브리드의 이동과 사회 참여를 어떻게 매개하고 제약하는지를 드러내는 점에서, 본 사례는 Osman과 Porkertová(2023)가 제시한 '에이블리즘적 위상학(ableist topology)'의 개념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이상의 분석을 시각화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척수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사례의 행위자-네트워크 맵



4. 종합분석 : 장애인 이동권 보장 네트워크의 역동성

앞서 분석한 세 가지 사례는 각각 거시적(사회적 갈등), 중시적(정책/담론 형성), 미시적(개인/기술의 상호작용) 차원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네트워크의 서로 다른 단면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개별 사례 분석을 종합함으로써, 우리는 한국 사회 장애인 이동권 보장 네트워크가 갖는 보다 일반적인 특징과 그 역동성을 ANT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이동권 네트워크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이질적이고 불안정한 결합체이다. 세 사례 모두에서 법률, 정책, 예산과 같은 제도적 행위자, 휠체어, 리프트, 저상버스, 보조 기기와 같은 기술적 행위자, 그리고 도로, 건물, 계단과 같은 물리적 환경 행위자들이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정책 입안자, 전문가 등 인간 행위자들과 복잡하게 얽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었다. 신길역 사례에서 ‘휠체어 리프트’와 ‘호출 버튼’은 단순한 사물을 넘어 한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결정적 행위자로 부상했으며, 이동권 토론회 사례에서는 ‘교통약자법’과 ‘표준 조례안’이라는 텍스트적 행위자가 논의의 중심축 역할을 했다. 척수장애인 사례에서는 ‘휠체어’가 사용자의 신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정체성과 행위성을 지닌 ‘인간-기술 하이브리드’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결코 고정되거나 안정적이지 않으며,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 기존 행위자의 이탈,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유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둘째, 네트워크의 형성과 변형은 끊임없는 ‘번역’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세 사례 모두에서 특정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관철하고 다른 행위자들을 네트워크로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한 ‘번역’ 작업을 수행했다. 신길역 사고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둘러싸고 서울교통공사와 장애인 단체 간에 극명한 문제제기 경쟁이 벌어졌으며, ‘휠체어 리프트’는 중립적인 기계에서 ‘살인 기계’로 번역되었다. 이동권 토론회는 그 자체가 이동권 문제를 특정 방식으로 정의하고(문제제기), 관련 행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며(관심끌기, 등록), 사회적 지지를 동원하려는 거대한 번역의 장이었다. 척수장애인 사례에서는 휠체어가 사용자의 ‘이동 제약’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의무통과점’으로 제시되고, 사용자는 휠체어를 통해 새로운 능력과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휠체어,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번역해 나갔다. 이러한 번역 과정은 결코 일방적이거나 순탄하지 않으며, 저항, 협상, 타협, 그리고 실패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셋째, 이동권 네트워크는 ‘에이블리즘적 위상학’과 이에 저항하는 힘겨루기의 장이다. Osman과 Porkertová(2023)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은 종종 비장애인 중심의 ‘에이블리즘적 위상학’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에게 수많은 장벽으로 작용한다. 신길역의 위험한 리프트와 호출 버튼, 토론회에서 지적된 접근

불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척수장애인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물리적 환경의 제약들은 모두 이러한 에이블리즘적 위상학의 구체적인 발현이다. 그러나 장애인과 그들의 연대 네트워크는 이러한 기존의 위상학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 소송, 정책 제안, 기술의 창의적 활용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새로운 ‘접근 가능한 위상학’을 구축하려 노력한다. 이동권 투쟁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힘겨루기의 과정이며, 네트워크의 위상학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투쟁과 협상을 통해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비인간 행위자의 ‘대변’과 ‘등록’이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효과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동권 네트워크에서 법률, 정책, 기술, 인프라와 같은 비인간 행위자들은 스스로 말할 수 없기에,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변하며 네트워크에 등록시키느냐가 중요하다. 신길역 사고에서 ‘법적 규정’은 공사의 면책 논리를 대변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고, 장애인 단체에게는 개정되어야 할 불완전한 행위자로 인식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 ‘표준 조례안’은 이상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지만, 이것이 각 지자체의 조례로 성공적으로 등록되고 동원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척수장애인에게 휠체어는 성공적으로 등록되어 신체의 일부처럼 기능할 때 강력한 이동성을 제공하지만, 제대로 맞지 않거나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가 부재할 경우 오히려 또 다른 제약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비인간 행위자들을 인간 행위자들의 의도와 필요에 맞게 성공적으로 번역하고 등록시키는 과정이 이동권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세 가지 사례 분석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네트워크가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이 네트워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번역되고 재구성되는 과정 중에 있으며, 에이블리즘적 구조에 맞서 새로운 관계 맺음과 위상학을 창조하려는 노력이 지속되는 투쟁의 장이기도 하다.

V. 결론

본 연구는 브루노 라투르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을 핵심적인 분석틀로 삼고, 한국 사회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작동하는 방식을 세 가지 질적 사례(신길역 리프트 사고, 장애인 이동권 토론회, 척수장애인의 보조기기 사용 경험)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질문에 대한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네트워크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상호작용하는 이질적이고 역동적인 구성체임이 확인되었다. 신길역 사례에서는 리프트, 호출 버튼, 법규와 같은 비인간 행위자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자 책임 공방의 핵심 요소로 작용했으며, 이동권 토론회에서는 교통약자법, 표준 조례안, 통계 자료 등이 논의를 이끌고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행위자였다. 또한, 척수장애인 사례에서는 휠체어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사용자의 신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정체성과 행위성을 지닌 ‘인간-기술 하이브리드’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이동권 문제가 단순히 인간 중심의 권리나 정책의 문제를 넘어, 라투르(Latour, 1993)가 지적한 것처럼 기술, 사물, 법, 공간 등 다양한 비인간 요소들이 인간과 함께 현실을 구성하고 변형시키는 ‘하이브리드’적 현상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기존의 이동권 연구들이 주로 법·제도 개선이나 물리적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허창덕, 신주영, 2011; 문영임, 2022)과 달리, 본 연구는 이러한 비인간 행위자들의 능동적인 역할과 이들이 인간 행위자들과 맺는 관계의 복잡성을 드러냄으로써 이동권 문제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이해를 시도했다.

둘째, 이동권 네트워크의 형성과 변형은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끊임없는 ‘번역’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은 권력 관계와 정치적 협상을 내포하고 있었다. 신길역 사고에서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은 각 행위자 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문제 정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치열한 번역 전쟁이었다. ‘휠체어 리프트’는 공사에 의해 ‘정상 작동 기계’로 번역되려 했으나, 장애인 단체에 의해 ‘살인 기계’라는 강력한 상징으로 재번역되며 네트워크의 구성을 바꾸는 동력이 되었다. 토론회는 그 자체가 이동권 문제를 특정 방식으로 문제제기하고(예: 표준 조례안의 필요성), 다양한 행위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어(관심 끌기, 등록) 정책 변화를 동원하려는 거대한 번역의 장이었다. 척수장애인에게 휠체어는 ‘이동 제약’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의무통과점으로 제시되었고, 사용자와 휠체어는 서로를 번역하며 새로운 이동 방식과 삶의 가능성을 구축해 나갔다. 이러한 번역 과정은 라투르(Latour, 2004)가 강조한 것처럼 결코 중립적이거나 순탄하지 않으며, 기존의 권력 구조와 사회적 규범, 그리고 각 행위자들의 전략과 자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정치적 과정임을 세 사례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이동권 네트워크는 비장애인 중심의 ‘에이블리즘적 위상학’에 맞서 장애인 당사자와 그 연대 세력이 새로운 ‘접근 가능한 위상학’을 구성하려는 지속적인 힘겨루기의 장이었다. Osman과 Porkertová(2023)가 지적한 ‘사회적 돌맹이’처럼, 우리 사회의 물리적·제도적 환경은 종종 비장애인의 몸과 경험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장애인에게는 수많은 장벽으로 작용한다. 신길역의 위험한 리프트, 토론회에서 지적된 특별교통수단의 문제점, 척수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접근성의 제약들은 모두 이러한 에이블리즘적 위상학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장애인과 그들의 네트워크는 이러한 구조에 수동적으로 머무르지 않고, 시위, 소송,

정책 제안, 기술의 창의적 활용, 그리고 일상에서의 미시적 저항을 통해 기존의 위상학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한다(Velho, 2021). 이 과정에서 장애인 이동권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의 투쟁과 협상을 통해 쟁취되고 확장되는 ‘구성되는 권리’로서의 성격을 띠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ANT가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구체적인 사회 문제를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한 이론적·방법론적 도구를 제공함을 보여준다. 특히 인간과 비인간의 대칭적 접근, 번역 과정에 대한 추적, 네트워크의 역동성에 대한 강조는 기존의 구조 중심적 혹은 개인 중심적 접근 방식이 간과했던 이동권 문제의 복잡성과 다층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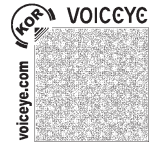
본 연구는 ANT를 적용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 네트워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이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동권 문제의 극히 일부만을 보여줄 뿐이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주로 문헌 자료에 의존하여 사례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의 생생한 목소리나 관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풍부한 데이터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을 수 있다. 셋째, ANT의 분석 과정은 연구자의 해석에 크게 의존하므로, 다른 연구자가 동일한 사례를 분석하더라도 다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이동권 관련 연구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보다 다양한 맥락과 유형의 이동권 사례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 장애인의 이동권, 정신장애인이거나 발달장애인의 이동 경험, 특정 교통수단(예: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을 둘러싼 네트워크 분석 등 구체적인 대상과 상황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필요하다. 둘째, ANT를 활용한 연구에서 질적 사례 연구 외에도,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계량적 연구나, 심층 인터뷰, 참여관찰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결합한 혼합 연구 설계를 통해 보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동권 네트워크의 ‘번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협상, 그리고 권력관계의 문제를 더욱 심도 있게 탐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이동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되고 배제되는지를 ANT의 관점에서 추적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단순한 시혜나 편의 제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본 연구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의 시각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현상이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역동적인 네트워크의 산물임을 밝혔다. 신길역 리프트 사고는 기술과 제도의 실패가 어떻게 비극을 낳고 사회적 투쟁을 촉발하는지를 보여주었으며, 이동권 토론

회는 정책과 담론이 다양한 행위자들의 번역 과정을 통해 구성되는 정치적 공간임을 드러냈다. 또한, 척수장애인의 휠체어 사용 경험은 기술과 인간이 결합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지만 동시에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그 의미가 재구성됨을 보여주었다.

결국, 장애인 이동권의 실질적인 보장은 단순히 법을 만들거나 시설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그것은 이동권을 구성하는 다양한 인간 행위자들(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정책가, 시민 등)과 비인간 행위자들(법률, 정책, 예산, 기술, 인프라, 사회적 인식 등) 간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이들이 서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를 함께 구축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 구조와 기술 환경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재설계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분석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기술적 접근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향후 정책 설계와 제도 개편에 있어 인간-비인간 행위자 간의 관계 재구성을 고려해야 함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 공마리아, 문영임, 김지혜. (2022).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교통수단 정책을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38(3), 59-78.
- 국회의원 김철민,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9).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곽은주, 김동미. (2022). 인간과 기계번역의 공존을 위한 담론: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20(3), 5-31.
- 김득연, 박종균. (2020). 중도 척수장애인의 사회참여 과정에서 이동성의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50, 143-168.
- 김상태, 김남조. (2018).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한 관광분야 공유경제 플랫폼의 성장과정 분석: 에어비앤비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2(3), 163-183.
- 김정효, 강주희. (2022). 사운드스케이프를 활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브뤼노 라투르의 '대칭성'과 '번역'의 의미를 바탕으로. 조형교육, 84, 75-95.
- 문영임. (2022).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관련 법률 분석과 향후 과제: 장애인 이동권 관련 법제도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13(2), 213-236.
- 박승원. (2018. 3. 15). 장애인은 죽고, 리프트는 살아있다.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70>)
- 박승원. (2018. 6. 1). 고 한경덕 씨 죽음으로 내몬 휠체어리프트 타며 “살인기계 리프트 철거하라!”.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49>)
- 박승원. (2018. 10. 19). '덜컹' 신길역 참사 1주기 추모제날에도 멈춘 휠체어 리프트.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06>)
- 박은주. (2020). 기계도 행위할 수 있는가?: 브루노 라투르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을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42(4), 1-26.
- 양정빈, 최윤영. (2022). 장애인 이동권의 의미와 이동권 체계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논의. 사례관리연구, 13(1), 219-239.
- 윤수정. (2023).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헌법재판. 공법학연구, 24(2), 27-56.
- 이유신, 김한성. (2019). 장애인의 이동이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건사회연구, 39(1), 136-165.
- 채수영, 안나연. (2012). 척수손상 장애인의 보조공학기기 사용에 대한 심리사회학적 영향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1(2), 179-196.
- 최병두. (2015). 행위자-네트워크이론과 위상학적 공간 개념. 공간과사회, 25(3), 126-174.
- 허창덕, 신주영. (2011).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내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재활복지, 15(3), 1-25.

- Callon, M. (1986). Some elements of a sociology of translation: Domestication of the scallops and the fishermen of St Brieuc Bay. In J. Law (Ed.), *Power, action and belief: A new sociology of knowledge* (pp. 196-233). Routledge & Kegan Paul.
- Latour, B. (1993). *We have never been modern* (C. Porter, Trans.). Harvard University Press.
- Latour, B. (2004). *Politics of nature: How to bring the sciences into democracy* (C. Porter, Trans.). Harvard University Press.
- Latour, B. (2005).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 Osman, R., & Porkertová, H. (2023). The social stone: a story of transformation from ableist to accessible topology. *Social & Cultural Geography*, 24(9), 1598-1615.
- Velho, R. (2021). They're changing the network just by being there: Reconsidering infrastructures through the frame of disability studies. *Disability Studies Quarterly*, 41(2).
- Yin, R. K. (2018). *Case study research and applications: Design and methods* (6th ed.). Sage publications.

Abstract

A Network Analysis of Mobility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Bruno Latour's Actor-Network Theory

JaeWook Lee*

This study explores mobility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not merely as an issue of institutional policy or physical access, but as a sociotechnical network involving human and non-human actors. Applying Bruno Latour's Actor-Network Theory(ANT) as its framework, the study analyzes three cases: the Singil Station lift accident, a national policy forum on disability mobility, and the use of assistive technologies by individuals with spinal cord injuries. The analysis shows that mobility networks are complex and fluid, shaped through "translation" processes that define meaning, mediate interaction, and reflect power relations and political struggle. These networks often embed ableist assumptions in technology, design, and policy. Yet they also become arenas of resistance, where disabled actors challenge and reshape systems through protests, advocacy, and creative action. By examining diverse actor interactions, this study proposes an alternative lens that moves beyond institution-focused approaches to understanding mobility rights.

Keywords : Mobility rights, Actor-Network Theory(ANT), non-human actors, translation, ableism

* Ph. D. Student, Dept. of Disability Studies, Daegu University



논문 투고 : 2025.04.15.

논문 심사 : 2025.05.28.

게재 확정 : 2025.06.16.

장애의재해석

제6권 제1호(통권 7호)

발행처 한국장애인재단

발행일 2025년 6월 30일

발행인 이성규

전화 02)6399-6235

팩스 02)6399-6238

홈페이지 <https://www.kfpd.org/>

주소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207호(순화동 바비엣3)

인쇄처 디자인이인

편집위원회

위원장 백은령(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 원 공마리아((전)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교수)

권선진(평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김동기(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동주(우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심규하(한국예술종합학교 디자인학과 교수)

양숙미(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진자(우석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정창호(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

최복천(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Journal of Reinterpretation of Disability

Vol. 6 , No.1, Jun 2025

Contents

- Disability in the Bible and the Sacred Order of Exclusion: A Study Based on Eliade's Concept of the Sacred and the Profane// Chae Min
- The effectiveness and tasks of supported decision-making education using the Australian La Trobe framework// Dongsuk Lee, Yeo-ok Do, Kangwon Kim
-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Citizenship Statu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Housing Policy// Jinhong Min, Yeon Soo Kim
- How do social workers experience the challenging behavior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adults?// Hyoung Wol, Choi, Hae Young, Lim
- Analysis of the Job Model of the 'Access Manager': Derivation and Verification through Literature Review, Survey and FGI// BoKyung Choi, BoYun Choe, JongEun Chung
-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Disability Acceptance Among Non-Disability University Students: A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the Level of Direct Contact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Kyoll Lee, JiOn Kim, EunHo Ha, EunBean Kim
- Analysis of Change Trajectories of Occupational Abilities of Disabled People using Latent Class Growth Model// MinCheol Shin, Dongll Chun
- A Network Analysis of Mobility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Bruno Latour's Actor-Network Theory// JaeWook Lee